현대불교 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직통 (02)737-0090 대표 737-8881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구독신청 02)737-0090 · 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11월 17일(음력10월 6일) 수요일 (주간) 제500호

원적외선 사찰 난방 전문
- 난방비가 저렴합니다 -
고정협찬 : MBC-TV 러브하우스,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중앙일보와 KTDOM의 베스트 추천업체
시 공 처 : 통도사 백운암, 변산반도 월명암, 정선 불암사, 철원 장안사, 서울시 문화재 2호 봉황각, 유교문화원, 가평 법흥사 등
웰빙◎코리아 http://www.wbkor.co.kr 전화 02)538-8489, 551-3010

여주교도소 재소자 대상 '붓다 아카데미' 그 절절한 참회 현장

"棺에 들어가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발우공양 · 연등만들기 · 죽음체험 통해 희망 찾고 새삶 발원

11월 11일 오후 여주교도소. 불교분과위원회(위원장 성무)가 수용자 정신교육의 일환으로 '붓다 아카데미, 나를 찾아서'를 진행하고 있는 교도소 남사(男舍) 교육관을 찾았다. 막 군대를 전역한 듯한 까까머리 청년부터 희끗희끗한 노인까지, 부처님 앞에 모여든 50여 명의 수용자들은 여주 신륵사 보문 스님의 지도 하에 <부모은중경>을 사경하고 있었다.

수용자들의 사경하는 모습을 둘러보다 유독 김씨에게 눈길이 멈췄다. 재소복 사이에서 언뜻 언뜻 비치는 문신 탓이라 생각했지만, 그의 일자일배(一字一拜)에서 좀처럼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렇게 숨을 죽이고 지켜본지 1시간. 곧기만 하던 그의 몸이 흔들렸다. 가쁜 숨 사이로 땀방울이 사경지 위로 떨어졌고, 정성스레 쓴 글자들이 얼룩졌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살인을 했지요. 우발적인 사고라 변명하고 싶지만, 결국 내 마음의 엇나감으로 남의 생명을 해친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참회해야 하는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단지 부처님께 기도를 하며 저로 인해 해를 입은 영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극락왕생을 비는 것뿐입니다."

쉬는 시간 그가 건넨 말 속에서 깊은 후회가 느껴졌다.



여주교도소 남사 교육관에서 수용자 50여명이 일자일배를 통해 <부모은중경>을 사경하고 있는 모습.

여주교도소(소장 신상철)에는 초범 1,700여명이 수용돼 있다. 절도, 폭행, 살인 등 그 죄목들은 각각이지만,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은 같았다.

여주교도소 불교분과위원회가 주목한 것은 바로 이 점이었다. 교도소라는 곳의 특성상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재소자들과 정신적 교감을 통한 교화교육을 담당하고 싶었다. 그것이 종교의 역할이라 생각했고, 이를 위해서는 법회뿐만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교도소 직원신행모임 불심회(회장 함대식)와 함께 '붓다 아카데미'를 기획했다.

붓다 아카데미는 11월 8~20일 2주간 발우공양과 연등 만들기, 명상 및 요가, 삼보일배, 사경, 유언장 작성하기, 죽음체험 등 불교 수행프로그램들로 매일 다르게 진행된다.

프로그램의 효과는 지난 8월 시범 운행된 제1기 붓다 아카데미를 통해 드러났다. 아카데미 실시 이후 수용자들은 발우공양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삼보일배를 통해 참회의 시간을, 명상과 요가를 통해 심신의 정화를 느끼고 있었다.

"그 동안의 교육은 전문강사가 와서 하는 강의 일변도라 가슴에 크게 와 닿지 않았어요. 하지만 찬불가도 부르고 사경도 하고 명상 등을 하며, 내 안의 화가 사그라지고 마음이 점차 편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신OO · 징역 5년)

특히 지난 11월 5~6일 여사(女舍)에서 진행된 유언장 작성과 죽음체험은 큰 반향을 일으키며, 수용자들에게 지난 삶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죽음체험을 위해 수의를 입고 해탈문을 지나는 순간 '정말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칠성판에 누워 손발이 묶인 채 관속에 들어간 순간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여사에서 만난 붓다 아카데미 참가자 류씨(징역 1년 6개월)는 그 순간을 회상하며, 또 다시 눈물을 글썽였다. 막상 죽는다 생각하니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을 나와서는 못난 어미로 인해 방황하고 있는 딸아이가 생각났다고 말한다.

"복역을 마친 후 남은 생을 딸아이 같이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에는 제 장기를 필요한 이들에게 기증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볼 위로 흐르는 눈물 사이로 씽긋 웃어보였다. '희망'. 붓다 아카데미는 단순한 정신교육이 아닌 참회를 통한 희망을 수용자들에게 심어주고 있었다.

형용할 수 없는 감정으로 여사를 빠져나오는데 몇몇의 수용자들이 며칠 전에 작성한 유언장을 기자에게 건넸다.

"저승 가는 발길이 차마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를 믿어준 이들에게 상처와 아픔만을 안기고 떠나게 되다니.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딸아. 죄 많은 엄마를 용서하고 항상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며, 좋은 업을 짓고 행복하게 살으렴…. (유OO)"

"참회합니다. 온갖 죄를 짓고 남을 해친 점 부처님 앞에 참회하며, 다시 태어나면 봉사하는 삶으로 속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박OO)

글 · 사진 / 여주=김은경 기자

"종무실 축소 반대" 종교지도자협 9일 성명

정부의 문화관광부 종무실 축소 결정과 관련,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법장 · 이하 종지협)는 11월 9일 이번 결정의 재고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종지협은 성명서에서 "종무실 축소 결정은 다종교 국가에서 종교가 가지는 위상과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탓"이라면서 "종무실은 약화되기보다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지협은 또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기능과 역할을 볼 때 종무실의 규모 뿐만 아니라 종교 담당관들의 전문성 강화가 절실하다"며 "종무실 축소결정 재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반가워요, 현대불교!

산중에서 공부에 전념하는 학인들도 매주 현대불교신문을 통해 불교 소식과 정보를 얻고 있다. 사진은 11월 11일 방학을 맞은 대구 동화사 강원(강주 해월) 대교과 학인들이 '현대불교' 최근호를 보며 활짝 웃고 있는 모습. 동화사=박재완 기자

'현대불교 지령 500호' 특집 안내
부처님은 웰빙을 설했다 5면
간화선과 힌두명상 무엇이 다른가 18~19면

'간화선 수행지침서' 내년 2월 간행

편찬위원장 혜국 스님…체계적 수행방법 제시



지난 2년여 동안 추진해온 조계종 '간화선 수행지침서' 발간작업이 올 연말 마무리된다.

'간화선 지침서 편찬위원회'는 11월 3~5일 충주 석종사에서 열린 확대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그동안 제방 선원 중진수좌, 선원장, 학계 등의 자문을 얻어 추진 중인 수행지침서 편집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편찬위원장은 혜국 스님(충주 석종사 선원장 · 사진)이 맡고 있다. 이 지침서는 내년 2월 간행 예정이다.

조계종이 수행체계 마련에 나서게 된 것은 2001년 말 수행종풍 진작을 핵심 종책사업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면서부터. 조계종은 그동안 대승불교의 최상승 수행법이라는 간화선을 대 사회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교재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2002년 11월 8일 수행지침서 간행과 제 수행법 연구 등을 중심으로 '조계종 수행체계 연구위원회'가 발족했다. 편찬위원회에는 위원장 혜국 스님을 비롯해 고우 무여 인각 의정 강설 설우 스님 등 선원장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다.

간화선 치침서 편찬위는 모두 6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편찬체제를 △기초단계 △실참 단계 △깨달음 이후 단계로 나누고 △간화선의 기초, 교육과 수행 △화두의 결택 △화두의 참구 △삼매 △점검과 인가 △깨달음 이후 등으로 각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자세한 공부법을 제시해 간화선 수행의 이론 · 실참서가 될 전망이다.

편찬위 관계자는 "이번 수행지침서가 선대 어록과 현재 최고 수행자들의 의견을 집대성해 종단을 대표하는 수행지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간화선의 현대적 해석을 통해 간화선 대중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할'



그림 · 조태호

정천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無住堂 淸華 大宗師 涅槃 一週忌 追慕齋 案內

무주당 청화 대종사 열반 1주기 추모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문도스님 및 사부대중은 두루 동참하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 일 시 : 불기 2548년 11월 21일 (음력 10월 10일) 일요일
● 시 간 : 오전 11시
● 장 소 : 성륜사 법성당
● 주 소 : 전남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산 1번지
● 연락처 : 종무소 061)363-0081

불기 2548년 11월 17일
대한불교 조계종 설령산 성륜사 문도일동 합장

500_2 2004.11.15 2:37 PM 페이지 1 (1,1)



군불교 '체질개선' 필요하다

일상적 직무유기. 한마디로 현재 그리고 과거의 군포교를 가장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일 것이다.

필자가 1999년 전방에 초임 군법사로서 부임했을 때의 일이다. 처음부터 각 연대의 지휘관들은 노골적으로 목사가 부임해주기를 바랐고, 법사가 부임하는 부대의 지휘관을 위로(?)하는 분위기가 느껴졌다. 그것은 법사를 참모로서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었다.

1년의 기간동안 필자는 이러한 법사에 대한 야전 지휘관들의 일반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고, 어려운 여건에서 법당불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쯤, 우려했던 것은 현실화 되기 시작했다.



개신교 신자인 지휘관은 군종참모인 목사와 협의해, 후임 군종장교를 목사로 할 것을 협의하고 있었다. 이에 군승단 회의시 이 문제를 공론화했고, 다른 부대도 유사한 상황일 것이므로 전군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당시 필자의 상급부대 법사는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다른 상위 계급의 법사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이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다행히 지휘관과 당시 군종참모인 목사를 설득해 무사히 후임 법사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있었다. 이때 오히려 합리적 성향의 목사가 필자의 주장을 상당부분 이해해 준 것이 도움이 되었다. 포교의 적은 항상 외부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자신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의 사례의 경우처럼, 법사 개인의 자질과 무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법사가 군조직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있다. 사단법사는 3년 이상의 군복무 경력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단에 부임하는 군종장교의 인사가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또한 하급 부대의 사정에 대한 정보가 부재했다. 이는 자신이 그 조직에서 자신의 역할, 즉 자신의 임무가 무엇이고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가를 모른다는 것이다.

타종교와의 '균형' 현장의 고충
자체적인 자질함양 노력 필요

군법사는 장교로서의 활동을 당해 지휘관에게 평가받지만 승려로서의 활동은 객관적으로 그 공과를 평가받을 길이 없다. 이것은 상위 계급 법사와의 개인적 친분 등이 노력보다 현실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게 된다. 이는 부패와 무능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어려운 여건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법사가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한 군포교의 질적 향상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제 군불교는 목사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상담분야의 전문가와 조직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행정적 추진력과 판단력을 겸비한 법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것은 유능한 인적자원이 군법사를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조치해야 하는 선결과제를 환기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이정훈(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조계종 13대 중앙종회 후반기 전망

"종회 화합해야 종단도 안정"

분과위 활동 강화로 종회기능 제고
종책모임 책임의식 '발전'의 새 코드

조계종 13대 중앙종회 후반기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는 향후 조계종 전반적인 기조와도 무관치 않다.

법등 스님은 중앙종회의장 당선 후 기자회견에서 "역대 종단 분규 발상지를 보면 중앙종회였다. 종단 안정을 위해서는 먼저 종회가 안정돼야 한다"며 종단 안정에 최우선 목표를 둘 것을 밝혔다.

이는 멸빈자 사면문제, 조계사 주지(재산관리인) 교체 문제, 부산 선암사 문제 등으로 곤혹을 치렀던 총무원 집행부의 향후 행보를 가볍게 할 수 있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즉 여당격인 종책모임 일승회와 화엄회의 지지를 받은 법등 스님이 금강회와 보림회의 지지를 받은 법조 스님을 14표 차이로 여유 있게 승리했기 때문에, 총무원 집행부의 종단 운영이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등 스님은 또 각 분과위원회 활동을 강화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를 통해 즉흥적인 안건 상정 보다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뒤 상정하는 체제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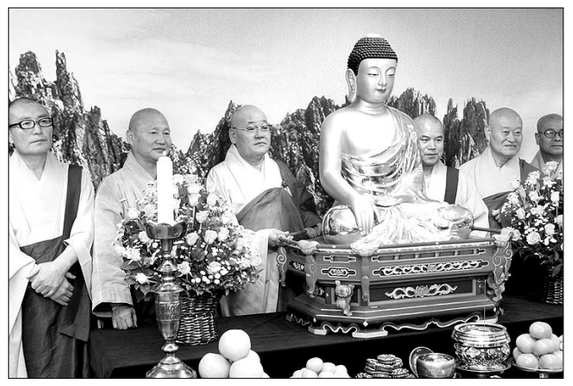
내년 예산에 상임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후반기에는 무엇보다 각종 입법 활동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멸빈 조항과 중앙종회의원 면책특권 삭제, 종헌 개정시 공개투표 등을 뼈대로 하는 종헌종법 개정의 건을 비롯해, 중앙종회법 개정의 건, 종무원법 개정의 건, 총림법 개정의 건이 차기 종회에 상정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군승교구특별교구법 제정 등이 올 12월 열리는 임시종회에서 다시 논의되며, 승려법 등도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앙종회가 일승회, 금강회, 보림회, 화엄회 4개 종책모임 위주의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는 점은 스스로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들 계파식 모임들이 스스로 표방하는 이름 그대로 정치적 정체성을 확립해 책임정치를 펼치지 않는다면 이익집단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최대 계파인 일승회의 행보에 따라 후반기 종회 역량이 가늠될 것이라는 시각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조계종 주요 종무직 스님들이 11월 10일 열린 신계사 대웅전 부처님 이운식에 참석했다. 왼쪽부터 조계종 사회부장 지원, 신계사복원추진위 집행위원장 학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법주사 주지 도공, 총무부장 무관 스님. 사진=박재완 기자

"통일 염원으로 부처님 봉안"

금강산 신계사 모실 부처님 '이운'

금강산 신계사 대웅전에 모셔질 '통일부처님' 이운식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총무부장 무관, 사회부장 지원, 신계사 불사도감 제정 스님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다.

'통일부처님'은 높이 88㎝ 폭 68㎝의 금동석가모니불이며, 좌대의 크기는 높이 36㎝ 폭 96㎝이다.

이 부처님은 1996년 조성돼 총무원 구청사 1층 불교회관에 모셔졌던 것으로, 11월 20일 금강산 신계사지에서 열리는 대웅전 낙성식 행사 때 법당에 모셔진다. 2005년 새로 부처님이 조성되면 남한으로 되돌아올 예정이다.

신계사복원추진위원회는 11월 11일 통일부처님과 함께 대웅전 현판, 부처님 좌대 밑에 묻을 지진구 등을 북한 신계사로 보냈다.

강유신 기자

조계종 내년예산 296억여원

165회 정기종회 통과, 우수사찰 추천도

조계종 제165회 정기중앙종회가 11월 9일 속개돼 내년 예산안 등을 통과시킨 뒤 10일 폐회됐다.

중앙종회는 일반회계 168억 7479만8천원, 특별회계 127억 4174만1천원 등 총 296억1653만 9천원의 내년 예산을 심의 확정했다. 종립학교관리위원으로 운달 스님을 선출했으며,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후보로 암도 스님과 진원 스님 추천에 동의했다.

중앙종회는 종정감사 결과 월정사, 용주사, 동학사, 송광사, 남장사, 고운사, 보리암, 분수사, 도선사를 우수 사찰로 추천했다.

부산 선암사 문제와 관련해 사법부 규탄 결의문, 해종행위자(대종단 소송 제기자) 중징계 촉구 결의문,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결의문도 채택했다.

군승특별교구법 제정 등은 올 12월 중 임시종회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남동우 기자

조계종 스님 1만2683명

10월 29일 기준으로 조계종 전국 본 · 말사(선학원, 대각회 포함) 소속 스님은 총 1만268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사미는 1900명, 사미니는 1404명, 비구는 4710명, 비구니는 4669명이다. 또 조계종이 아닌 종단에서 조계종으로 귀의한 '귀종승'은 총 116명이었다.

한편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조계종 전국 본 · 말사(사설사암 포함) 미체납 분담금은 총 28억4285만원으로 조사됐다.

남동우 기자

사립학교법 개정 교계생각 '따로'

종관위 · 실승 입장 달리하는 성명 발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불교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원택)와 조계종 중앙종회는 9일과 10일 현재 정부여당이 입법추진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중앙종회와 종관위는 성명에서 "사학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사학의 건전 발전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불교 종립학교가 건학이념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관련 사학재단과 연대해 개정안 반대 운동을 전개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효림 성관) 등 재야 45개 단체들은 9일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촉구 국민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사학에서 발생하고 있는 족벌 경영과 전횡, 파행적 학사운영, 학교의 사유화, 교비 유용 및 횡령 등 공교육 파행을 막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학교운영구조의 민주화를 위한 공익 · 개방이사 제도의 즉각 도입을 요구했다.

조용수 기자

"전통사찰 증개축허용" 개정안 정기국회 제출

자연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는 전통사찰 건축물의 신축과 증 · 개축이 허용될 전망이다.

정병국(한나라당 가평 · 양평)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21명은 사찰 경내지에서 불사(佛事)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신축 및 증개축을 허용하는 대상에 전통사찰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현재 진행 중인 제250회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통사찰 내에서의 수행시설과 부대시설 건축이 보다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병국 의원실의 권진현 보좌관은 "그동안 법률의 규제로 전통사찰 문화재보존이 쉽지 않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대표 유정칠, 이하 국시모)은 11월 11일 발표한 논평에서 "최소한의 시설이외에는 어떠한 시설의 설치도 허용되지 않는 자연보존지구에서의 불사는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고침 본지 499호 부록 포교사 고시 실전 모의고사 표지에서 대광불교대학 학장 '상진'을 '운성'으로 고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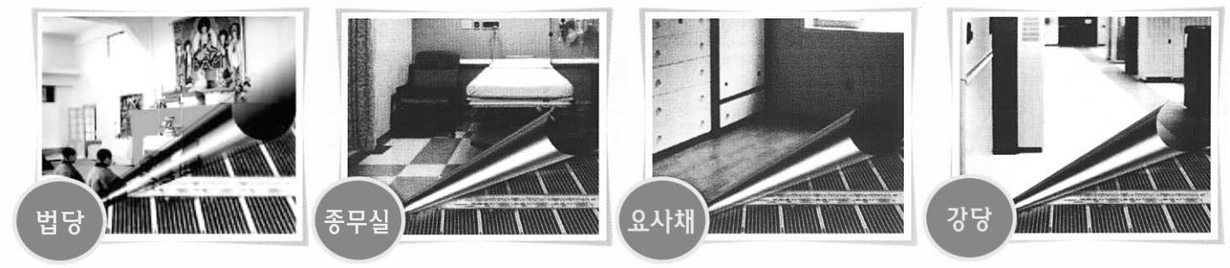
법당 난방 걱정 끝!

배관난방이 아닌 면상발열체 난방시대.

원적외선 복사열 난방필름 [10평 기준 월 3만원대 - 1일 8시간 30일 기준]

법당, 종무소, 요사채, 공양간, 강당, 수련원 (산속 사찰에서 도심 포교당까지)

설치장소 법당, 종무소, 요사채, 공양간, 강당, 수련원, 기숙사, 병원, 별장, 콘도 등



경제적 난방!! 간편한 시공!! 반영구적 설비!!



세계 7개국 발명특허를 획득한 수입완제품.
쾌적단 원적외선 복사열 면상발열체 난방시스템으로 21세기 사찰 난방의 새로운 혁명을 한국전자난방이 만들어 갑니다.

난방 종류별 단가 비교표

구 분	심야전력(축열식)	전기판넬	도시가스	보일러등유	LPG	한국전자난방
가 격(원)	31.24(kwh)	71.5원	500원(㎥)	650원(ℓ)	950원(kg)	71.50원(kwh)
연료소비량(월)	192(kwh)	167(kwh)	13(㎥)	17(ℓ)	12(kg)	43.2(kwh)
난 방 비(평당)	5,998원	11,941원	6,500원	11,050원	11,400원	3,088원
단가지수(%)	194	386	210	358	369	100
10평 난방비(원)	59,980원	119,410원	65,000원	110,500원	114,000원	30,880원

음이온 시험 성적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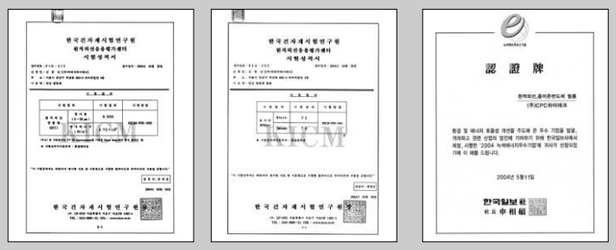
시 료 명	음이온(on/cc)	발급번호
발열필름	158	kfim-236

원적외선 시험성적서

방 사 율	방사에너지	발급번호
90.3%	3.64 ×10²	kfi-403

한국원적외선응용평가연구원 시험결과

검증 인정서



(주)한국전자난방 본사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2가 16-5번지 고려빌딩 4층 • 설치 및 전국문의 : 080-017-0100, 지역문의 : 043)221-6006

500_2 2004.11.15 2:37 PM 페이지 1 (2,1)

조계종 내년 예산 들여다보니…

2005년도 조계종 예산은 긴축 기조 속에서 승려노후복지와 외국어 사이트 운영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됐다는 특징을 띠고 있다. 이는 현재 어려운 경제 여건을 반영하면서 수행 풍토 진작과 인터넷 포교에 중점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스님 노후복지 2억원 첫 편성

경기불황 반영 규모 동결 · 긴축 편성
국제포교사 양성 등 일부사업 1년 유예
외국어 사이트 운영 예산 '눈길'

조계종 2005년 예산은 총 296억1653만9000원. 이 중 일반회계는 168억7479만8000원, 특별회계는 127억4174만1000원이다.

이는 총무원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사회부의 인터넷 국제포교 사업비 6300만원, 교육원의 보조사상연구회 보조금 500만원, 포교원의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보조금 1000만원, 중앙종회 상임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비 4000만원 등 총 1억5260만원을 증액하고, 세입에서 특별분담금 3천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억8260만원으로 조정한 결과다. 총무원 집행부는 이 차액을 예비비에서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조계종의 내년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규모에서 동결을 원칙으로 긴축 편성됐다. 이는 경기 불황 등 사회 전반적 흐름과 궤를 같이한 것이다.

또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중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차 공사 중 설계변경과 공사구간 변경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과 한국불교전통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에 필요한 비용 20억원이 시설특별회계로 편성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회부의 불교사회단체 프로그램 공모 사업과 문화부의 멸실문화재조사 사업, 포교원의 국제포교사 양성 사업이 1년 동안 유예됐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특징을 보면, 중앙 · 직할 · 직영 분담금은 2004년 분담금 배정액을 기준으로 볼 때 동결됐다. 경주 석굴암을 제외한 특별분담사찰 분담금도 모두 동결됐다. 문화재관람료(12%) 분담금은 2003년도 결산에 근거해 분담금 규모를 현실적으로 조정해 증액 편성됐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인건비 동결도 보인다. 인건비는 3년째 동결이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삭감에 해당된다.

특별회계 중 주목되는 부분은 신설된 '승려노후복지특별회계.' 약정출연금 1억원, 희사금 1200만원, 경상이전수입 100만원, 전년도 이월금 600만원 등 총 1억1900만원이 편성됐다. 특히 국회에서 정부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면 승려노후복지시설 건립비용 1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어서, 승려노후복지사업의 물적 토대가 보다 튼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 원 · 부서별로 보면 2004년에 비해 총무부, 사회부, 호법부, 중앙종회사무처, 사회복지재단의 예산이 증액됐으며, 기획실, 재무부, 문화부, 교육원, 포교원은 감액 편성됐다.

내년 주요사업 중 기획실의 종단 매스미디어위원회 조직운영, 문화부의 불교중앙박물관 개관, 사회부의 종단 외국어(영 · 일 · 중국어) 사이트 운영, 호법부의 미등록 사설사암 정보 정비 및 통계자료화, 교육원의 승가교육제도개선추진위원회 활동 및 승가교육과정 재정비, 포교원의 군승특별교구 출범 및 청년 · 소년 포교활동, 중앙종회사무처의 상임분과위원회 및 종헌 · 종법특별위원회 활동, 사회복지재단의 10주년 기념 등이 주목된다.

특히 사회부의 외국어 사이트 운영은 국제포교 활동 기반 마련을 비롯해 불교교류 활성화 및 종단 국제 활동역량 강화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998년 이후 분담금 수입이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있어 종단 차원의 재정 확충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종정감사 때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각 사찰에 대한 정확한 실사를 통해 분담금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작업과 병행돼야 한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합격 기원, 간절한 모성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뜨거운 자식 사랑 앞에서는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도 맥을 못 추었다. '대입 수학능력시험 D-5일'인 11월 12일 서울 봉은사 미륵대불전은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길 기원하는 학부모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사진=고영배 기자

세계불교도우의회 정기총회 내년 7월말 加 에드먼턴서

세계불교도우의회(WFB)는 10월 29, 30일 태국 방콕에서 69차 이사회를 열고 현지 사정상 11월 부탄에서 열릴 예정인 제23차 정기총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새로운 개최지로 캐나다 에드먼턴을 잠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세계청년불교도우의회(WFBY) 정기총회도 함께 2005년 에드먼턴에서 열리게 됐다.

한편 WFB 이사회는 11월 30일~12월 2일 인도 룸비니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불교도수뇌회의(World Buddhist Summit)에도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강유신 기자**

국제포교사 美 문화체험

제 1회 국제포교사 해외문화체험 행사가 10월 29일~11월 6일 미국 뉴욕 보스턴 등지에서 열렸다.

국제포교사 등 18명이 참가한 국제포교사 해외문화체험단은 뉴욕, 보스턴, LA 등지의 불광선원 관음사 LA불교대학 태고사 고려사 성불사 서래사 등 한국사찰과 인사이드 메디테이션 센터, 프로비던스 젠센터, 스토니 포인트 센터, 티베트하우스 등을 견학했다.

이번 체험 결과 참가자들은 티베트 하우스와 같은 불교적인 색채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문화원 형태로 현지인들에게 접근할 것과 함께 한국불교를 널리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강지연 기자**

포항시장 종교편향 조계종 공식 대응

종평위 "사과 · 재발 방지 약속해라" 성명

정장식 포항시장의 '포항 성시화(聖市化)' 발언과 관련해 불교계를 중심으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이하 종평위)는 11월 10일 이 사건을 '시장 권력을 이용, 지자체의 예산을 특정종교 선교사업기금으로 전용하려 한 것'으로 규정하고 성명서를 통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종평위는 이어 "정 시장이 성시화 운동 세계화대회와 관련한 명예준비위원장을 맡은 것은 개인적인 종교 활동으로 치더라도, 행사에서 '포항시를 성시화하겠다'는 발언은 공인이며 고위공직자로서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국교의 분리' 원칙을 위한 행위"라면서 "시민의 혈세를 개인적 종교 활동에 사용하려는 것은 공금유용 사건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종평위는 또 "포항시민과 국민들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임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포항불교사암연합회, 종교편향대책위원회, 동국대 석림회, 불교인권위, 조계종 10교구 본사 은해사 등은 11월 1일 정 시장의 공식사과와 개신교 기관장 모임인 '홀리클럽' 탈퇴를 요구했으며 7일부터는 홀리클럽 가입 포항기관장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현수막을 사찰 입구에 내걸었다.

강유신 · 배지선 기자

선학원 교육문화회관 건립

(재)선학원이 '선학원 교육문화회관' 건립을 추진한다.

선학원(이사장 도형)은 11월 9~10일 양일간 서울 타워호텔에서 2004 전국분원회의가 개최하고 이에 대한 여론을 청취했다.

이사장 도형 스님을 비롯해 재단이사, 전국 분원장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 분원장 스님들은 분원별 월납금 모금을 통해 교육문화회관 건립 기금을 마련하자는 등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다. **박봉영 기자**

위덕대-경주교육회관 산 · 학 교류협정 체결

진각종 종립 경주 위덕대(총장 한재숙)는 11월 5일 경주교육문화회관(대표이사 송덕수)과 산 · 학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위덕대는 이번 협정 체결로 연계체계 확립과 연구 · 기술의 공동개발, 교육문화회관 임직원의 대학교육 참여범위 확대, 실험실습기자재 및 연구 기기의 공동 활용, 학생의 현장실습을 통한 사회적응력 향상 등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관광경영학부와 외식산업학부 학생들이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됐다. **박봉영 기자**

대한불교신문 3개월 휴간

대한불교신문이 3개월간의 휴간 안이 이사회에서 통과되면서 발행 중단 위기에 놓였다.

대한불교신문 임시이사회는 11월 1일 대성 스님(회장), 조연 스님(대표이사)등 6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대한불교신문 휴간의 건' 등 두 가지 안건을 가결하고 3개월 휴간을 결정했다. 신문휴간건은 주주총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천미희 기자**

"불단에 친환경 공양미 올리세요"

생협 매장을 경내에 설치해 화제를 모았던 서울 삼성동 봉은사(주지 원혜)가 이번에는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된 쌀을 공양미로 올리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봉은사는 11월 7일 도농공동체운동을 벌이고 있는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와 '친환경 공양미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봉은사는 친환경 논농사로 생산되는 남원 실상사 인근 생산자들의 쌀 전량과 횡성 둔내 환경농업마을의 쌀을 공급 받아 불단에 오르는 공양미로 판매 · 제공하게 된다.

5백여 명이 참석한 이날 협약식에서 봉은사 주지 원혜 스님은 "생명의 근원인 우리의 농촌을 지켜가는 첫걸음이 모든 사찰로 확산되어 도농간 협력을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올해의 불자상' 후보 접수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사회에 회향하는 새로운 재가불자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제정한 '올해의 불자상' 후보자 공개추천을 11월 20일까지 받고 있다. 3회째인 '올해의 불자상' 후보 추천을 원하는 개인과 단체는 피추천자의 개인 이력서를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재가연대로 보내면 된다. 시상식은 27일 오후 4시.(02)2278-3417 **강유신 기자**

고3 위한 템플스테이 '눈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수능이 끝난 고3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11월 20~21일과 27~28일 고양 흥국사(02-381-7970)에서는 수험생과 수험생 부모를 대상으로 한 특별한 템플스테이가 진행된다. 수험생 대상이니 만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레크리에이션, 대학과 장래에 대한 서원문 작성, 걷기 명상을 통한 자연과 하나 되기 등의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돼 눈길을 끈다.

11월 27~28일에는 부여 한국전통문화학교 40여명이 마곡사(041-533-3521)에서 열리는 템플스테이에 참가한다. 11월 29 · 30일에는 해남 미황사(061-533-3521)에서 전남 과학고등학교 학생 98명이 참가하는 템플스테이가 마련된다. 미황사 템플스테이는 다도와 스님과의 대화, 참선, 사찰 관람 등의 당일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강지연 기자**

대한민국 유일의 웰빙건강학부 신설
(한방건강학과, 요가 · 명상학과)





특전
- 학교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정규 4년제 대학교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가능
- 일반대학교의 1/3 수준의 저렴한 등록금과 다양한 장학혜택
- 각 지역별 교육센터를 통한 학습활동 지원 및 졸업 후 대학원 진학가능
- 학자금 융자 가능 및 연말정산시 교육비 소득공제 혜택
- 재학생 병역연기 혜택

"e-시대의 전문인력을 키운다"
2005학년도 신입생/편입생 모집

● 모집학과

학 부	모 집 학 과	신입생	편입생
웰빙건강학부	한방건강학과	○	
	요가 · 명상학과	○	○
문화예술학부	전통타악연희학과	○	
	한국복식과학학과	○	○
	차(茶)문화경영학과	○	○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	○
교육학부	유아교육학과		○
공무원행정학부	경찰학과	○	○
	공무원행정학과	○	
경영학부	부동산세무경영학과	○	○
	중국비즈니스학과		○
게임학부	게임기획학과	○	○
	게임제작학과	○	○
컴퓨터정보학부	컴퓨터정보학과	○	

● 전형일정

전 형	구 분	일 시
특별전형	접 수 기 간	2004. 12. 06(월) ~ 12. 15(수)
	합 격 자 발 표	2004. 12. 17(금)

※ 특별전형 전형자에 한하여 입학금(10만원) 면제혜택을 드립니다.

● 지원자격
① 신입생 : 고등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
② 편입생 : 2학년 편입 – 1학년과정(35학점) 이상 수료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학년 편입 – 2학년과정(70학점) 이상 수료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공익근무요원 입학가능

입학상담 080-285-2854 / www.wdu.ac.kr
>> 자세한 입학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원광학원 원광디지털대학교 WONKWANG DIGITAL UNIVERSITY

인터넷 검색창에서 원광디지털대학교 검색 후 처 보세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움직임 주목

정당·시민단체 개정안 마련 고심 … 불교계도 적극 참여해야

‘환경파괴 면죄부’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하 환경영향평가법)개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불교계도 법개정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왜 개정해야 하나

환경영향평가법은 대형 사업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파괴와 영향을 미리 분석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금의 환경영향평가는 규제보다 피해최소화에 무게를 두고 있어 형식화되기 쉽고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함에 따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이 개입하기 어렵고 부실평가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북한산 문제의 경우 터널 입 · 출구 부근에 법정보호종인 고란초 등이 서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보호대책이 전혀 없었다. 또 교통영향평가 승인처분은 위법으로 드러났으며, 환경영향평가 또한 협의절차가 무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천성산 문제 역시 유효기간 7년이 지나도록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30여종의 보호동식물이 누락됐으며 22개의 늪과 12개의 계곡, 39개의 저수지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다. 더 중요한 것은 두 사안에서 ‘수행환경 보호’대책이 전무했다는 것이다.

녹색연합 서재철 자연생태국장은 “지금까지의 환경영향평가법은 난개발 사업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존재한 수단에 불과했다”며 “이제부터라도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법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환경부는 올해 7월 환경영향평가법을 부분 개정했다. 관련서류 공개를 의무화하고 중요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중점평가제를 도입하며 설계업자가 설계와 평가를 동시에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개정안이 평가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았고 구속력을 갖는 강제조항을 두지 않는 등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새 개정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단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을 승인기관장 및 전문가에게 통보하는 것 외에 지역 주민도 그 협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평가내용이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 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평가 내용이 부실하거나 누락된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응할 수 없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평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에 반드시 재평가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과 관련해 단 의원은 “대형개발사업이 추진될 때부터 철저하게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불교계 대책

북한산과 천성산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불교계는 향후 대형개발사업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적지 않은 사찰이 아직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은 산중에 있기 때문이다.

불교환경전문가들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과거와 같은 사후약방문식 대책은 무의미하다”며 “사전에 법과 제도를 검토하고 이에 따라 각종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환경영향평가법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지율 스님도 “수많은 폐해를 낳아 온 환경영향평가법은 하루 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신계사 불사 동참자



월서 스님



종상 스님

금강산 신계사 복원을 위해 조계종 호계원장 월서 스님과 신계사복원추진위원장 종상 스님(불국사 주지), 도공(법주사 주지), 영조(송광사 주지), 마근(신흥사 주지), 철안(봉선사 주지), 명성(전국비구니회장), 前 포교원장 정련, 문화부장 성정, 재무부장 보정, 사서실장 심경, 교육원 교육부장 현관 스님 등이 신계사 추진위에 금일봉을 전달했다.

이밖에 △민추본 상임집행위원장 학담 △남북교류위원장 도각 △사무처장 법경 △총무원 · 교육원 · 포교원 국장 스님 일동 △서울 금강암 호관 △의정부 석림사 보각 △공주 미타암 운달 △평창 육수암 뇌묵 △울산 석남사 영운 △제주도 보덕사 혜전 △제주 월정사 지문 △군위 법주사 육문 △대전 청화사 효경 △서울 범융사 승혜 △부산 관음정사 법공 △안동 연미사 지일 △횡성 보광사 계호 △서울 청룡사 진우 △수원 용화사 성주 △괴산 각연사 종성 △수도암 성덕 스님 등이 성금을 전달했다.

(11월 10일 현재)

전등사 ‘숲길 가꾸기’ 나섰다

강화 삼랑성 역사문화조직위

경기도 강화 삼랑성 역사문화축제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계성 스님 · 지용택, 이하 역사문화조직위)가 전등사 주변 숲길 가꾸기에 나섰다. 역사문화조직위는 ‘(사)생명의 숲’에서 공모한 ‘숲길 가꾸기’ 사업에 전등사 동문과 대웅전, 남문을 잇는 숲길 조성 계획서를 제출, 지난 10월 지원단체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5월까지 5,000만원의 녹색자금을 지원받아 숲길 가꾸기 프로그램을 실행할 예정이다.

전등사 ‘숲길가꾸기’를 계획하면서 인근 숲의 실태 파악에 주력해온 역사문화주직위는 우선 훼손된 주변 환경 개선사업으로 침식 토사 복구, 잡목 간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숲 방문자들의 안전을 위해 계단과 같은 안전시설 설치 작업도 병행한다.

역사문화조직위 궁인창 기획국장은 “전등사 방문객들이 숲을 제대로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장수 죽림정사, 일체영가 천도



국운융성과 남북통일을 발원하는 천도법회가 장수 죽림정사에서 봉행됐다(사진).

죽림정사는 11월 7일 조실 도문 스님과 세계청소년 대각사상 교육교화 후원회 최명진 회장, 백용성조사 유훈실현후원회 한명옥 회장을 비롯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체영가 천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도문 스님은 “모든 중생들이 성불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남북의 평화와 통일 기원하고 국운융성을 발원하자”고 법문했다. 유철주 기자

대구 보현사, 핵심교리대법회

11월 7일, 대구 반월당 보현사 법당은 250여 명의 불자들로 가득 찼다. 동화사 직할 포교당인 보현사(주지 원일)가 11월 7일부터 12월 5일까지 매주 일요일 연기법, 삼법인, 사성제 등을 법문하는 ‘불교핵심교리대법회’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법회에서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중앙승가대학교수 미산 스님이 12연기법을 중심으로 2시간 여 동안 법문했다(사진).

보현사 불교핵심교리대법회는 11월 14일 미산 스님의 12처 18계의 인과관계를 설하는 법문에 이어 21일과 28일은 인도 뿌나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한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재연 스님이 삼법인과 사성제, 팔정도를 강의한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광주 용진사 개원법회 · 경로잔치

광주 용진사(주지 정안)가 11월 3일 개원했다. 개원법회에는 혜향(광주 사암련 회장), 법천(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장), 혜령(전통불교영산회장) 스님 등 신도, 지역주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아미타불 및 탱화 점안에 이어 주지 정안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광산구는 한창 개발 중인 신도시로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이 필요로 하는 지역이다”며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사찰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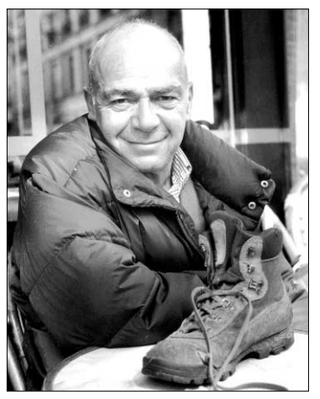
광주사암련 회장 혜향 스님도 “포교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필요한 수행도량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이날 용진사는 개원을 기념해 지역주민들을 초청해 ‘주민위한 경로잔치’를 펼쳤다. 이준엽 기자

일문일답

“걸으면서 나를 성찰하고 인생 설계할 수 있었다”

‘나는 걷는다’ 저자 베르나르 올리비에



베르나르 올리비에는 걷기를 통한 자아 찾기와 성찰을 강조했다.

1999년 터키 이스탄불을 시작으로 중국 시안(西安)까지 실크로드를 따라 1만2천㎞를 걸어서 여행한 베르나르 올리비에 씨(66)가 자신의 경험을 엮은 도보여행기 <나는 걷는다> 홍보차 11월 4~10일 한국을 방문했다. <나는 걷는다>는 프랑스에서 2000부터 2003년까지 발간돼 20만 부 이상이 팔리는 등 베스트셀러가 됐으며, 5개 국어로 번역돼 전 세계에 출간됐다.

올리비에 씨와 가진 일문일답.

▲예순의 나이에 도보여행을 하게 된 계기는?

–본격적인 실크로드 대장정을 떠나기 석달 전에 파리에서부터 스페인의 데 콤포스텔라까지 3개월간 2325km를 도보여행 했다. 나는 걸으면서 내 존재이유를 찾으려 했었고, 두 가지를 결심하게 됐다. 하나는 내가 살면서 누렸던 행운에 대한 감사와 환원의 의미로 여생을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2000년 보호시설에 수감된 비행 청소년의 교화를 위한 쇠이유(seuil, 문턱이라는 뜻의 프랑스 어이자 ‘구두밑창’을 뜻하는 라틴어) 협회를 창설하는 계기가 됐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걷겠다는 결심이었다. 이것이 실크로드 대장정에 오르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길을 따라가며 내 자신을 성찰하고 싶었다.

▲걷는 것이 자기성찰에 적합한가?

–모든 종교는 성지 순례지를 갖고 있으며 종교에 귀의한 사람들은 순례길에 오른다. 이것은 걷기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자기를 성찰할 기회를 주고 철학적 생각을 하도록 돕는 기능이 있다는 뜻이다. 자기를 성찰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여행할 것을 권한다. 처음에는 지루하게 느껴지겠지만, 혼자 여행하는 동안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어려운 난관이 부딪칠 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아를 단련하게 된다.

▲걷기의 매력은?

–걷는 동안 우리 몸은 엔돌핀을 생산해낸다. 인간은 차를 타도록 만들어진 생물이 아니라 걷도록 만들어져 있는 생물이다. 따라서 걷는 동안 우리 몸은 모든 감각이 깨어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한 통합을 이루게 된다. 걷기의 또 다른 미덕은 타인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대장정을 끝내고 얻은 것은?

–친구들을 얻었다. 그리고 내가 남은 여생동안 무엇을 하고 살지 그 방향을 정하게 됐다. 처음 여행을 시작할 때는 내 자신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만 몰두했다. 그러나 길을 걸으며 사람들을 만나는 동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온 게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됐다. 여행을 끝내고 나자, 자연스럽게 타인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걷기를 통해 자기자신을 성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해 줄 말은?

–도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신이 여행하는 중에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목표를 정해야 한다. 목표가 없으면 도보여행은 단순히 도피를 위해 떠나는 방랑여행이 될 뿐이다. 인간은 자신의 인생을 적절히 조절하고 자신의 존재이유를 알게 될 때 더 큰 행복을 느낀다. 내게 물질적 풍요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다만 사회가 용인한 테두리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면서 살 수 있고 내 곁에 친구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올리비에 씨는 쇠이유 협회를 통해 비행 청소년들이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나는 걷는다> 인세를 모두 협회에 기부하고 있다는 그는 “현 사회는 앞만 보고 빨리빨리 달려가는 광기에 물들어 있다. 그러나 내게 지혜는 ‘느림’을 행함으로써 비로소 얻어졌다”고 말한다. 이은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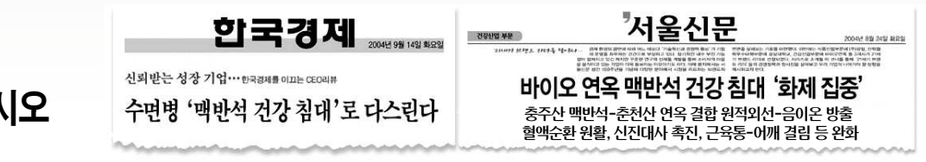
바이오연옥® 기능성돌침대

기능성 돌침대 – 돌침대의 생명은 석판!!

후레임(침대틀)도 고급자재로 멋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과의 직결은 오직 석판일뿐입니다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후회없는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품질 검증 보증서 아주대학교 기계 및 산업공학부 회전전자파(氣)측정 연구팀 지도교수 오흥국 박사



※ 게르마늄 : 인체 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노화를 지연시키고 생체조직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한다.

바이오연옥은 이미 아주대 기계 및 산업공학부 회전전자파 측정 연구팀의 ‘수맥인체 장애 방지시험’.‘전자파 인체 장애방지 시험’, ‘회전전자파 측정시험’,‘경락순환 구동력 측정 시험’ 및 ‘신진대사 촉진시험’등 수많은 품질검증과 요업(세라믹)기술원장 시험성적서 게르마늄 255ppm으로 이미 그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바이오연옥맥반석 침대’와 관련해 경상대 자연과학대학 백우현 교수는 “바이오 연옥 맥반석 건강 침대에서 내뿜는 고효율 원적외선은 인체의 피로회복과 자연 치유력 향상을 지녔다”며 “원적외선



의 온열효과를 지혜롭게 이용해 온 우리 선조들의 온돌문화에 바탕을 둔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평가했다. 또 충북대 한충수 교수 역시 “이론과 실험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상업적으로만 판매되는 제품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 반면 이 제품은 인체의 신진대사와 식물 생장 및 저장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서울신문 기사 일부

「기존 돌침대 ‘석판’만 교환 가능합니다」



A/S : 080)445-0005
www.바이오연옥.com

전국대리점 본사 031)444-0005 서울 02)777-0105 부산 051)552-1959 청주 043)257-8929 속초 033)635-8323 강릉 033)646-3656 분당오리역(한국까르프) 2층 031)728-6250



부처님은 웰빙을 설했다

지령 500호

유비쿼터스 웰빙 (Ubiquitous Well-being)

광화문 지하철 역 입구, 정보통신부건물에 '유비쿼터스 드림관'이라는 전시장이 있다.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u-Korea(유비쿼터스 코리아) 정책' 을 홍보, 교육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수십억의 예산이 들었다고 한다. 어렵게 시간을 맞춰 들어가 보았지만, 굳이 '드림' 이라고 할 만한 인상을 받지는 못했다.

유비쿼터스 드림, 외래어나 신조어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알 듯 말 듯한 말들 가운데 하나인 것 같다. 유비쿼터스라는 말 자체도 아리송한데다, 이런 표현들에는 단순한 말 이상의 의미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광고가 있다.

"엄마와 딸이 외식을 나간다. 고급스런 양식당이다. 서양인 요리사가 접시에 불을 붙인다. 멋진 모습에 박수를 치다가 엄마는 문득, 가스불을 켜 놓고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낸다. '걱정마세요', 딸은 휴대전화로 홈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가스를 차단시킨다. 걱정은 사라지고 아름다운 순간은 이어진다."

삶의 여유 그리고 편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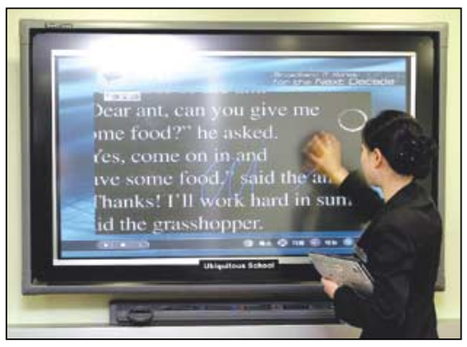
우연히 어깨 너머로 보게 되었던 광고였지만, 광고를 보는 순간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우리 사회 안에서 함축하고 있던 의미가 선명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엄마의 생일날, 고급 식당에 가서, 서양 요리사의 서빙을 받으면서 외식 한 번 할 수 있는 여유. 쾌적한 환경에서 잠시라도 가족간의 다정한 순간을 즐길 수 있는 여유. 그 광고는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의 모습을 그려 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여유의 바탕에 유비쿼터스 테크놀로지가 놓여 있었다.

근년에 미국에 다음과 같은 광고가 눈길을 끈 적이 있었다.

"한 사나이가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간다. 단정하지 못한 차림새에 두리번거리는 꼴이 범죄자를 연상케 한다. 그는 이상할 정도로 밝고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진열대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뽑아 코트 품 안에 쑤셔 넣는다. 가슴이 두툼해진 사나이는 입구를 향해 종종걸음을 친다. '선생님', 건장하게 생긴 경비원이 사나이를 불러 세운다. 사나이는 체념한 듯, 한숨을 몰아 쉰다. '영수증 가져 가셔야죠.' 돌아 보는 사나이에게 경비원이 영수증을 건네주고, 둘은 마주 보며 밝게 웃는다."

유비쿼터스는 미래의 컴퓨터 환경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한다. 나라의 정책이 '디지털 혁명' 이라는 표현을 거침없이 쓰는 시대가 되었지만, 가전제품이 가진 기능들도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현실의 테크놀로지도 모르는데, 미래의 테크놀로지라면 당연히 오리무중일 수밖에 없다. 그래도 저 슈퍼마켓의 장면 정도라면 문외한들에게라도 뭔가 손에 잡힐 듯한 설명을 해 주는 것 같다. 물건을 집어 드는 순간, 그리고 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 계산도 지불도 한꺼번에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물건과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들이 있고, 그러한 연결들을 유비쿼터스와 같은 테크놀로지들이 매개하고 있다.

슈퍼마켓의 광고가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를 쉽게 설명해 주듯이, 가스불의 광고도 비슷한 '연결' 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결이나, 네크워크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슈퍼마켓의 광고가 가스불의 광고 보다는 몇 수는 위라는 생각은 든다. 반면에 가스불의 광고에는 다른 측면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또 다른 유행어, 웰빙에 대한 메시지이다. 유비쿼터스 테크놀로지를 삶의 가치로 이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슈퍼마켓의 광고에도 그런 가치는 존재한다. 하지만, 가스불의 가치는 훨씬 직설적이고 강렬하다.



정보통신부 유비쿼터스 드림관에서 한 직원이 '전자칠판' 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가스불이나 슈퍼마켓 같은 이미지들은 그저 한두 가지 비유를 담고 있을 뿐이다. 사실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리고 하나의 비유에는 한 가지의 메시지만을 담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스불의 광고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엄마와 딸이 누리는 여유 있는 삶' 정도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이미지들 사이에는 메시지와는 관계없는 서로 다른 의미들이 얽혀 들 수 있다. 그런 의미들에 대해 서로 다른 가치판단이 개입할 수도 있다. 대낮에, 엄마와 딸이라는 두 여성이, 화려한 식당에서 호젓하게 외식을 해야 하는 배경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들의 생활수준은, 신흥 상류사회를 상징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엄마는 낮에도 음식을 불에 올려놓아야 하는, 전업 주부로 보인다. 남자들은 일터에 가 있겠지. 이런 배경이 암시하는 웰빙의 가치들은, '엄마와 딸이 함께 누려야 할 행복한 순간' 이라는 다른 가치와 상충할 수도 있다. 유비쿼터스 드림관이 추구하는 '드림' 도 가스불 광고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웰빙의 드림을 이야기하고, 이를 가능하게 해 줄 '동력으로서의 유비쿼터스 테크놀로지' 를 주장하지만, 아직은 뭔가 어설퍼 보인다. 테크놀로지와 웰빙의 가치가 따로 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말 가운데, 웰빙처럼 이해하기 힘든 말도 없어 보인다. 웰빙이라면, 그냥 잘 산다는 말일 뿐일텐데, 사람들은 이 말을 통해 특정한 행위나 특정한 물건들을 연상한다. 웰빙의 바람은 불교계에도 예외가 없어 보이는데, 예를 들어 웰빙과 녹차를 연결시키는 일 같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차 문화에는 불교의 색채가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녹차가 갖는 이미지 안에는 불교적인 이미지들이 자연스럽게 담긴다. 녹차가 웰빙의 이미지들을 가질 수 있다면, 따라서, 이런 이미지들도 또 자연스럽게 불교가 가진 이미지들과 겹쳐 질 수 있다.

사람과 사람 · 사물과 사람 … 정보 · 의사소통 가능
지능화된 네트워크 환경 아래 개인 삶의 가치 추구
아직은 '따로' 인 테크놀로지와 웰빙 … 지혜 접목 필요

녹차를 매개로한 웰빙의 이미지나 불교의 이미지들 사이에도 모순들이 존재한다. 가치들이 상충한다. 예를 들어, 절에서 의식을 시작하기에 앞서 맑은 물 한 그릇을 불단 위에 올린다. 차가 아니라, 맹물이다. 그리고는 맹물을 올리지만, 감로차로 아시고 드시라는 게송을 읊는다. 간편하다. 하지만, 의식을 마치고 돌아 나와서는 값비싼 차를 즐기는 경우들도 있다. 이미지나 가치들이 얽히는 순간이다. 웰빙의 문화나 불교적인 가치에 대한 관심은 늘어 가는지 몰라도, 맹물과 감로차 사이의 간격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걱정이 든다.

유비쿼터스 웰빙도 마찬가지다. 사실 유비쿼터스의 이미지는 불교에게는 매우 익숙한 것들이다. 유비쿼터스가 연결이나 네트워크를 암시하는 말인 것처럼, 불교는 연기법이라는, 연결의 가르침, 네트워크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억지를 좀 쓰자면, 유비쿼터스의 환경은 그대로가 불국토가 그리는 형상이라고까지 단언을 할 수도 있다.

이미 갖춰진 연기의 네트워크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 불법승'

예경문의 한 구절이다. 여기서 '광명운대' 는 '빛으로 짜여진, 구름 같은 누대' 라는 말이다. 부처님이 미간의 힌 터럭으로부터 빛을 놓아서 광명운대를 나투니, 다시 그 광명운대 가운데서 부처님들이 빛을 놓아 시방의 보살들을 비추었다고 한다. <화엄경>에 나오는 구절이다. 주변법계, 법계에 주변하다는 말은, 말의 뜻대로만 해석하자면 그대로 유비쿼터스라는 의미가 된다. '언제 어디에나 있다' 라는 뜻이다. 그렇게 언제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까닭은 빛으로 짜여진 관계의 네트워크 안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테크놀로지를 제쳐 놓고, 비유나 상징으로만 따지자면, 가스 불이나 슈퍼마켓은 오히려 시시해 보인다. 경전 안에는 이와 비슷한 비유나 상징들이 넘쳐난다. 모든 존재, 모든 생명체들이 이미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연기의 네트워크, 관계의 네트워크의 일부일 뿐이라는 비유들이다.

그래서, 저 예경문은 '자타일시 성불도' 라는 서원으로 마감을 한다. 우리나라의 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의식은 그렇게 마무리된다. 생일불공이던, 입시불공이던, 사업성취를 바라던, 학업성취를 기원하던, 의식의 끝은 오직 이것일 뿐이다. 차 한 잔, 사실은 맹물 한 그릇을 올리는 까닭도 이것이다. 불교적인 웰빙, 그 마지막 목적지,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유비쿼터스의 웰빙을 짐작하게 해 주는 물 한 그릇이다.

유비쿼터스와 웰빙, 오늘의 한국을 읽는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단어들이다. 연결의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삶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이겠다. 한국에 가스 불이 있고, 미국에 슈퍼마켓이 있다면, 한국불교에는 맹물 한 그릇과 광명운대가 있다. 비슷한 일을 비슷하게 상징하는 서로 다른 이미지들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이미지들은 이미지들일 뿐이다. 이미지 한 두 개로, 세상이나 삶의 가치를 한 칼에 모두 재단해 낼 수 없다. 그렇긴 해도, 한두 가지, 그런 이미지들이 세상이나 인간을 읽는 신선한 지혜를 자극하기도 하는 것 같다. 마크 와이저도 예언했듯이,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컴퓨터만의 문제가 아니다. 컴퓨터 환경이 바로 삶의 환경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웰빙의 환경이고, 거기에는 가치들이 개입한다. 테크놀로지에도 지혜들이 필요하다는 뜻이겠다. 일테면, 맹물 한 그릇이나 광명운대의 이미지들이 자극하는 지혜 같은 것 말이다.

오윤희 / 본지 편집위원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은

1988년 미국, 제록스 파크(PARC) 연구소의 마크 와이저(Mark Weiser)가 처음으로 제안했던 새로운 개념의 컴퓨터 환경이다. 그는 미래의 이상적인 컴퓨터 환경은 컴퓨터가 삶의 환경 속으로 완전히 스며들어, 눈에 보이지도, 의식할 수도 없어야 한다고 보았다. 유비쿼터스는 어디에나 편재한다는 뜻으로, 공기와 같은, 어디에나 있는 것들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디에나 편재한다' 는 말처럼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신비적, 마술적 의미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일본의 노무라연구소에서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라는 보다 실용적인 비전을 제시했고 'e-Japan' 이라는 국가비전을 넘어 'u-Japan' 이라는 새로운 비전으로 발전을 했다. 이런 비전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의 'u-Korea' 정책이 탄생하게 되었다. 'u-Korea' 정책은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표현을 '모든 사물이 지능화되고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람, 나아가 사물과 사물 간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회'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갑신년 冬安居 결재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취운선원에서는 야산 청운큰스님의 지도 아래
참선수행 정진하실 갑신년 동안거 결재 동참 대중을 모십니다.

- **결 재 :** 불기 2548년 11월 26일(음 10월 15일)
- **해 제 :** 불기 2549년 2월 23일(음 1월 15일)
- **입방자격 :** 참선수행에 원을 세운 남녀, 누구나
- **신청기간 :** 불기 2548년 10월 부터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및 전화접수
- **접수문의 :** 취운선원 종무소 055)383-6479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96

※ 자세한 내용은 취운선원 종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재기간 매주 특별 참선 법문이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영축총림 통도사 취운선원

世界가 격찬한 聖鐘社 梵鐘의 소리와 문양!

- 해외로 수출되는 우리의 범종 -



한국 최초의 범종제작사로 5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성종사는 지난 2002년 충북 진천으로 공장을 확장 이전, 20000관까지 제작 가능한 세계 최대의 주조설비를 갖추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 최대의 범종제작사로 자리메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성종사의 명성이 國內는 물론 海外까지 알려져, 국내 업체로서는 유일하게 직접 日本, 中國, 臺灣, 싱가폴, 美國, 말레이시아 등 세계 각국으로 우리의 범종을 수출하는 등 국제시장에서도 탁월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최대인 광주 민주의 종(8150관) 제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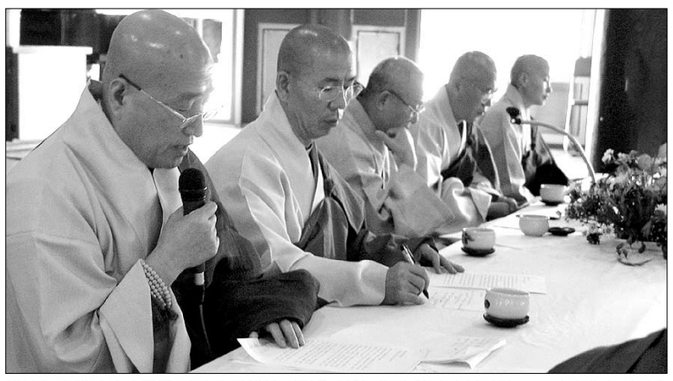
성종사 범종만이 보유하고 있는 4가지 신기술

1. 세계 유일의 밀랍주조공법 보유 업체
   지난 97년 신라의 범종주조기법인 밀랍주조공법을 독자 재현하는데 성공한 성종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밀랍주조공법으로 범종을 제작하는 회사로 세계에서 가장 표면이 깨끗하고 문양이 정교한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 세계 유일의 음향조율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최첨단 음향측정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음향 분석은 물론 음향조율기술을 통해 완성된 범종의 소리를 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세계 유일의 범종 열처리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 열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금속조직을 균일화시켜줌으로써 범종의 소리를 부드럽게 함과 동시에 수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4. 국내 최고 착색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에 흑색 페인트칠을 했던 기존의 착색방식에서 탈피, 한국 최초로 범종에 다양한 착색처리를 실시함으로써 갈색, 구리색, 녹청색, 금색 등 다양하면서 아름다운 색상의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聖鐘社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 02-733-6141 / FAX : 02-733-4840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www.sungjongsa.co.kr E-MAIL : sungjongsa@hotmail.com

해인총림 교구발전 위한 열린토론회 개최

"발전위해 고민 해봅시다"



해인총림 해인사의 종풍 진작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새 길 찾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진은 첫 토론회 발표자인 일면 법등 종림 원택 혜원 스님(왼쪽부터).

"지금의 총림은 선원 · 강원 · 율원 등 구색 갖추기에 급급한 것 같다. 화엄이나 선학 연구기관을 설립해 평준화보다 특화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종림 스님)

"해인사의 오랜 전통인 수행 중심 체제가 붕괴되고, 물질문화에 종속되어 개인주의적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인사가 자기비판을 통해 좌표설정을 새롭게 할 때 대종단 ·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다."(일면 스님)

'해인총림 및 교구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11월 7일 해인사 보경당에서 열렸다. '해인사에 바란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인총림에 대한 쓴소리와 비판이 쏟아졌다.

일면(불암사 주지), 법등(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종림(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 혜원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의 발표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주지 현응, 율주 종진, 강주 종묵 스님 등 주요소임자 스님을 비롯해 '해인총림 및 교구발전 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원택 종림 향적 스님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첫 발표에 나선 종림 스님은 총림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내부로는 승가교육의 효율성을 기하고, 외부로는 해인사 방문객에 대한 문화적 접근 강화를 주문했다. 또 불교종합교육기관으로서 총림에 대한 비판과 대안도 내놓았다. 지금의 총림은 선원 · 강원 · 율원 등 구색 뿐이라고 꼬집은 스님은 화엄이나 선학 연구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해인사 재정 문제와 관련 "자연환경, 역사적인 조형물로만 버티기보다 선 또는 대장경을 주제로 한 문화 이벤트적인 접근을 시도"하라고 주문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일면 스님은 "각방 독살이 문화 만연과 대중생활 붕괴로 수행정신이 실종되고 있다"며 "화합과 자율의 승가정신이 복원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등 스님은 고무신 한 켤레를 사도 500개를 사야하는 큰절 살림의 어려움을 소개하며 해인사의 만성 재정부족을 거론했다. 또 사찰 입장료 폐지를 대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혜원 스님은 "해인사의 특수성을 살리고 차별화된 '수행 중심도량'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선원의 차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방부자격 기준 강화, 결제 전 선지식의 제접을 반드시 거칠 것, 산철 간경 또는 간화를 위한 공간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율주 종진 스님은 총평을 통해 "방법보다는 어떻게 결실을 맺을 것인가가 더 걱정"이라며 "해인사 대중들이 각자 역할을 다하다면 총림의 발전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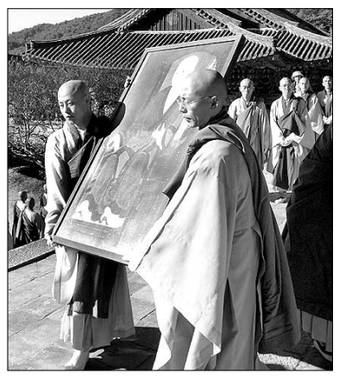
"구색 갖추기·평준화 탈피로 특화하자"
좌표설정 새롭게 할 때 영향력 확대될 것

2차 토론회는 11월 28일 오후 1시 보경당에서 '해인사 수행풍토 어떻게 진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3차는 12월 12일에 '사회문화포교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해, 4차는 12월 26일, '불사(동판, 복지, 문화재보존, 환경)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각각 열린다. 의견접수 (055)934-3112, haein3111@hanmail.net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16국사에 차 올리는 헌공다례 재현

송광사 불교문화축제 성황
지눌스님 유품 등 유물전 눈길



16국사 진영사진이운으로 시작된 문화마당은 영산재, 헌공다례, 음악회 등으로 진행됐다.

승보종찰 송광사의 전통의식을 시연하는 제 1회 송광사 불교문화축제가 11월 6~7일 양일간 송광사 일원에서 봉행됐다.

송광사와 순천시가 공동 주최한 이번 불교문화축제에서는 사부대중과 일반인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문화마당, 전시회, 공연마당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보조국사 삼존불감 및 16국사 진영 사진 이운으로 시작된 문화마당에서 송광사 대중 스님들은 국태민안 기원 영산재와 16국사 전에 차를 올리는 헌공다례를 재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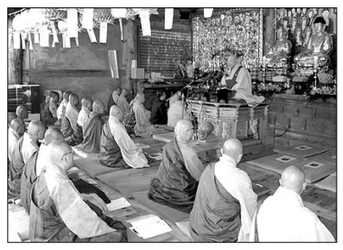
성보박물관에서는 보조국사 지눌 스님의 유품인 '목조삼존불감(국보 42호)'과 목욕신발인 '목욕혜' 등 유물이 전시됐다.

또한 부도전 앞 진입로에는 송광사의 근 · 현대를 살펴볼 수 있는 송광사 역대사진전이, 사자루에서는 전통등연구회의 '한국의 전통등' 60여점이 선보였다.

한편 송광사는 불교문화축제를 기념해 11월 6일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에는 안치환, 김원중 등 가수와 창작국악실내악단 도드리의 공연이 펼쳐졌다.

순천=이준엽 기자

'효는 바른 사회의 초석'
지암정사 1주년 기념법회



지암 이종욱 스님의 유지를 이어받아 건립된 평창 지암정사(주지 성담)가 11월 7일 개원 1주년기념법회(사진)를 봉행했다. (재)지암불교문화재단 · 불교청년문화원 개원 기념식과 함께 한 이날 행사에는 천운(대흥사 조실), 법장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 종욱 스님의 뜻을 기렸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사찰 정보화교육 등 청년문화운동을 선도해 불교문화 창달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고 축사했다.

회주 천운 스님은 "부모와 스승을 공경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선행의 기초를 효에다 두고 지암불교문화재단의 이념을 지켜나가자"고 법문했다.

지암정사 주지 성담 스님은 "지암 큰스님의 선풍을 알려 한국 불교의 새 장을 열것"이라고 말했다.

평창=김강진 기자

자비석림회, 어르신 경로잔치

"할머니 천천히 많이 드세요."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모처럼 밖에 나오니 바람도 쐬고 너무 좋은 걸."

11월 10일, 대구시 북구 종합 유통단지 내 한 공동 어시장이 50여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로 가득 찼다.

대구 사찰문화보존연구원(원장 효신)의 봉사신행단체 자비석림회 곽태익 회장(44)은 11월 10일 대구시내 화성 양로원과 치매 노인 전문 요양시설인 여래원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점심공양을 대접했다.

이날 하루 식당에는 일체 손님을 받지 않았고, 자비석림회 회원 10여명이 동참해 어르신들의 공양 수발을 들었다. 배지선 기자

술정리 동탑제 지역축제로

제 7회 창녕 술정리 동탑제가 11월 7일 술정리 동탑 앞에서 봉행됐다.

술정리 동탑 지킴이 혜일 스님의 동탑 보호 노력으로 시작된 동탑제는 마을 주민을 비롯 전국 각지에서 참여하는 마을 축제가 됐다. 법문, 창녕 여고의 사물놀이, 부산 관음사 합창단의 음성공양, 탑돌이 등의 순서로 진행된 동탑제는 올해 처음으로 촛불을 들고 탑돌이를 하는 전야제도 가졌다.

혜일 스님은 "지금 한창 주변 정비사업과 발굴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 탑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시민불교문화상 후보 추천

마창불교연합회(회장 원정)는 제 14회 시민불교문화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문학상, 예술상, 행원상 등 시민불교문화상 후보자는 해당 분야 10년 이상의 전문활동 경력을 가진 문화예술인, 언론인, 사회봉사자 등으로 당해 연도의 활동이 부각되는 자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추천 대상자의 종교는 무관하며 추천 마감은 11월 20일까지. 시상식은 12월 9일 마산 사보이호텔에서 열린다. (055)222-1393 천미희 기자

'갓바위 치매센터 열렸다'



감천복지재단이 중증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문을 연 갓바위 치매센터.

감천복지재단, 65세이상 기초생활자 무료

대구 불교계 사회복지법인 감천복지재단(이사장 오정)이 11월 10일 대구 팔공산 갓바위 인근에 '갓바위 치매센터'를 개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위치한 '갓바위 치매센터'는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모시는 무료 노인요양원이다.

공사비 26억원을 투입해 2003년 12월에 착공하여 지난 10월 29일에 준공했다. 연건평 682평(2,209.97㎡)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지어진 '갓바위 치매센터'는 휴게실, 물리치료실, 기능회복실, 강당 등 현대식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다. 규모나 시설면에서 자연과 함께 하는 최신식 노인전문 요양원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의 새로운 모형으로 자리 잡아가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감천복지재단은 감천사 오정 스님이 보리수마을을 근간으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출발한 사회복지법인으로 모자일시보호시설 '자비의쉼터', 아동양육시설 '보리수마을', 재가복지시설 '감천가정봉사원파견센터', 위탁 운영중인 영 · 유아보육시설 '국민연금어린이집', 노인요양원 '붓다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배지선 기자

법왕사, 33인 큰스님 초청 설법

대구 수성구 파동 법왕사(주지 실상)가 제 13회 백고좌법회에 이어 다시 33인 큰스님 초청 법화경 대설법회를 봉행한다.

11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 오전 11시 30분에 봉행되는 이번 법회는 前 용주사 주지 정무 스님을 비롯 무설정사 조실 혜경 스님, 직지사 주지 자광 스님, 미국 버클리 육조사선원장 현웅 스님, 서울 강남포교원장 성열 스님, 부산 안양사 조실 성공 스님 등이 법화경 대의를 시작으로 서품, 방편품, 비유품 등을 법문한다.

한편 법왕사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밤 9시부터 새벽까지 3천배 철야정진기도법회도 봉행한다. (053) 766-3747 배지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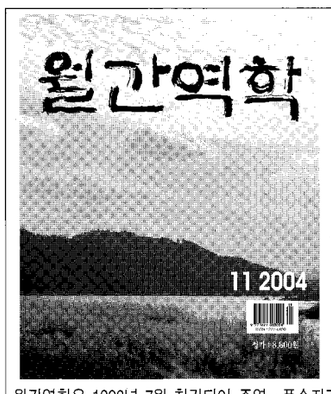
익명 비구니 스님
동국대 발전기금 1억 기탁

이름을 밝히지 않은 비구니 스님이 동국대학교 발전 기금으로 1억원을 보시해 화제가 되고 있다.

동국대학교(총장 홍기삼) 경주캠퍼스에 따르면 부산지역 사찰에 있다는 사실만 밝힌 한 비구니 스님이 평생 모은 1억원을 불교정신을 실현하는 동국대학교 발전을 위해 써 달라며 대리인을 통해 전달해 왔다.

동국대학교는 이 기부금을 100주년 기념관으로 건립될 경주캠퍼스 본관 건립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월간역학은 1990년 7월 창간되어 주역 • 풍수지리 • 사주명리 • 관상학과 유 • 불 • 선의 심오한 사상을 알기 쉽게 실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배포하는 국내 유일의 동양학 전문지로 99년 11월 1일 문화관광부 장관표창을 수상한 훌륭한 잡지 입니다.

월간역학에서는 역학전문학원인 **월간역학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학원 졸업생에 대한 혜택-

- 수료증 및 자격증 수여
- 재택 상담사로 100% 취업 보장
- 인터넷(www.kbs.cc) 수강자도 동일한 혜택 전국어디서나 저렴한 비용 (3개월분 10만원)

역학 수강생 모집

과 목: 사주학, 관상학, 수상학
- 사 주: 월간역학 주필 이재운 박사 직강 〈성공하는 운 실패하는 운〉 저자 기초부터 실전까지 완벽한 지도. 4개월 완성. 11월 22일 개강. 주 2회(월 · 목 오후 5시 30분)
- 관상, 수상: 화요일 오후5시.

위치:동대문운동장역 1번 출구. 경동교회 뒷편

명당탐지기 관룡자!!

사람마다 학설이 다르니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는
풍수지리...
이젠 당신 손으로 확신 하세요.

관룡자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풍수지리서인 〈금낭경(錦囊經)〉에 의하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중국의 황실에서 궁궐터를 잡거나 황제의 묘터를 잡을 때, 기존의 터를 감정할 때 은밀히 사용되던 옥척(玉尺)이 있었다고 합니다. 1990년 7월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고 있는 한국의 진산실업(주)에서 이 옥척을 현대 과학적 형태로 개발 한 것이 관룡자입니다. 조계사, 해인사, 수덕사, 상원사, 월정사 등 오랫동안 번성해오는 사찰과 서울 명동성당, 영락교회, 순복음교회, 천도교당 등 번성하는 종교단체의 건물, 세종대왕릉, 남연군 묘, 이미 명당으로 알려진 여러 문중의 묘, 일본 동경의 황거(皇居)와 오사카 성, 북경의 자금성을 비롯한 황제들의 릉, 대만의 중정기념당(장개석 동상) 등 세계적인 유적과 시설물에서는 틀림없이 관룡자가 작동됩니다. 또한 아직 찾아내지 못한 명당자리도 국내에는 많습니다.

저희는 관룡자가 불티나게 팔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관룡자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분들 가운데 몇 분을 제외하고는 친구나 친지에게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이 기구를 소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 분들의 심성이 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훌륭한 것은 자신만이 소유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므로 '터(명당)에 대한 욕심에는 형제도 없다'는 속설이 증명되는 것이지요.

누가 어떻게 사용하나?

주택이나 아파트, 빌딩, 사찰, 교회 등 건물 신축이나 기존 건물의 터를 감정할 때, 산소나 납골당, 공원묘지의 터를 잡거나 기존의 자리를 감정할 때 사용합니다. 이때 명당에서만 발산되는 특별한 지기(地氣)에 반응하여 지기가 흐르는 명당혈(穴)의 방향을 가리키므로 터를 잡는 것은 물론, 건물이나 산소의 좌향(방향) 까지 잡을 수 있으며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내의 교수, 사업가, 전문 경영인, 법률가, 풍수전문가 등 500여 명이 활용하고 있는 제품이며, 풍수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장면이 TV에 여러 차례 방영되기도 하였습니다.

관룡자는 88만 원이지만 지금 구입하시는 분들께는 **80만 원으로 할인해** 드리고 관룡자 휴대용 주머니+월간역학 1년분+수맥탐지기 1세트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구입방법 : **우리은행: 064-301374-13-001 예금주: 진산실업(주)**로 80만 원 입금하신 후 전화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관룡자와 수맥탐지봉은 자세한 사용설명서와 함께 즉시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리며, 앞으로 1 년간 월간역학을 우송해드립니다.
- 신용카드 소지하신 분 12 개월 분할가능. 기업체에서 구입시 세금 계산서 발행.
- 월간역학 1 년분 구독료는 105,600 원이지만 지금 신청하시면 9만 원으로 할인+수맥탐지봉 1세트 무료 증정
- 월간역학은 지난호도 모두 정가 판매합니다만, 지금 신청하시면 과월호 12 권을 선착순 100 분에 한하여 7만 5천 원에 드립니다. ('99년1월호~2003년 12월호까지)
- 수제품 황금 18k 헤드 관룡자 주문제작 · 육효용 수제품 서죽과 산목셋트 판매

월간역학 (02)2264-0258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호 청옥빌라트 101호

www. kbs. cc

당신의 궁금한 모든 것!
월간역학 필진 · 월간역학교육원 교수들과
직접 상담하세요.060)800-2424

이 름	통화번호	이 름	통화번호	이 름	통화번호
이재운주필	02	박일봉원장	09	김옥주원장	18
박인산원장	03	김애영원장	11	최정미원장	19
전종효원장	04	마정만원장	12	전주범원장	21
홍진보원장	05	이정호원장	13	김영순원장	22
신갑용원장	06	경태우원장	15	김순양원장	23
백명길원장	07	조성애원장	16		
김태현원장	08	김정석원장	17		

한 마디로 격이 다릅니다!

월간역학에는 어중이 떠중이 역술인이나 헛소리하는 무당이 없습니다. 역술인들을 교육하는 교수 · 필진등 학계의 권위자들이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정확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전국 시외전화 요금 없이 3분간 무료통화. 이후 30 초당 900 원. 15 분에 1사람 상담하면 2만1천6백 원, 30 분에 3 사람 상담하면 4만 8천 6백 원이므로 역술원에 가시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편리하며 정확합니다. 볼펜신고 (02) 2264-0258

사찰이 있어 지역이 발전

경남 거창 · 합천

‘큰 사찰 하나만 있어도 주위가 확 달라진다.’ 단순한 기도 공간에서 복지의 중심, 개인의 행복을 책임지는 공간으로 변모된 사찰은 지역의 변화를 선도하며 시대를 한걸음 앞서 나가고 있다.

불교가 있어 개인의 삶이 행복해지고, 사찰이 있어 지역이 발전한다는 등식을 성립시키기 위한 사찰들의 노력은 거창과 합천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해인총림 발전과 교구발전을 위한 토론회’라는 고민과 연구의 자리까지 마련해 시도되고 있는 해인사 변화의 바람과 비구니 스님들의 참신한 사고와 실천이 변화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거창 불교의 변화는 한국불교의 밝은 미래를 내다보게 했다.


군장병들을 위한 법회를 열고 있는 거창 심우사에 마련된 휴식공간에서 장병들이 법회 후 인터넷을 즐기고 있다.

거창

크게 일어날 밝은 곳, 매우 넓은 들, 넓은 벌판, 즉 넓고 큰 밝은 들이란 뜻에서 거열(居烈), 거타(居陀), 아림(娥林)으로 불리어 온 거창. 거창엔 아름다운 고찰이 많다.

덕유산, 가야산, 지리산 3대 국립공원의 중심지인 거창은 지리적 특성에 걸맞게 아름다운 산자락마다 절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원효, 의상 대사가 창건한 절이 곳곳에서 불법을 전하고 있는 거창은 시대를 반영하는 불교를 가꾸기 위한 ‘씨 뿌리기’에 한창이다. 아직 결실을 맺기엔 이른 시점이지만 거창 지역 사찰들의 내실을 다져온 포교역량이 조금씩 발휘되고 있다.

거창 불교의 중심은 해인사 거창포교당인 심우사(주지 심우). 거창읍 중심에 위치한 심우사는 1935년 창건된 포교도량으로 포교당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 언제나 열려 있는 기도공간이자 수행공간이 되어온 심우사는 불교대학을 개설해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다. 첫 수강생이 150명을 넘어설 정도.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동문들을 중심으로 거창 불교를 꾸려가는 일꾼들이 대거 배출되기 시작했고 거창 불교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학생들과 지역민들의 쉼터가 되고 있는 심우사 휴식 공간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명소. 헬스기구, 포켓볼 당구대, 탁구대를 갖추고 개방된 이곳은 자연스럽게 포교 공간이 됐다.

특히 교사들이 지도하고 있는 초 · 중 · 고등학생을 위한 공부방은 지역 학생들이 서로 참여하려고 할 정도로 청소년들의 학업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컴퓨터 10여 대를 갖춘 컴퓨터실도 PC방으로 몰리는 청소년들의 발걸음을 사찰로 향하게 하며 인기 만점이다.

군부대 포교, 경찰서 포교도 도맡고 있다. 조그만 법당만을 갖추고 제대로 된 법회조차 없던 군부대 장병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마다 법회를 열기 시작해 현재는 20여명의 장병들이 심우사를 찾는다.

이 밖에도 심우사가 중심이 됐던 유치인 면회 법회는 거창사암연합회 전체 사업으로 확대시켜 거창 지역 사찰들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정토사(주지 수현)는 거창 지역 어린이 포교의 메카로 통한다. 혜연 스님의 원력으로 20년 전 시작된 법회에는 정토사 어린이법회 출신들이 법회 지도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농촌 사정에도 2박 3일로 진행되는 여름불교학교에는 70~80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할 정도이며 1박 2일로 일정이 줄어들자, 아이들의 항의가 빗발쳐 3박4일로 다시 조정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또한 8년 전부터 이어온 사경법회도 정토사의 자랑거리. 매주 금요일마다 사경법회를 열고 그것을 책으로 엮어오길 8년. 사경법회 회원들은 <금강경> <법화경> <천수경>등 웬만한 경전은 한차례 이상 사경을 했을 정도로 사경을 통해 신심을 다지고 있다.

일년간의 사경책자를 전시하는 초파일 사경전시회는 정토사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행사로 손자들이 할머니가 사경한 책 앞에 꽃을 받치는 아름다운 풍경이 연출된다. 거사회 창립, 시민선방 운영 등을 과제로 안고 있는 정토사는 거창의 미래가 될, 어린 불심을 키우는 ‘거창불교의 밭’인 셈이다.

전체높이 3.7m, 불상높이 2.75m의 화강석제 불상인 보물 377호 거창 양평동 석조여래입상으로 유명한 금용사(주지 준용)는 마을 주민들의 정신적 귀의처로 각광받고 있다. 그동안 도량을 잘 가꾸고 석조여래입상 주위에 잔디를 심어 보호해온 주지 준용 스님은 석조여래입상의 마모와 파손을 막기 위해 보호각 설치를 계획 중이다. 또한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에 의해 창건되었다는 송계사(주지 정우)와 고견사(주지 정안)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과 기도객으로 붐비고 있다.

거창에 뿌려진 불교의 씨앗이 알찬 결실을 맺기 위해 남겨진 과제로 청년 불자들의 힘 결집과 거창 지역 전체 신도회 창립을 꼽는다. 거창 불교의 ‘허리’ 역할을 할 청년들과 거사들의 힘이 모이면 크고 넓은 불교의 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합천

합천 하면 곧바로 해인사라는 단어가 따라 붙을 정도로 ‘해인사’를 빼고 합천 불교를 이야기할 수 없다. 사시사철 250여 명의 스님들이 수행 정진하고 있는 해인사(주지 현응)는 한국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총림으로 지정됐다.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봉안하고 있는 법보종찰로 근대 한국불교의 상징인 성철 스님이 주석하면서 더욱 관심을 모아왔다.

탄탄한 역사의 기반위에 시대에 걸 맞는 불교적 위상을 찾기 위한 노력은 해인사자비원을 중심으로 복지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뿐만 아니라 주5일제 근무에 따른 발 빠른 변화로 해인사 주말 수련회를 열어 분주한 일상을 벗어나 자신을 성찰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최근 해인 총림 발전과 해인사 교구 발전을 위한 제반 상황과 포교, 수행, 교육, 문화사업 분야의 제언을 모집하고 있는 해인사는 내부적인 조직 체계화와 해인사 장기 계획수립 등을 위한 업무 분담을 확고하게 하며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합천 불교는 교구본사가 있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지역불교가 위축된다는 속설을 깨지 못하고 있다. 합천불교사암연합회가 오래전부터 결성돼 활동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상태. 그러나 지역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간과할 수는 없는 포교 활동을 이어온 지역 사찰들의 활동은 돋보인다. 합천읍의 맏형격인 연호사는 청소년 포교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펼쳐왔다.

초 · 중 · 고 학생들을 위한 전국문화유적답사, 영화 상영시설, 다도실, 독서실 등을 갖춘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한 경험을 살려 지역 청소년들에게 명상과 문화혜택의 기회를 주는 청소년 쉼터 건립을 발원하고 있기도 하다. 자원봉사단을 중심으로 원폭피해자 복지회관, 보육원, 어린이 보육시설, 노인복지 시설 등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합천읍 뿐 아니라 합천군에서도 기도객들이 찾아오는 용흥사(주지 묘관)도 주목된다. 연호사 신도였던 보살들이 주축이 돼, 기도처로 건립된 용흥사는 보살들이 탁발로 불사금을 모으고 기왓장을 옮기며 세운 도량. 이후 묘관 스님이 불사를 추진해 도량 면모를 일신한 용흥사는 합천제일의 기도 도량으로 손꼽히며 대를 이어 다니는 신도들이 많다.

최근 해인사 신임 주지로 현응 스님이 부임하면서 해인사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11월 7일 ‘열린 해인사’를 표방하며 ‘해인총림 및 교구발전을 위한 첫 토론회’를 개최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합천 지역 전체가 꿈틀대고 있다.

조계종 제 12 교구본사 해인사의 변화는 곧 한국불교의 변화로 직결되며 합천지역 불교 발전에도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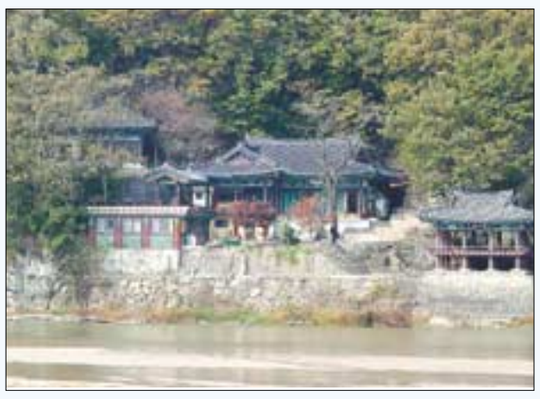
거창 · 합천=천미희 기자

거창
계층따라 다가가는 포교 효과 적중

합천
해인사 변화의 폭 넓혀 불심도 꿈틀

▌주목! 합천 팔경 연호사 함벽루

황강 정양호 굽어보는 수려한 풍광


연호사에 잇닿아 있는 함벽루. 합천 8경중 4경이다.

‘안개 낀 호숫가에 있는 절’. 이름만큼이나 운치 있는 절이 연호사(煙湖寺)다. 황강변 남정 석벽에 위치한 연호사는 삼국통일의 계기가 되었던 대야성 전투의 역사가 서린 곳으로 합천 팔경 중 4경인 함벽루가 있어 그 운치를 더한다.

황강 정양호를 바라보는 수려한 풍광으로 조선시대 시인 묵객들이 찾아와 시를 읊었다는 함벽루엔 이황, 조식, 송시열 선생 등의 글이 누각내부에 현판으로 걸려 있고 누각 뒷면 큰 바위에 우암 송시열 선생 친필인 ‘함벽루(涵碧樓)’ 세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다.

정면 3칸, 측면 2칸, 팔각지붕의 2층 누각인 함벽루의 주된 활용 공간은 2층 누마루. 누각처마의 물이 황강에 떨어지는 배치가 돋보이는 이곳에서 동서로 유유히 흐르는 황강을 바라보는 즐거움이 특별하다.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종성 스님
해인사 홍제암 감원
합천사암련 회장

문화 행사로 불교 ‘붐’

사암련 결성 당시부터 회장을 맡아온 종성 스님은 뜻한 만큼 포교 활성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자기반성부터 앞세웠다. 그만큼 합천 불교에 대한 애착도 컸고 노력도 각별했다는 반증이다. 처음 33개였던 회원사찰이 9개로 줄어드는 변화를 겪는 동안, 합천 불교 활성화를 위한 일이라면 제등행렬, 선지식 초청법회, 국악인 초청 공연, 성지순례, 유등제 등을 열며 노력을 기울여왔다.

40여 년간 해인사에서 살아온 스님은 ‘해인사의 살아 있는 역사’로 통한다. 73년부터 스님이 몸담고 살고 있는 홍제암엔 꽃을 좋아하는 스님이 손수 가꾼 국화 향기가 그윽하다.


선용 스님
거창 아림사 회주

소풍법회…만화책 대여

거창 포교활동만 26년째. 침체돼 있던 거창불교에 활기를 불어넣고 전성기를 만든 장본인. 81년부터 97년까지 거창포교당 주지를 맡으며 소풍 법회를 열고 만화책을 빌려놓기도 하는 등 어린이법회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였다. 학생회, 청년회, 거사림회 활성화도 이끌어 현재 거창불교를 이끄는 인재들 대부분은 선용 스님이 키운 셈.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공부방, 군부대 위문, 불우이웃돕기 등으로 불교의 대사회적 활동에도 앞장서왔다.

총무원 호법국장, 총무원장 대행을 비롯 해인사 재무 · 포교 · 총무 등을 역임하며 종단 발전에도 큰 몫을 해왔다.


심우 스님
거창 심우사 주지
거창사암련 회장

뛰어난 일솜씨 활약

심우 스님은 2001년 초파일을 열흘 앞두고 거창 포교당으로 부임하자마자 연극협회서 전선을 빌려 거창 시내 전역에 연등부터 밝혔다. 불교합창단이 없어 행사 때마다 어려움을 겪자 불교대학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찬불가를 가르쳐 합창단으로 활동하게 했다.

경승도 혼자뿐이고 군 법당 법회도 홀로 도맡아야 했지만 일을 하면 화끈하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탓에 지금도 거창신도회 창립, 거창 청년회 재창립 등에 온 마음을 쏟고 있다. 종단의 상임감찰, 문화국장, 조사국장 등을 맡으며 뛰어난 일솜씨를 인정받은 스님은 해인사 호법국장 소임도 겸하고 있다.


정안 스님
거창 고견사 주지

‘실천’ 가르치며 정진

불교가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정안 스님의 지론. 스님은 실천이 용이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매주 목요일 열리는 불교교양대학 수업만큼은 빠뜨리지 않는다. 단 1명이 오더라도 3개월간은 이어갈 생각. 아미타경을 교재로 진행되고 있는 이 수업은 아미타경을 독송하고 그 내용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스님의 설법을 통해 이해하고 있다. 그렇다고 스님은 무엇을 가르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다만 같이 대화하면서 함께 공부할 뿐이라고 말한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그 속에서 진리를 실천하며 살고 있기에 서로 배우고 탁마할 수 있다고 믿는 까닭이다.


능도 스님
합천 연호사 주지

봉사 · 복지 전천후 활동

주지가 너무 자주 바뀌어 어려움을 겪었던 연호사에 10년째 살고 있다. 그동안 기둥만 빼고 모든 당우를 개보수 했고,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회관도 운영했다. 사암련 총무를 맡아 황강 축제에 맞춰 유등제를 열었고, 자원봉사단을 꾸려 노인, 어린이 시설에서 청소, 목욕, 이미용 봉사 활동도 펼쳐왔다.

영화, 음악 등에 남다른 관심을 가진 능도 스님은 해인사 사회국장 당시, 팔만대장경 이운경로를 기획, 많은 대중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현재는 해인사 기획국장을 맡아 본사의 발전을 위해서도 마음을 쏟고 있다.


묘관 스님
합천 용흥사 주지

불사와 기도원력 ‘일심’

79년부터 용흥사와 인연이 닿았던 묘관 스님은 15년째 불사를 진행해 지금의 용흥사를 있게 한 장본인. 작은 법당뿐이던 용흥사는 이제 극락전, 대웅전, 요사채, 칠성각을 갖추고 합천 시내 대표적인 기도 도량으로 자리잡았다. ‘불사와 기도뿐인 스님’으로 통하는 스님은 약수암 안거를 빠뜨리지 않으며 젊은 스님들과 나란히 정진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합천 사암련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합천불교 발전에도 몸을 아끼지 않고 있어 후학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스님은 “미래불교의 발전을 위해 어린이집을 운영해야한다”며 상좌들의 분발을 독려하고 있다.


정우 스님
거창 송계사 주지

자연을 선물하는 스님

가을이 깊어가는 산사에서 스님은 감을 깎고 있었다. 수정과를 담아 찾아오는 이들을 대접하기 위해서란다. 산에서 나는 당귀, 오디 등으로 만든 따뜻한 차를 권하기도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송계사에 온 사람들은 호박을 한 덩이씩 안고 돌아갔다니 자연에서 수확한 것들을 나누는 정우 스님의 일상 가운데 불법의 가르침이 스며있다. 이처럼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스님의 마음을 봐온 사람들은 농작물을 수확하면 제일 먼저 절에 공양 올린다.

“들판의 주인은 풀과 꽃이고 우리는 객일 뿐”이라며 늘 웃음 짓는 스님은 모두에게 자연을 선물하고 있다.


수현 스님
거창 정토사 주지

피아노 치며 법회 진행

수현 스님은 “사찰 주지를 하는 한 포교를 해야 한다”는 은사 혜연 스님의 뜻을 충실히 따르고자 노력 중이다. 어린이 법회에 필요한 봉고차 운전을 위해 60세를 바라보는 은사 스님부터 정토사 5명 스님 모두가 1종 면허증 소지자일 정도로 어린이 포교에 각별하다. 찬불가를 가르칠 교사가 없자, 스님이 직접 피아노 학원에 다녔고 결국 그 학원 선생님을 어린이법회 교사로 만들었을 정도.

“포교는 절정에 달해 이제 수행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진단한 스님은 직접적인 수행 체험, 신심을 바탕으로 한 수행이 뒤따라야 포교에 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준용 스님
거창 금용사 주지

문 없는 ‘동네 절’ 주인

준용 스님은 수시로 찾아오는 마을 주민들을 반가이 맞이하고, 동지나 명절이 되면 팥죽과 떡국을 끓여서 가부면, 딸기집하장, 노인정, 목재소, 경찰서마다 들고 찾아 나선다. 스님의 이런 노력으로 금용사는 아이들에겐 둘도 없는 놀이터요 마을 주민에겐 마음의 위안처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스님은 불교만을 강요하진 않는다. 스님의 열린 가르침을 접해왔던 동네 할머니가 절을 ‘독사소굴’로 비유한 한 목사님을 향해 항의를 했을 정도. 넉넉하고 열린 마음으로 동네 분들을 감싸 안고 있는 스님은 동네 사람들 모두에게 ‘우리 스님’으로 통한다.

"과자 사먹고 싶은 맘 꾹 참고 모았어요"

부산 금화사 초등불교학교 어린이 34명, 나눔 저금통 전달



부산 금화사 초등불교학교 학생들이 6개월 동안 채워온 원숭이 저금통을 들어보이며 활짝 웃고 있다.

"내가 모은 돈으로 어려운 친구들을 도울 수 있다니까 기쁜 마음으로 모았어요."

11월 7일, 부산 금화사 초등불교학교(교장 김광호) 학생들의 표정이 한결같이 밝다. 저마다 원숭이저금통 하나씩을 앞에 놓은 아이들의 얼굴엔 뿌듯함이 넘친다. 현대불교신문에서 원숭이 저금통을 분양 받은 지 6개월 남짓. 그동안 한푼 두푼 아껴 채워온 원숭이저금통을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책상위에 올려놓았다.

속이 꽉 차 제법 무거운 원숭이도 있고, 어떤 원숭이는 반도 차지 않아 소리만 요란한 녀석도 있다. 동전 몇 개에만 원짜리 지폐가 들어있는가 하면 백원, 오백 원, 십 원까지 동전으로만 가득 채워진 저금통도 있다.

"그동안 원숭이 저금통 채우는 것을 게을리 하다가 오늘 거둔다고 하니까 만원짜리를 급하게 넣은 사람도 있지?" 저금통 분양을 제안한 김광호 법사의 짓궂은 질문에 아이들의 웃음보가 터졌다.

원숭이 저금통 분양에 전교생 34명이 모두 참여했기에 이날 첫 시간은 원숭이 저금통을 거두며 보시의 의미를 되새기는 수업으로 진행됐다. 저금통에 돈을 모으며 느낀 점을 얘기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중간에 과자 사먹고 싶어 꺼낼 뻔 했지만 유혹을 참았어요."

정도의 솔직한 고백이다. 정도의 말에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이던 소연이도 "처음엔 과자 먹고 싶어 꺼내기도 했는데 너무 돈이 적어 다시 열심히 모았다"며 저금통을 들어보였다.

그러나 전국 최고의 어린이법회를 자부하는 금화사 초등불교학교 학생들이 철없는 과자 타령만 할리 없다.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선영이는 "평소에 천사원에서 장애인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했는데 저금통을 통해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참 좋다"는 말로 보시행의 즐거움을 전했다.

김광호 법사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려운 친구들을 돕겠다는 마음을 일으켜 함께 동참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며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줬다는 생각조차 잊어버려야 진정한 보시"라고 덧붙였다.

이날 거둔 저금통은 모두 38개. 학생수는 34명이었지만 부모님이 참여했거나, 집에 있던 코끼리 저금통까지 들고 온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총 45만8천190원을 모금한 학생들은 이날 또 다시 원숭이 저금통을 분양받았다. 배고픈 친구들이 없어질 때까지, 저금통에 사랑을 모으겠다는 다짐과 함께.

글 · 사진/부산= 천미희 기자

"어르신들 많이 드세요"

대구 사찰보존연구회 자비석림회 경로잔치



화성양로원과 치매 노인전문 요양시설인 여래원 어르신 50여명이 맛있게 점심공양을 하고 있다.

"정말 음식이 맛있어요. 모처럼 밖에 나오니 바람도 쐬니 너무 좋은 걸…"

11월 10일 대구시 북구 종합유통단지내 공동어시장 식당에서 점심공양을 하는 최후남(89,화성양로원) 할머니가 감탄사를 연발한다.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에 의지해 공양하는 어르신들의 주름진 얼굴에도 웃음꽃이 핀다.

대구 사찰보존연구회(회장 효신) 산하 자비석림회 곽태익 회장이 개최한 경로잔치에는 대구시내 화성 양로원과 치매 노인전문 요양시설인 여래원 어르신 50여명이 참석했다. 매년 화성양로원, 성보재활원을 직접 찾아가 경로잔치를 벌였던 곽 회장. 올해는 사찰보존 연구회 회장 효신 스님의 조언을 받아들여 나들이를 겸한 경로잔치로 마련했다. 곽 회장은 이날 경로잔치가 열린 자신의 식당에 일반손님을 받지 않았으며, 자비석림회 회원 10여명도 동참해 어르신들의 공양 수발을 들었다.

글 · 사진/대구=배지선 기자

자제공덕회 묘희원 후원자를 찾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자제공덕회 묘희원(옛 자제정사 양로원)이 정부방침에 따라 지난 7월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한 뒤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1년 문을 연 묘희원(원장 보각)은 현재 할머니 60여명, 비구니 스님 10여명 등 70여명이 생활하는 비교적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올 7월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완전 무료양로시설로 성격을 바꿨다.

후원회의 기부금 외에 자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판매가 유일한 소득인 묘희원은 법정인원과 시설을 확보하기에도 벅찬 형편이다. 더구나 비교적 나은 시설과 규모 탓에 수용인원이 계속 늘어나면서 곤란을 겪고 있다. 현재 은행 대출 등으로 어렵게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는 실정.

묘희원 재무를 맡고 있는 지우 스님은 "앞으로 노인 요양시설로 시설 목적을 전환하는 2006년 전까지는 국고보조 없이 버텨야하는 상황"이라며 불자들의 온정을 기대했다. (031)356-5799 (농협 207076-51-041279 예금주 자제공덕회)

조용수 기자

좋은벗들 등에 1천만원 기탁

청우불교원 이사장 김재웅 법사



김재웅 법사(오른쪽)가 좋은 인연만들기 모임 손영희씨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청우불교원 이사장 김재웅 법사가 정토회 좋은벗들과 불교신행연구원 좋은인연만들기에 각 500만원을 기탁했다.

11월 4일 서울 불교신행연구원 사무실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김재웅 법사는 "성금은 금강경독송회 4월 천도법회와 8월 통합법회에 참가한 불자들의 보시금을 모아 마련했다"며 "좋은벗들과 좋은인연만들기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96년 12월 창립한 좋은벗들은 국제평화, 인권, 북한 난민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좋은인연만들기는 98년 3월부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울 장충단 공원에서 결식노인 1천여명에게 점심공양을 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나눔의 손잡기

알립니다

연말을 맞아 본지 나눔의 손잡기에서는 1차로 11월말 서울경기지역 12개 종립학교에 재학중인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금 접수에 많은 동참바라며, 올 한해 전국에 배포한 '나눔의 저금통' 도 수거하고자 합니다. 개인은 본사로 직접 접수해 주시고,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저금통을 모아 직접 개봉하여 온라인으로 입금한 뒤, 본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722-4162. 입금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나눔의 손잡기 운동

부산 금화사 초등불교학교 – 45만8천190원

김제철 최성영 박상욱씨등 – 42만9천900원

총 누적금액 27,717,660원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채워서 보내주십시오.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스티커 나눠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이웃' 캠페인과 상호 협조에 의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해요"

현대불교신문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보내, 보시중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읍시다.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시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737-8881 (02)737-0090, 팩스(02)737-0697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시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벗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창작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창작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 어떻게 참여하나
- 종단 · 사찰 · 기업 · 단체 · 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 본사·연고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 1구좌 1만원입니다.
-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온라인구좌/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좋은벗 풍경소리 (02)723-9836

이렇게 참여하세요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수)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 봉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 주세요.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주십시오.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가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십니다.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자비의 헌혈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사진 위에서부터 스님합창단, 어머니합창단, 해외지원합창단, 어린이 합창단, 독일지원 어린이들의 사물놀이 공연 모습.

간암환자돕기 '한마음선원 합창제' 대성황

"We go together, like rama, lama, lama…" 노래에 맞춰 청년들의 절도 있는 텝댄스가 무대에 펼쳐진다. 얼핏보면 뮤지컬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 하지만 제 2회 한마음선원 합창제의 공연중 일부 순서다. 관객들중에는 "불교음악 공연이 이렇게 세련되고 발전한 줄 몰랐다. 너무 재밌고 신난다"는 환호성이 객석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11월 6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어린이와 청년(150명), 어머니(350명), 아버지(100명), 스님(80명), 4개 해외지원 불자(80명) 합창단 등 총 1천여 사부대중이 펼친 '간암 환자 돕기' 제 2회 한마음선원 합창제는 부처님 가르침을 음성공양으로 전한 뜻깊은 행사였다.

"마음이 청정하면 부처가 나타나며, 마음이 어두우면 부처가 보이지 않는다.… "라는 선법가를 부르며 무대와 객석이 흥겨움속에 부처님 가르침의 참 의미를 새겨가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4개월전부터 합창제 준비에 돌입한 한마음선원은 합창단은 물론이고 신도회가 중심이 돼 기획, 홍보, 의전, 공연 프로그램 등 행사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분업화 했다.

문명진 신도회장은 "이번 행사 준비를 위해 신도들이 보여준 열정은 오히려 공연 무대보다 정말 눈물 겹도록 감동적이었다"며 "1주일에 세 번씩 퇴근 후 연습을 끝마치고 자정이 넘어 2시간 거리에 있는 상계동집까지 돌아가는 신도들을 보며 안스러웠다"고 회고했다.

도주완 거사림합창단 총무도 "공연 연습을 위해 노래를 계속 부르다보면 처음에는 어려웠던 가사 내용도 자연스럽게 의미가 전해진다"며 "노래 부르는 것 자체가 수행이라는 생각에 합창단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습에 임한다"고 설명했다.

오후 3시 곱게 장식된 꽃무대에 거사 어머니 혼성합창단이 등장하며 합창제의 막이 올랐다. '그 마음 그대로' '해수관음의 빛' '한시루의 대중이여' 등 선법가 음성공양에 이어 어린이 합창단은 '임의 소식' '챔피언' '댄싱 퀸'을 무용과 함께 선사했다. 특히 선재동자들의 앙증맞은 율동과 무용을 지켜본 관객중에는 '부라보'를 외치며 즐거워 발을 구르는 이도 있었다. 아마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간암 환자들이 이 광경을 지켜봤더라면 금방 훌훌털고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유쾌하고 즐거운 무대였다. 또한 이번 공연에서는 첫 공연에 이어 한마음선원 대중 스님 80여명으로 구성된 스님 합창단이 출연해 '영원한 오늘' '내 한 생각 법이 되어' 등을 불러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공연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중앙)이 축하메시지를 적고 있다. 오른쪽은 사회부장 지원 스님.

"노래 자체가 수행" 모두 일심동체
1천여명 한무대 공연장 장엄 일색
독일 등 해외지원 4곳서도 대거참여

이번 공연에 참가한 합창단중 출연 자체가 감동을 전해주는 이들도 있었다.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에서 온 30여 벽안의 불자들. 이중 롤란드 피취 교수(62 · 뮌헨대 비교종교학과)는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피취 교수는 2001년 로마 바티칸 시티에서 신부가 되려고 사제 서품을 받기 직전 대행스님의 법문을 접하고 감화돼 개종 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합창제에 참가하기 위해 공연 1주일 전 독일서 날아왔다. "한글을 몰라 처음에는 가사를 소리나는대로 독일어로 적어 놓은 뒤 연습했다"며 "1백번 이상 부르다 보니 이제는 외울 수 있을 만큼 숙달 됐으며 부를수록 마음이 맑아짐을 느낀다"고 즐거워 했다. 이외에도 해외 지원합창단 반주자중에는 세계적인 교향악단인 독일 라이프찌히 오케스트라 비올라 주자인 요한나(35)도 끼어 있어 눈길을 끌었다.

2시간 30여분 동안 진행된 이날 공연은 어느 한 순서도 가벼히 흘려 보낼 수 없는 메머드 공연이었다. 1천여 출연자들도 무대에서 한치의 흐트러짐없이 일사불란하게 공연 했고, 관객들도 이에 화답하는 뜨거운 박수를 보내 격려해 주었다. 마지막 순서는 1천여 합창 단원들이 모두 무대로 나와 1회 공연때와 마찬가지로 앵콜곡 '그리운 금강산'을 연주하며 회향했다. 이날 공연을 지켜본 조영근(작곡가)씨는 "요즘 각 절마다 청년 불자들이 줄어 들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이었다"며 "하지만 이날 공연에서 한마음 선원 합창단이 청년 불자들을 중심으로 공연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흐뭇했다"고 말했다. 황남채(판화가)씨도 "마지막 순서에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무대에 서서 노래 부르는 것을 보고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았다"며 " 환희심이 막 생겨나 노래를 따라 불렀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노구를 이끌고 공연장을 찾은 운문 스님(운문사 주지)은 "정말 대단해. 찬불가 공연 많이 봤지만 이렇게 장중한 느낌을 주는 공연은 흔치 않아. 불교 음악이 이렇게 발전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너무 좋아"라며 함박 웃음을 띠었다.

이날 공연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비롯해 동국대 명예교수 인환 스님, 운문사 주지 운문 스님, 화성 용주사 주지 정락 스님, 부산 감로사 주지 혜총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원택 스님,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한마음선원장 대행 스님, 정각사 주지 광우 스님(前 전국비구니회 회장)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스님,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 현대불교신문사 김광삼 사장 등 3천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모금된 보시금은 특별 수익금을 포함 1억8천여만원 정도다. 한마음선원은 11월 말 어려운 처지의 간암 환자들을 추천받아 각각 1천만원씩을 전달할 계획이다.

글=김주일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제2회 한마음선원 합창제 마지막 순서에서는 어린이와 청년, 어머니, 아버지, 외국지원 합창단 등 1천여명의 총 출연자가 무대에 올라 한마음으로 회향했다.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730-0705

11월 27일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출발

여행경비 : ₩850,000원 (10명이상 출발)

일 시	교통편	기 간	일 정
11월 27일	MU5042	07:00 09:05/11:30	인천 공항 모임 인천 출발 / 상해 도착 임시정부, 옥불사 참관 호텔휴식
11월 28일	고속페리	09:05/11:30	선편으로 보타산 이동 조음동, 보제사, 해제사, 남해 대불 참배 호텔 휴식
11월 29일	고속페리	13:30/16:00	선편으로 낙가산 이동, 낙가산 참배 선편으로 영파 이동 / 아육왕사, 천동사 순례 항주로 이동 / 호텔 휴식
11월 30일	전용버스		서호유람, 영은사, 육화탑 참배 상해로 이동 / 호텔 휴식
12월 1일	MU5041	09:15/11:55	항공편으로 상해 출발 / 인천 도착

※ 개인 경비 외에 모든 경비 포함

삼보에 귀의 하옵고
당사는 중국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호화유람선으로 여행 및 순례 (매주 화요일 출발)
1. 천진, 북경 7일 (와불사, 담저사, 응화궁) ₩ 390,000원
2. 천진, 북경, 낙양 7일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 520,000원
3. 천진, 북경, 오대산 7일 (운강석굴, 화엄사, 현통사) ₩ 620,000원
• 조건: 10명 이상 출발 가능, 비자비 가이드 기사 팁 불포함

중국 불교 성지 순례
1. 관음도량 보타 낙가산 5일 85만원
2.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5일 85만원
3.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 5일 85만원
4. 문수도량 오대산 운강석굴 5일 80만원
5.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5일 80만원
6. 달라이라마 티벳 8일 179만원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극심한 취업난이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른 취업난을 뚫기 위해 해외연수는 물론, 기업별 면접 준비 스터디 모임이 온·오프라인으로 결성되고, 특정기업의 입사를 위한 수험서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취업고시'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요즘의 취업전선.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성공할까. 직업선택부터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요령, 마음 다스리기 등 불자 직장선배들이 조언했다. "취업,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직장불자들이 말하는 취업 비결

회사 알고 나 알면 "출근"

정보가 바늘구멍을 뚫는다

-직업 및 유형별 취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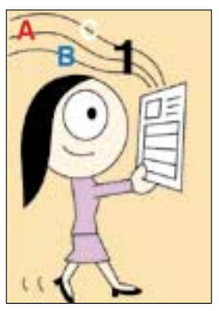
"자신의 전공과 특기 등 이력사항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 목표로 하는 직종과 기업의 눈높이를 결정하라. '어떤 회사든 들어가서 원하는 일을 찾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다. 첫 직장과 해당 업무가 직장생활의 반 이상을 결정한다. 성실과 근면은 기본이다. 제조업 창의력, 금융권 마케팅 등 해당 분야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걸맞는 능력을 완비해 취업문을 뚫어라." 우리은행 이탁수 부천지점장(전국금융단불자연합회 회장)

최근 신입사원 채용시 학력과 연령 제한을 철폐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또한 상당수 기업들이 서류전형을 통과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프리젠테이션 면접, 요리 등 새로운 면접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각 직업의 특징과 관련 기업체의 취업전형을 파악하는 일이 취업의 관건이다. 전문리크루트업체는 물론, 각 기업체, 학교 취업지원팀 등의 홈페이지와 인사지원팀 등을 확인하며 관련 정보를 숙지해야 한다. 또한 디자인, 광고, 출판 등 서비스직종들은 인맥이나 사전 인재등록방식에 따라 수시채용 함으로 관심 있는 분야나 기업체 등의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포트폴리오나 광고시안 등을 미리 준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나'란 상품을 홍보하라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요령-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회사가 요구하는 전형에 맞게 실무능력을 위주로 솔직하고 자세히 기술해야 한다. 인사담당자들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만을 보고도 지원자의 능력과 회사에 대한 열정과 열의를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주)한주 이승열 총무부장(한주불자회 회장)

취업은 이력서 작성에서 시작된다. 인사담당자들이 가장 먼저 지원자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력서이기 때문이다. 정성스럽고 차별화된 이력서가 면접 기회를 얻는데 유리함은 물론이다. 어떤 회사는 학력사항을, 어떤 회사는 대학교 성적 혹은 영어능력을 중시한다. 따라서 사전에 지원 기업의 인사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실 이력서만으로는 지원자를 평가하기 부족하다. 그래서 기업들은 지원자 개개인의 특성과 문장력, 사고방식 등을 미리 살피기 위해 자기소개서를 요구한다. 요즘은 자기소개서가 서류전형의 당락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사담당자들이 꼽는 잘된 자기소개서는 △회사의 요구양식에 맞춰 △각 항목마다 핵심주제별로 자신을 PR △구체적으로 기록△ 주제어를 맨 앞 구절에 제시 △신선한 표현 △쉽고 읽기 편한 단문중심 △희망하는 기업에 입사하고자 확고한 의지 △희망하는 직무에 대한 사전경험과 관심 표현 등을 적절히 표현한 것이다.

이미지·화술도 전략이다

-면접대처 방법-

"면접이란 발표가 아니라 면접관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대화이다. 즉, 깔끔하고 정돈된 외모와 복장만큼 어떠한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명확히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줄 아는 자신감이 중요하다. 최근 들어 여러 명의 면접자 속에서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 과장된 언행을 하는 지원자가 많은데, 이는 조직 내 조화를 깨뜨리는 요소로 평가된다는 점을 주의하자." (주)코리아리크루트 헤드헌팅팀 이종선 대리.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구직자들의 외모와 첫인상이 채용 시 커다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성균관대 심리학과 이경성 교수가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함께 기업인사담당자 2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채용시 구직자의 외모가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에 인사담당자의 66.7%가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무자들은 외적인 요소가 뛰어나도 지원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열의가 부족한 사람은 최종합격을 시킬 수는 없다고 말한다.

아무리 외모가 능력으로 취급되는 시대라 하지만, 외모가 뛰어나다는 이유로 회사업무에 관심이 부족하고 해당지식이 전무한 지원자를 회사에 입사시키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해당 업무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관련지식 및 철저한 준비를 마친 후, 신뢰감 주는 깔끔한 외모와 복장 등을 갖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이다.

이밖에 면접 시 면접관들의 질문에는 △평소보다 크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시선은 면접관 눈에 맞춰 △질문의 핵심을 파악한 뒤 간결하게 답변 △대답은 결론부터 제시한 뒤 구체적으로 부연설명 △처음 시작하는 말과 끝나는 말은 힘 있게 △대답은 쉽고 편한 단문중심 등으로 하라고 당부한다.

능력을 객관·수치화하라

-연봉협상준비와 요령-



"연봉제는 개개인의 능력 및 실적, 공헌도 등에 따라 차등되는 능력중시형 임금지급 체계를 말한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일 경우 개인이 연봉을 협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보통 회사 연봉규칙에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 만약 외국인회사나 이직을 하는 경우라면,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동업종의 연봉 등을 참고해, 입사시 적절한 계약금과 연봉액수를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삼성증권 종로지점 우승택 지점장.

입사 최종 결정과정에서 연봉협상은 취업생들의 고민 아닌 고민거리다. 연봉제에 대한 지식은 물론, 자신의 능력을 연봉으로 추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 연봉은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로 사용돼, 기반지식이 없는 취업생들은 보통 회사방침에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연봉제 도입부터 각 회사별 연봉제 사항 등을 쉽게 알려주는 홈페이지(www.payopen.co.kr) 등을 살펴보고 자신의 능력을 객관·수치화 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또한 연봉에 성과급과 임금인상 및 상여금, 퇴직금 등에 대한 세부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평상심 유지하라

-최선을 위한 마음 다스리기-



"다양한 심사전형과 합격발표를 앞두고 발생하는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은 108배와 명상, 사경, 독경 등으로 다스리도록 하자. 또한 수처작주(隨處作主)란 말을 가슴에 새기며 어느 곳이든 스스로가 회사의 주인이란 생각으로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십분 발휘해야 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송도근 연구원(건설교통부불자회 회장)

어려운 취업관문을 뚫기까지 서류전형과 시험·면접 등 거쳐야 하는 과정에서 자칫 긴장이 지나쳐 제실력을 충분히 발휘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불자 직장선배들은 평소 108배와 참선, 사경과 독경 등으로 평상심을 유지할 것을 권유한다.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자세를 유지해야 실수가 적기 때문이다. 또한 시험과 면접 당일에도 호흡법이나 염불 등으로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필요하다.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우리불자회는요

충남 지방경찰청불교회

'부처님같은 마음'으로 민생치안은 물론 신행생활에 임하는 불교회,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불교를 알리고, 포교에 앞장서는 불자들의 모임이 바로 충남지방경찰청불교회입니다.

우리 불교회는 '민중의 지팡이로서 자비와 보살행을 실천한다'는 슬로건을 걸고 지난 2002년 3월 3일 충남지방경찰청 상무관에서 첫 창립법회를 가졌습니다. 2여년 밖에 안된 짧은 역사지만, 경찰청 내 불심은 1990년대부터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조직을 구성하지 못하고 개개인의 활동에 만족하다 2002년 15명의 회원으로 법회를 보기 시작했지요.

지난 11월 7일에는 불교회 회원들과 가족, 동료들을 중심으로 대구 동화사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같이 법회도 참석하고 점심공양도 하며, 신행담을 나누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지난 9월 6~8일 경찰청 지하 쉼터에서 '충남청불교회 회원 소장품 전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경찰청 내 직원들에게 불교회를 알리는 것과 동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해택을 주기 위해 기획된 전시회에는 수덕사 방장 원담 스님과 화계사 조실 숭산 스님 등의 서화작품 40여점이 전시됐습니다. 평소 회원들 개개인이 소중히 간직한 작품들을 공개했



충남지방경찰청 불자회원 및 가족 130여명이 11월 7일 대구 동화사로 야외법회 겸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법회·성지순례·봉사활동 손발이 '척척'

'회원 소장품 전시회' 포교·친목의 잔치

현재는 바쁜 업무 중에도 50여명의 회원들이 월 1회 경찰청 회의실에 모여 충남지방 경승실장인 갑사 주지 장곡 스님의 지도 아래 정기법회를 보고 있습니다.

매 법회 때마다 '불교인의 마음을 따뜻하고 넉넉해야 한다'며 장곡 스님이 떡을 마련해주셔서 경찰청 내 직원들이 나눠먹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우리 불교회를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법회 이외에도 우리 불교회는 봄, 가을 일년에 두 차례 전통사찰 등으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들 간의 친목은 물론, 여행이나 한국 전통문화 등에 관심 있는 경찰청 직원들을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품으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는데, 가까이서 불교문화를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이와 같은 문화행사들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우리 불자회는 연말마다 불우이웃을 돕기위한 다양한 모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에는 상이 따라서는 안 된다며, 불교회에서 하는 모금활동 이외에도 소년·소녀가장 후원하기 등 개별 봉사행을 소리없이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신행생활로 신심을 돈독히 다지는 한편,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고 불교를 널리 전할 수 있는 불교회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을수 총무(총무감사실 주임)

불기2548년 불교성지순례회원을 위한 특별기획상품

미얀마 불교성지순례

대한항공 특별전세기 운항 - 양국 정부 운항허가 조건 -

✲불교성지순례
요금 ~~₩1,680,000~~
₩1,380,000
(전세기 특별가)
인천-양곤-파간-만달레이(민군)-양곤-인천

✲문화탐방 ₩1,450,000
인천-양곤-해호-파간-양곤-인천

✲GOLF 여행 ₩1,520,000
인천-양곤-파간-양곤-인천

한진관광 이기범 과장 TEL. 02-726-5788
바라밀투어 차명철 부장 TEL. 02-3452-8010
불교방송 권병훈 차장 TEL. 02-705-5303

주관 여행의 명문 한진관광

미얀마 불교성지순례 일정 5박 6일

일자	출발/도착	교통편	시간	주요 행사 일정	식	사
제01일	인천 양곤	KE9667	17:00 18:55 22:30	인천국제공항 집합 대한항공편으로 인천 출발 양곤 도착후 호텔 투숙	조 중 석	기내식
				HOTEL | TRADERS OR NIKKO		
제02일	양곤 파간	국내선	06:30 07:50	아침공양후 국내선으로 파간 이동 2,500여개의 불탑파노라마 관공-쉐지곤파고다, 아난다사원,마누하사원,부파야파고다, 쉐산도파고다,이라와디강 석양감상후 호텔투숙	조 중 석	호텔식 현지식 현지식
				HOTEL | ARTHAWKA OR THARABAR GATE		
제03일	파간 만달레이 민군 만달레이	국내선	08:45 09:15	아침공양후 만달레이 이동 우뻬인다리,마하간디용수도원,만달레이힐 순례 전용 유람선으로 민군 향발, 민군 대탑, 민군종 순례 호텔 투숙	조 중 석	호텔식 현지식 현지식
				HOTEL | MANDALAY HILL RESORT		
제04일	만달레이 양곤	국내선	08:50 10:15	아침공양후 양곤 이동 로카찬다옥불사,차욱탓지파고다 까바예파고다(진신사리 친견/정대불사 봉행) 아웅산마켓 견학 저녁공양후 호텔 투숙	조 중 석	호텔식 한식 한식
				HOTEL | TRADERS OR NIKKO		
제05일	양 곤	전용차량 KE9668	전일 23:50	아침공양후 쉐다곤파고다,마하시수도원, 쉐도 파고다 순례, 아웅산기념탑 경유, 가사 불사 및 법회 (불교대학 대법당), 저녁 공양후 양곤 출발	조 중 석	호텔식 현지식 한 식
				HOTEL | 기내박		
제06일	인 천		07:40	인천국제공항 도착후 해산 *성 불 하 십 시 요*	조 중 석	기내식
				HOTEL |		

✲특전행사
1. 업장소멸 정대불사 (부처님진신사리, 사리불, 목련존자)
2. 탁발공양(희망자)
3. 수도원 위빠사나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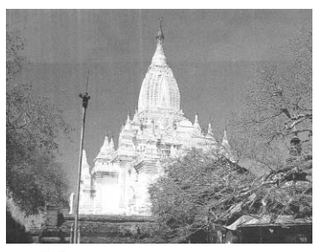
✲출발일(2004년)
1차 : 12월 5일~12월 10일(5박6일)
2차 : 12월 9일~12월 14일(5박6일)
3차 : 12월13일~12월18일(5박6일)
4차 : 12월17일~12월22일(5박6일)

미얀마 문화탐방 5박 6일

일자	출발/도착	교통편	시간	주요 행사 일정	식	사
제01일	인천 양곤	KE9667	17:00 18:55 22:30	인천국제공항 집합 대한항공편으로 인천 출발 양곤 도착후 호텔 투숙	조 중 석	기내식
				HOTEL | TRADERS OR NIKKO		
제02일	양곤 파간	HK909	06:30 07:50	호텔 조식후 파간 이동 2,500여개의 불탑파노라마 순례-쉐지곤파고다, 아난다사원,마누하사원,부파야파고다, 쉐산도파고다,이라와디강 석양감상후 호텔투숙	조 중 석	호텔식 현지식 현지식
				HOTEL | ARTHAWKA OR THARABAR GATE		
제03일	파 간 해 호	국내선	09:15 09:45	호텔 조식후 해호 이동 소수 민족의 풍속지인 인네 호수 - 인따족의 수상 시장, 수상 경작지, 외발 노젓는 모습 관광 - 팡도우 파고다 및 수상마을 관광 석식후 호텔 투숙	조 중 석	호텔식 현지식 현지식
				HOTEL | HUPPIN RESORT		
제04일	해 호 양곤	국내선	10:05 11:35	호텔 조식후 양곤 이동 2전통 유리 공장, 로카찬다 파고다, 차욱탓지 파고다, 까바예 파고다, 아웅산 마켓 견학 석식후 호텔 투숙	조 중 석	호텔식 현지식 한 식
				HOTEL | TRADERS OR NIKKO		
제05일	양 곤	전용차량 KE9668	전일 23:50	호텔 조식 후 미얀마 불교 상징 쉐다곤 파고다 양옹산 추모탑 경유, 마하시 수도원 관광 양곤 출발	조 중 석	호텔식 현지식 한 식
				HOTEL | 기내박		
제06일	인 천		07:40	인천국제공항 도착후 해산	조 중 석	기내식
				HOTEL |		







공동 판매여행사 / 대승항공 730-0202 실크로드 720-9600 혜초여행 733-3900

후원 대한항공 BBS 불교방송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일본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certificate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2005년 달력 주문 받습니다
주문전화 02)732-1520 마하몰
사찰명, 주소, 연락처 인쇄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바라, 나비춤, 태평소
각종 행사해 드립니다
010-4870-8359
051)261-5691

경면주사
(수비경면)
▷ 부적용, 서예용, 일반용 한의원 약국용 도, 소매
구입문의
011-9675-1089

구병시식 천도재 점안식
사찰의 행사에 직접
법진스님
염불 해 드립니다(바라, 작법)
방앗사 055-882-3455
016-428-6665

불교 각종 행사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불교 범음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
010-4816-6454

범패,염불,학인 모집중

각종불공의식	천도재 49재	점안식	용왕산신재	바라나비춤	상가영불	천도시식전문	명리주역

각 행사 염불해 드림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탄우 합장
02)939-3327
011-9923-3329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비구니스님이 만든 야생오미자차
高山에서 자생하는 오미자
기관지,천식,간장병,신장병
쉽게 피로하며 잘 붓는 사람
감기를 달고 사는 사람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슈잔드린 함유
055)345-6667

신묘한 구성학
사주없이 간단한 숫자만으로
래방객의 래정 및 처한
상황등을 쉽게 알 수 있는
구성학을 개인지도함
(출장가능)
02)2274-0443
019-446-4755

레이키(Reiki · 靈氣)를 배우면
- 누구나 바로 氣치료 · 원격치료 능력자가 됩니다
- 피로회복/스트레스해소/질병치료 생명력활성화 등 웰빙의 도구
- 우스이레이키 60만원/카루나레이키 40만원
- 교육기간 : 2~3일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www.Reiki.co.kr

전화: 02)720-5719
720-5682

역학개인지도
사주에 필요한 모든것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밝은미래를 여는 혜공 합장
02)421-8494
017-606-6628

충남 서천군 법정사 약사도량
우연 득병 누일 신음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약사부처님의 가피로 의구태평하십시오
010-3953-3453

신축 사찰 함께 불사할 주지스님을 모십니다
강원 인제
010-9657-9595
(24시간 상담)

가족을 찾습니다
노인복지에 관심이 있는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평생도반으로 탁마하며 수행하고 싶은 비구승입니다
(나이제한은 50~65세)
016-562-3533

사찰운영하고 싶은 비구, 비구니,보살님 초빙합니다
첩학상담.
약간의 자금 소유자 환영
017-390-0909
02)2201-0796

행자모집
신산유곡의 조계종 전통사찰 참선수행도량으로 출가할 뜻이 있는분은 연락바랍니다
문의 011-9221-1291

법납 30년된 50대초반 승려로서 포교 및 사찰운영관리 책임지고 평생 머물곳을 찾습니다
▷부산 경남지역 원함
051)553-5747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노보살님 환영)
정릉02)917-3363

사찰 전세 원합니다
산을 끼고 있는 서울 인근의 사찰을 원합니다
010-3300-1037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0~60사이
052)211-1083

수행 비구니스님 및 행자모십니다
▷나이 : 20 ~ 40세
부산 시내 포교원
018-801-2355

참신하고 가족처럼 함께지낼 기도스님 및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51)334-6572
010-4708-6572

처사 · 공양주 법당화주 각 1명씩 구함
▷30~45세
054)383-8032
011-9176-4403

공양주보살님 처사님 모십니다
011-693-7742

부전스님 구합니다
010-9664-4817
054)751-4817

급히 기도정진할 시골 구옥이나 농가 구합니다
041)554-5673
010-3073-7722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0대 이후)
▷대구
010-466-7071

신심있는 공양주 모십니다
▷55세 미만
숙식가능 불자님
일산구 탄현동
018-363-1191

사찰 운전기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043)645-0462

백일기도 부전스님 모십니다
대중처소 정진중 휴식이 필요하신 비구니스님
영주포교당에서 백일기도 한번 해보시죠
대한불교조계종 제 16교구 홍법사
054)632-3767 / 011-667-2901

연락바랍니다
- 승려가 되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
- 승려가 되고자 하나 불우한 청소년기로 인하여 중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한 분.
- 이미 삭발은 하였으나 조계종 승려가 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분께 학비 일체와 승려가 되는데 필요한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연락 바랍니다.

조계종 승려(비구니)가 되고자 하는 행자도 모십니다
연락처 02)932-1412 / 934-2230 (팩스겸용) 청화 법조 합장

창원중심지역 불교용품점
- 전세 500만원 월 30만원
- 평수 : 12평. 1층
- 물품대금 일체 3500만원

주간)051-208-7074
야간)011-872-4041
055)265-7998

연수원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하늘이 열린동네
- 평수 : 1045평, 342평
- 가액 : 조절가능

055)934-1197
010-4530-5175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 평수 : 22평
- 관음보살, 후불탱화, 산신용왕, 독승당
- 전세 : 300만원. 월28만원 시설비 : 600만원

052)223-2823

포교당 안내
- 위치 : 전남 순천시 장천동 은해사 포교원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보증금 300만원에 월 25만원 시설비 550만원

061)744-5623

상가안내
- 위치 : 제천시 신백동 극동아파트 상가 지하
- 평수 : 50평 (현재 비어있음)
- 시내 포교당으로 적합
- 가액 : 6천 5백만원

011-9058-2264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장산 아래
- 평수 : 법당 15평, 방 4개
- 금액 : 전세 3천 백만원 (시설비 무)

055)386-3509
011-9585-1172

눈 임시 가격인하
눈 전문 특수영양식품
눈에 좋은 물질특허성분 함유
일본특허 2790212 미국특허 5382714
제조원 : 日本(주)MERCURY-MK
일본성인병예방협회 추천제품
눈밝은 세상 (02)2237-8004



이십팔숙 특별지도
- 역술과 이십팔숙의 특수비법을 쉽게 설명
  불설 28숙은 모든 역술을 총괄하는 비법이며 이것을 모르고는 역술을 논할 수 없다
-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은 서로 다릅니다
- 지도 : 대주스님

☎ 02)926-1259 / 011-741-0867

궁중비법 사주명리 학인모집
구. 성수철학원
- 모집인원 : 수시모집
- 교육기간 : 1개월 완성반(주간, 월 ~ 금)
- 지도교수 · 강사 : 백운 성수 (본학회 회장)
- 교육장소 : 본 학회 2층 강의실 (최고시설완비)

전국 최대의 회원 양성 기관임
※ 본학회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자격시험시행 합격자에게는 자격증을 수여함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2층) 대명시장 맞은편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운세 10초내에 맞추면 수강신청
-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 저) 격국용신 및 교재내용에 대한 질문을 10초내 답변

똑같은 사주라도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되는일이 없습니다.
조상의 흐름을 찾으세요.

http://www.speedunse.com에서 핸드폰 · 카드결제됨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21C는 불교로 간다! 전국 제 1의 불교대학, 도심속의 7층 정법대사찰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감포도량, 뉴욕도량, 서울도량

▶ 신입생 주, 야간반 모집
- 주1회 공부 / 학력, 연령 제한없음
- 일반신도교육, 조계종포교사배출기관
- 도심속7층대법당, 최첨단시설

▶ 행자(예비스님, 남녀) 모집
- 행자원있음(엘리트 스님양성 - 40세 이하, 고졸이상)
- 수행, 공부의 모든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우학스님('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 의 저자) 직접지도합니다.
문의 : 011-9852-0075
053-474-8228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홍천 연화사**
아미타 대불 성지순례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북방1리 664번지 연엽산 연화사
전화 : 033)433-1815. 433-2009 팩스 : 033)433-5206

불교신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어느새 가을입니다.
현대가 성장해온 시간들이
벌써 12년
힘차게 도약하는 마음 가짐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성혼을
이룰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은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1호선 영등포역 하차 3번출구
영등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150m 지점 쯤
자리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성혼을
이룰수 있도록
연구 매진 도약하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 인생문제 특별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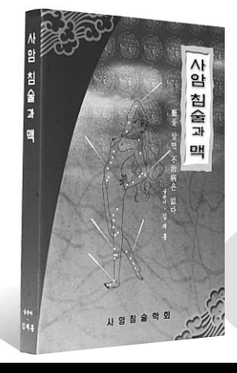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2)2677-5442
032)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더 이상의 획기적인 침술서적은 없다!!!
사암침술의 맥

침술인의 필독서 (必讀書)
1. 정확한 취혈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등분법)
2. 황제 내경 맥진법을 하루에 터득 할 수 있다
3. 복합처방으로 난치병도 두렵지 않다
4. 一鍼에 완치 시키는 즉효 요법이 있다
5. 중풍맥을 건강한 맥으로 즉석에서 교정한다
6. 100가지 질병 치료법을 쉽게 터득한다(고급과정)

※득이 없는 막연한 공부는 이제 그만합시다



김재홍 저
505쪽 신국판
정가 80,000원

구입문의: 사암침술학회
02)2267-9136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초급, 고급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임상실습
- 개강 : 2004. 12. 1. (주 · 야간반 : 3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정통명리강좌 정통풍수강좌

사 암 침 술 학 회
장소 : 종로 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화암빌딩 402호
문의 : 02)2267-9136. 011-307-2975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 찰 안 내

포교당
- 위치 : 서울 강북구
- 법당 요사 : 60평
- 임대료 : 480/50
- 시설비 : 2000만원

- 위치 : 경남
- 법당 : 15평
- 요사 : 30평
- 부지 : 1,400평
- 가액 : 1억3천만원

- 위치: 강원
- 임법당 : 30평
- 부지 : 1300평외
- 임대사용 : 2000평
- 가액 : 3500만원
- 공부하는 스님 조용한 기도처 필요한분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사찰안내

- 서울 3억 / 5억 / 10억
- 경기도 : 7천 / 8억 11억 / 13억
- 서울. 수도권사찰. 사찰터 다량보유

양도 운영 하실분 상담환영

현대불사 02)555-0575

포교당안내

- 위치 : 인천 부평동 롯데백화점 부평시장 2분거리
- 특징 : APT밀집, 포교최적지, 시설완전구비됨 (시설비 5천 무료보시)
- 평수 : 3층 – 법당 50평 2층–요사채 50평
- 가액 : 보증금 1억4천만원 월세 90만원

현대불사 018-267-0988

사찰(급) 안내

- 위치 : 부산
- 대지 : 300평
- 임야 : 2천5백평
- 인등 : 3천개
- 가액 : 7억 (절충가능)

011-9338-2993
소개업자 일체사절

사찰안내

- 위치 : 의정부
- 평수: 65평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300만원
  절충가능, 즉시법회가능
- 시설완비(상담후 결정)

031)826-0376

포 교 당 안 내

- 서울 140평 전세 1억 5천
- 인천 32평 전세 4700만원
- 시설비 없음
- 서울 80평
-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180만원
- 시설비 약간
- 요충지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지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및 사찰부지 양도하실분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포교당 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사직동 3동
- 평수: 38평
- 전세 1000만원 월세 25만원 권리금 1000만원

051)503-0908
019-291-5558

암자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김천, 상주에서 20분거리
- 대지 120평, 건평 25평
- 임법당1, 주방1, 방2개
- 가액 : 5,300만원 (집기일체포함)

011-462-5275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구시내 포교 최적지
- 2층건물 중 2층
- 건물: 40평(법당 20평)
- 시설: 삼존불, 각단탱화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45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6-640-8133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웅양면 일반주택 사찰임
- 대지: 159평
- 총건평: 25평(요사채 12평)
- 삼존불, 각단탱화
- 보증금 : 7천 5백만원 (답사 후 가격 절충 可)

019-503-7959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금산군 남이면 소재
- 대지 : 110평(전통한옥, 등기필)
- 건물 2동(안채, 사랑채)
- 심야전기 시설이 완비된 아주 깨끗한 전통 한옥
- 스님토굴이나 가족휴양처로 최적으로 장소
- 가액 : 9천만원(가격 절충)

041)753-3766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시내 명산
- 부지 : 500평
- 법당 : 30평(목재)
- 요사 : 100평(3동)
- 양도가 : 5억 5천
- 산세 및 계곡 절경임

- 위치 : 경기도 양평 용문
- 부지 : 500평
- 법당 : 15평
- 요사 : 20평
- 양도가 : 6500만원
- 산세 및 교통 좋음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경산시 질양
- 대지 : 216평
- 각 층 : 30평(총 90평) 1층 공양간, 2층 소불, 옥불 3층 법당
- 특징 : 편도 8차선으로 공단입구 교통편리 아파트 밀집지역
- 가액 : 3억 8천(시설비 포함)

011-829-3455

사찰안내

- 위치 : 부산 포성동 20년된 사찰 시내중심가
- 1층 요사채 방2, 주방 약 20평 2층 법당. 약 18평
- 가액 : 5천(은행융자 3천 별도)
- 집기 일체 양도

018-502-8080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시 상인동 4층 중 2층
- 방 3개 주방1, 화장실 1 총 70평(법당 30평)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 1천 5백만원

011-822-6104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인근섬
- 대지 : 120평, 밭200평
- 법당 : 30평(삼존불,각단탱화)
- 건물 : 요사채 18평(방 4개)
- 특징 : 불심있는 지역임
- 가액 : 1억 7천만원 (답사 후 가액 조정 可)

011-9576-1648
054)832-1648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시장 사거리
- 평수: 50평(3층 건물중 3층)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사 찰 안 내

- 위치: 기장
- 부지: 310평
- 법당: 20평
- 요사채: 30평
- 가액: 1억8천
- 바다가 보이는 아산

- 위치: 부산 근교
- 부지: 2,000평
- 법당 : 30평
- 요사채 : 50평
- 가액: 4억 8천
- 위치 교통양호

- 위치: 경주
- 대지: 400평
- 건물: 30평
- 요사채 : 100평
- 가액 : 8억
- 시내에서 10분거리

부산,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컨설팅 (양도 양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佛國불사 055)383-0023 / 018-563-9575

동면공인중개사 홈페이지 dongmuen.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사찰(불교대학)안내

- 위치 : 인구 60만 대구달서구소재
- 건물 : 3층(70평)법당30평 방 4개
- 특징 : 8차선대로변 지하철역 1분거리(편리한교통)
- 가액 : 보증금 2천5백만원 월 70만원(시설비 : 답사후 상의)

011-9366-8929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수성구 만촌동 도로변
- 4층 건물 중 3~4층 사용
- 평수 : 220평
- 가액 : 보증금 7천만원 월 170만원

053)745-3334
017-501-7369

사찰안내

- 위치 :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 법당 : 20평
- 요사채 : 30평
- 주지실 : 3평
- 주차장 : 200평

051)941-0195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시장 2분거리 버스정류장 근접
- 평수 : 45~50평
- 삼존불,신중탱화,산신,용궁, 큰방2개,베란다,욕실,집기일체
- 전세 : 5천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8422-7772

토 굴 안 내

- 위치 : 강원도 평창 청옥산 자락
- 평수 : 815평 ● 지목 : 임야 ● 건물 : 조립식 주택 40평
- 가액 : 6,400만원
- 특징 : 솔밭 약 200평, 밭 약 400평 마당 및 가옥 약 200평, 해발 700m 경치 수려한, 암자 적지. 세속에 가까우나 세속을 떠난 신선감 넘치는 명당자리

011-9638-4462 / 011-361-0230

사찰안내

- 위치 : 원주(치악산 하)
- 부지 : 880평, 대지 : 150평(합 : 1,030평)
- 법당 : 30평, 삼성각 7평(용왕당)
- 요사채 2동 (30평, 15평) (목조단청)
- 가액 : 3억 8천만원

※ 산자수려하고 치악의 산맥이 뻗어 분출하는 전통사찰입니다

033)731-6612

사찰 터 안내

- 위치 : 충북 괴산군 소수면 소암리
- 면적 : 17,000평
- 계곡 옆 위치
- 도로2차선에서 600m
- 좌청룡우백호, 물1급수
- 절터나 기도처 적합

011-487-306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동래 사직운동장옆
- 4층건물. 35평, 옥상사용가능
- 가액 : 전세 4천(시설비절충)
- 완벽시설. 법회 즉시 가능
- 주지스님 이동으로 급매원

018-622-9865

절터 안내

- 위치 : 경북 구의군 부계면 팔공산(큰계곡)
- 도로 인접 50m
- 평수 : 400평
- 평당 : 45만원
- 총사용 800평 중 (사찰부지 400평, 하천부지 400평 사용)

011-507-1650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 대지 : 110평
- 법당(40평)
- 요사채(1~2층) 60평
- 시설 : 소불 천불 모셔져 있음
- 가액 : 3억 5천만원

011-9853-3843

사찰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온천동
- 총평수 : 37평(지하1층)
- 법당 : 25평, 삼존불, 각단탱화
- 보증금 200만원, 월 12만원 집기 포함 시설비 1500만원

011-9238-9960

암자안내

- 위치 : 서부 경남 (동 진주 I·C 30분거리)
- 면적: 임야 약 5000평중에 등기 900평
- 특징: 산세가 수려하고 물 좋은 20년된 암자
- 가액: 1억5천만원(절충가능)

055)674-7839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창녕
- 대지 : 150평 법당목조 : 12평 요사 벽돌 : 25평
- 가액 : 8500만원

016-652-7547

암자안내

- 위치 : 강릉시 성산면 산북리
- 건물 : 30평 대지 : 109평
- 법당, 방2개, 주방
- 가액 : 4천만원

017-371-2325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장안2동 아파트 밀집지역 (경남호텔뒷편)
- 평수 : 40평
- 가액 : 2천만원에 월 180만원 시설비는 답사 후 결정

016-396-1624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
- 평수 : 대지 48평
- 건물 : 법당 1동, 산신각 1동
- 요사채 1동
- 가액: 삼존불 포함6천만원

041)841-3090
017-337-4168

사찰안내

- 위치 : 대구 북구 소재
- 부지(건물) : 330평
- 법당 : 30평, 공양간 30평 요사채, 부속건물1층완비
- 현재 운영중
- 가액 : 13억(절충가능)

011-817-2889

사찰안내

- 위치: 경남 남해 바닷가(한려수도)
- 평수 : 약 1,000평(대지 516평, 밭 400평) (법당20평, 삼성각10평, 지장단10평, 요사채20평, 기타 : 화장실, 창고)
- 특징 : 인근 골프장과 스포츠 파크 있음
- 가액 : 3억 (한려수도 바닷가에 자리하고 있어 경관이 수려함)

011-627-0290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 평수 : 종교부지 150평 기타 1000평
- 법당 20평, 요사 18평 주지실 5평(황토방)

017-804-3587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 땅 : 1000평(등기상) 과외로 300평
- 법당 : 20평, 요사채 2동 종교부지, 시설완벽
- 몸만 들어오시면 됨
- 가액 : 3억(절충가능)

017-403-662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대병면
- 대지 : 1700평
- 법당 : 30평, 요사채 40평 (방5,주방1,거실,화장실)
- 삼존불 각단탱화
- 특징: 하천댐주변,경관이 수려하고 쾌적한 공기
- 가액 : 3억 3천만원(답사후절충가능)

016-9771-2736

암자안내

- 위치 : 부산 사상구 학장동(대로50m)
- 구조 : 단층 건물 독채(아파트 밀집지)
- 시설 : 법당(석가,관음,지장,후불탱화, 신중탱화,약사불탱화,인등설치,영가단)
- 승방, 거실, 주방, 창고 산신당, 세면장, 수세식 화장실2개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세 15만원 시설비 : 2500만원(즉시법회가능)

011-768-1355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장흥군
- 면적: 임야 대지 포함 11400평
- 법당: 목조 40평
- 요사: 벽돌 110평 1동 창고겸 요사 45평 1동
- 가액: 3억7천만원

011-9457-7060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서울대역 부근
- 평수 : 35평, 삼존불, 탱화
- 즉시법회가능 3층 건물에 3층
- 옥탑사용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는 추후 상담

011-9178-636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덕포 초등학교 앞
- 평수 : 50평
- 삼존불,지장전 모두 갖추어져 있음
- 집기 일체 포함, 법회 즉시 가능함
- 보증금 5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055)303-7477
011-9338-7447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성군 (비슬산 현풍 근교)
- 평수 : 120평(하천부지 500평)
- 건물 : 1층(요사채,큰방4, 목욕탕,창고,부엌(다용도실)
- 법당 : 23평(2층), 큰방
- 특징 : 산세가 수려하고 계곡물이 좋음
- 가액 : 9천 5백만원 (답사 후 가액 절충 可)

010-7163-1961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 주안동 264-5 주안전철역 2분거리
- 건물 7층 중 4층 90평 5층 90평
- 전세 8천만원 6층 건물 45평
- 전세 1천 5백만원 월100만원

011-734-7918

포교당안내

- 위치 : 성남 밀집 주택지역
- 법당, 거실 넓음
- 방1개, 주방, 화장실, 베란다
- 평수 : 45평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70만원
- 시설비 : 후일 지급해도 됩니다

011-678-0807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 부지면적 : 820평
- 법당 : 15평
- 요사채 : 20평
- 가액 : 4억 2천
- 교통편리. 즉시법회가능

011-9975-889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울산 남구 인구멸접지역
- 2층 건물 중 2층(32평)
- 법당 : 15평, 삼존불 각단탱화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포함)

016-640-8133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 대지 150평, 전 435평
- 법당 30평 ●신축사찰
- 가액 : 1억원
- 답사 후 절충가능

033)534-0407
010-9478-1686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 4층 건물에 3층 ●법당 : 30평, 시설일체 완비 삼존불, 탱화, 신중 방1, 주방, 상담실, 샤워장
- 지금 법회중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51-782-9386
011-9852-8386

사찰(급)안내

- 위치 : 인구 60만 대구달서구소재
- 건물 : 3층(70평)법당30평 방 4개
- 특징 : 8차선대로변 지하철역 1분거리(편리한교통)
- 가액 : 보증금 2천5백만원 월 70만원(시설비 : 답사후 상의)

011-9366-8929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수성구 만촌동 도로변
- 4층 건물 중 3~4층 사용
- 평수 : 220평
- 가액 : 보증금 7천만원 월 170만원

053)745-3334
017-501-7369

사찰안내

- 위치 :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 법당 : 20평
- 요사채 : 30평
- 주지실 : 3평
- 주차장 : 200평

051)941-0195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시장 2분거리 버스정류장 근접
- 평수 : 45~50평
- 삼존불,신중탱화,산신,용궁, 큰방2개,베란다,욕실,집기일체
- 전세 : 5천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8422-7772

토 굴 안 내

- 위치 : 강원도 평창 청옥산 자락
- 평수 : 815평 ● 지목 : 임야 ● 건물 : 조립식 주택 40평
- 가액 : 6,400만원
- 특징 : 솔밭 약 200평, 밭 약 400평 마당 및 가옥 약 200평, 해발 700m 경치 수려한, 암자 적지. 세속에 가까우나 세속을 떠난 신선감 넘치는 명당자리

011-9638-4462 / 011-361-0230

사찰안내

- 위치 : 원주(치악산 하)
- 부지 : 880평, 대지 : 150평(합 : 1,030평)
- 법당 : 30평, 삼성각 7평(용왕당)
- 요사채 2동 (30평, 15평) (목조단청)
- 가액 : 3억 8천만원

※ 산자수려하고 치악의 산맥이 뻗어 분출하는 전통사찰입니다

033)731-6612

사찰 터 안내

- 위치 : 충북 괴산군 소수면 소암리
- 면적 : 17,000평
- 계곡 옆 위치
- 도로2차선에서 600m
- 좌청룡우백호, 물1급수
- 절터나 기도처 적합

011-487-306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동래 사직운동장옆
- 4층건물. 35평, 옥상사용가능
- 가액 : 전세 4천(시설비절충)
- 완벽시설. 법회 즉시 가능
- 주지스님 이동으로 급매원

018-622-9865

절터 안내

- 위치 : 경북 구의군 부계면 팔공산(큰계곡)
- 도로 인접 50m
- 평수 : 400평
- 평당 : 45만원
- 총사용 800평 중 (사찰부지 400평, 하천부지 400평 사용)

011-507-1650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 대지 : 110평
- 법당(40평)
- 요사채(1~2층) 60평
- 시설 : 소불 천불 모셔져 있음
- 가액 : 3억 5천만원

011-9853-3843

사찰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온천동
- 총평수 : 37평(지하1층)
- 법당 : 25평, 삼존불, 각단탱화
- 보증금 200만원, 월 12만원 집기 포함 시설비 1500만원

011-9238-9960

암자안내

- 위치 : 서부 경남 (동 진주 I·C 30분거리)
- 면적: 임야 약 5000평중에 등기 900평
- 특징: 산세가 수려하고 물 좋은 20년된 암자
- 가액: 1억5천만원(절충가능)

055)674-7839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창녕
- 대지 : 150평 법당목조 : 12평 요사 벽돌 : 25평
- 가액 : 8500만원

016-652-7547

암자안내

- 위치 : 강릉시 성산면 산북리
- 건물 : 30평 대지 : 109평
- 법당, 방2개, 주방
- 가액 : 4천만원

017-371-2325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장안2동 아파트 밀집지역 (경남호텔뒷편)
- 평수 : 40평
- 가액 : 2천만원에 월 180만원 시설비는 답사 후 결정

016-396-1624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
- 평수 : 대지 48평
- 건물 : 법당 1동, 산신각 1동
- 요사채 1동
- 가액: 삼존불 포함6천만원

041)841-3090
017-337-4168

사찰안내

- 위치 : 대구 북구 소재
- 부지(건물) : 330평
- 법당 : 30평, 공양간 30평 요사채, 부속건물1층완비
- 현재 운영중
- 가액 : 13억(절충가능)

011-817-2889

사찰안내

- 위치: 경남 남해 바닷가(한려수도)
- 평수 : 약 1,000평(대지 516평, 밭 400평) (법당20평, 삼성각10평, 지장단10평, 요사채20평, 기타 : 화장실, 창고)
- 특징 : 인근 골프장과 스포츠 파크 있음
- 가액 : 3억 (한려수도 바닷가에 자리하고 있어 경관이 수려함)

011-627-0290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 평수 : 종교부지 150평 기타 1000평
- 법당 20평, 요사 18평 주지실 5평(황토방)

017-804-3587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 땅 : 1000평(등기상) 과외로 300평
- 법당 : 20평, 요사채 2동 종교부지, 시설완벽
- 몸만 들어오시면 됨
- 가액 : 3억(절충가능)

017-403-662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대병면
- 대지 : 1700평
- 법당 : 30평, 요사채 40평 (방5,주방1,거실,화장실)
- 삼존불 각단탱화
- 특징: 하천댐주변,경관이 수려하고 쾌적한 공기
- 가액 : 3억 3천만원(답사후절충가능)

016-9771-2736

암자안내

- 위치 : 부산 사상구 학장동(대로50m)
- 구조 : 단층 건물 독채(아파트 밀집지)
- 시설 : 법당(석가,관음,지장,후불탱화, 신중탱화,약사불탱화,인등설치,영가단)
- 승방, 거실, 주방, 창고 산신당, 세면장, 수세식 화장실2개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세 15만원 시설비 : 2500만원(즉시법회가능)

011-768-1355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장흥군
- 면적: 임야 대지 포함 11400평
- 법당: 목조 40평
- 요사: 벽돌 110평 1동 창고겸 요사 45평 1동
- 가액: 3억7천만원

011-9457-7060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서울대역 부근
- 평수 : 35평, 삼존불, 탱화
- 즉시법회가능 3층 건물에 3층
- 옥탑사용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는 추후 상담

011-9178-636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덕포 초등학교 앞
- 평수 : 50평
- 삼존불,지장전 모두 갖추어져 있음
- 집기 일체 포함, 법회 즉시 가능함
- 보증금 5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055)303-7477
011-9338-7447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성군 (비슬산 현풍 근교)
- 평수 : 120평(하천부지 500평)
- 건물 : 1층(요사채,큰방4, 목욕탕,창고,부엌(다용도실)
- 법당 : 23평(2층), 큰방
- 특징 : 산세가 수려하고 계곡물이 좋음
- 가액 : 9천 5백만원 (답사 후 가액 절충 可)

010-7163-1961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 주안동 264-5 주안전철역 2분거리
- 건물 7층 중 4층 90평 5층 90평
- 전세 8천만원 6층 건물 45평
- 전세 1천 5백만원 월100만원

011-734-7918

포교당안내

- 위치 : 성남 밀집 주택지역
- 법당, 거실 넓음
- 방1개, 주방, 화장실, 베란다
- 평수 : 45평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70만원
- 시설비 : 후일 지급해도 됩니다

011-678-0807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 부지면적 : 820평
- 법당 : 15평
- 요사채 : 20평
- 가액 : 4억 2천
- 교통편리. 즉시법회가능

011-9975-889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울산 남구 인구멸접지역
- 2층 건물 중 2층(32평)
- 법당 : 15평, 삼존불 각단탱화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포함)

016-640-8133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 대지 150평, 전 435평
- 법당 30평 ●신축사찰
- 가액 : 1억원
- 답사 후 절충가능

033)534-0407
010-9478-1686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 4층 건물에 3층 ●법당 : 30평, 시설일체 완비 삼존불, 탱화, 신중 방1, 주방, 상담실, 샤워장
- 지금 법회중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51-782-9386
011-9852-838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
- 대지: 200평(주차장 600평) 총 800평
- 공터: 400평
- 건축: 법당(고려시대 부처님상 아미타), 요사채, 방. 총 46평
- 가액: 3억 5천(답사후절충가능) (융자 6500만원포함)

011-9378-5637

포교원안내

- 위치 : 인천 부평구 부개1동 부개역 5분거리
- 평수 : 48평(건물 2층내) 법당1, 방2개, 후원1개 대중방 포함
- 주차 : 도로상 일렬주차
- 전세 : 5000만원, 시설비 : 2800만원 (삼존불, 영단, 복사기, 팩스 etc 집기류 일체)
- 불법홍포와 신심있는 분들을 위해 바로 운영 가능함

017)269-2629
032)517-3001

토굴안내

- 경북 선산 IC에서 10분거리에 있는 산속 남향 현대식 토굴입니다
- 포행로 좋고 , 주변 울창한 대숲 , 정면에 금오산이 보이는 조용하고, 편안한 곳입니다
- 대지 : 140평, 건평 : 24평(2동)
- 살던 그대로 인계함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격 : 5천만원

010-9469-3380

사찰안내

- 위치 : 대구시에서 5분거리 위치만점 아파트 밀집 고속도로 IC인접
- 대지: 135평, 법당 20평
- 요사 40평, 방 5개 사무실
- 신개발지 시내버스종점 교통편리. 텃밭있음
- 삼존불 봉안 화장실 3개 창고
- 가액: 2억5천만원(융자가능)

011-825-1662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
- 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7천만원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55)323-2858
011-9542-572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암사동 상가주택 역세권
- 평수 : 약20평, 큰방2, 주방1
- 삼존불, 108 지장 소불
- 가액 : 보증금, 시설비 합 1천 8백만원 포교원 확장이사로 싸게 매매함
- 철학관 하실분 환영. 약간의 보시금으로 평생 절에서 함께 사실분 불사 운영할분 포교원 확장이사 불사중

016-261-2068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성군 (비슬산 현풍 근교)
- 평수 : 120평(하천부지 500평)
- 건물 : 1층(요사채,큰방4, 목욕탕,창고,부엌(다용도실)
- 법당 : 23평(2층), 큰방
- 특징 : 산세가 수려하고 계곡물이 좋음
- 가액 : 9천 5백만원 (답사 후 가액 절충 可)

010-7163-1961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 주안동 264-5 주안전철역 2분거리
- 건물 7층 중 4층 90평 5층 90평
- 전세 8천만원 6층 건물 45평
- 전세 1천 5백만원 월100만원

011-734-7918

포교당안내

- 위치 : 성남 밀집 주택지역
- 법당, 거실 넓음
- 방1개, 주방, 화장실, 베란다
- 평수 : 45평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70만원
- 시설비 : 후일 지급해도 됩니다

011-678-0807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 부지면적 : 820평
- 법당 : 15평
- 요사채 : 20평
- 가액 : 4억 2천
- 교통편리. 즉시법회가능

011-9975-889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울산 남구 인구멸접지역
- 2층 건물 중 2층(32평)
- 법당 : 15평, 삼존불 각단탱화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포함)

016-640-8133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 대지 150평, 전 435평
- 법당 30평 ●신축사찰
- 가액 : 1억원
- 답사 후 절충가능

033)534-0407
010-9478-1686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 4층 건물에 3층 ●법당 : 30평, 시설일체 완비 삼존불, 탱화, 신중 방1, 주방, 상담실, 샤워장
- 지금 법회중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51-782-9386
011-9852-8386

포교당(급)안내

- 위치: 부산 주례동
- 평수 45평, 3층건물 2층
- 큰법당 1칸, 방 2칸, 입식 부엌 및 화장실
- 법당에 삼존불 및 후불탱화 지장불 및 지장탱화, 신중탱화, 산신불 및 산신탱화, 용왕불 및 용왕탱화 영가단 설치
- 전세 5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모든집기 포함) 1500만원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함
- 타지역 이사 관계로 급히 연락바람

051)327-0477
019-556-6047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
- 대지: 200평(주차장 600평) 총 800평
- 공터: 400평
- 건축: 법당(고려시대 부처님상 아미타), 요사채, 방. 총 46평
- 가액: 3억 5천(답사후절충가능) (융자 6500만원포함)

011-9378-5637

포교원안내

- 위치 : 인천 부평구 부개1동 부개역 5분거리
- 평수 : 48평(건물 2층내) 법당1, 방2개, 후원1개 대중방 포함
- 주차 : 도로상 일렬주차
- 전세 : 5000만원, 시설비 : 2800만원 (삼존불, 영단, 복사기, 팩스 etc 집기류 일체)
- 불법홍포와 신심있는 분들을 위해 바로 운영 가능함

017)269-2629
032)517-3001

토굴안내

- 경북 선산 IC에서 10분거리에 있는 산속 남향 현대식 토굴입니다
- 포행로 좋고 , 주변 울창한 대숲 , 정면에 금오산이 보이는 조용하고, 편안한 곳입니다
- 대지 : 140평, 건평 : 24평(2동)
- 살던 그대로 인계함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격 : 5천만원

010-9469-3380

사찰안내

- 위치 : 대구시에서 5분거리 위치만점 아파트 밀집 고속도로 IC인접
- 대지: 135평, 법당 20평
- 요사 40평, 방 5개 사무실
- 신개발지 시내버스종점 교통편리. 텃밭있음
- 삼존불 봉안 화장실 3개 창고
- 가액: 2억5천만원(융자가능)

011-825-1662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
- 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7천만원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55)323-2858
011-9542-572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암사동 상가주택 역세권
- 평수 : 약20평, 큰방2, 주방1
- 삼존불, 108 지장 소불
- 가액 : 보증금, 시설비 합 1천 8백만원 포교원 확장이사로 싸게 매매함
- 철학관 하실분 환영. 약간의 보시금으로 평생 절에서 함께 사실분 불사 운영할분 포교원 확장이사 불사중

016-261-2068

복권기금 성보박물관에 '숨통'

월정사 · 수덕사 등 특별전 … 도록편찬 · 전산화 작업도

'로또기금' 36억 사립박물관 지원 … "지속 필요"

월정사성보박물관의 '유물로 보는 오대산 문수신앙' 전(10월 8일~12월 5일)을 시작으로 수덕사근역성보관의 '지심귀명례-한국의 불복장' 전(11월 12일~12월 12일), 직지사성보박물관의 '경북의 금석문' 전(12월 1일~26일) 등 성보박물관의 특별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특별전 공통점은 올해 처음 조성된 로또 복권 기금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유물 수집 관리 및 일반인 교육 등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운영 부담을 사찰에만 전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보박물관에 대한 정부의 첫 지원이라는 점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하지만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원 분야 제한 등 경직된 규정이 재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 성보박물관에 대한 지원은 성보박물관이 속해 있는 한국박물관협회(회장 김종규 · 이하 협회)의 '2004년도 사립박물관(미술관)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졌다. 여기에 책정된 기금 규모는 약 36억원. 협회는 △특별기획전시 △상설기획전시 보강(전시설명문 보강 따위) △사이버전시 △사회교육프로그램 지원 △도록발간 △수장고 보강(유물 정리 및 소독 따위) 등 6개 대상사업 분야를 정하고 지난 8월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총 90여개 사립박물관(미술관)에 대해 175건의 사업 지원을 결정했다.

월정사성보박물관, 수덕사근역성보관, 직지성보박물관, 대원사티벳박물관, 명주사고판화박물관 등은 특별전 분야로, 선암사성보박물관 등은 사이버전시 분야로 지원을 받았다. 또 송광사성보박물관의 '전시유물도록 제작', 통도사성보박물관의 '유물 전산화 및 소독' 등도 지원됐다. 특별전 지원 경우 전시 규모에 따라 2천만원에서 4천만원 범위에서 차등 책정됐다.

이 같은 복금기금 활용에 대해 불교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원을 받아 11월 21일부터 12월 28일까지의 일정으로 '나무-붓, 칼, 종이의 만남-한국고판화의 세계'를 개최할 예정인 치악산 명주사고판화박물관장 선학 스님은 "사립박물관은 재정문제로 특별전을 갖지 못하고 상설전시만 하는 곳이 허다하다"며 "이번 지원으로 박물관들이 활력을 얻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복권기금이 성보박물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운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첫째 현행과 같이 일회성 사업에 국한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금년 지원 사업에서는 6개 분야에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지원금이 확대돼야 한다는 점이다. 지원 사례를 보면, 특별전을 치르는 데 필요한 경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장은 "지원 금액이 모든 소요경비를 충당하는 데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보박물관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불교문화가 확산되는 촉매제로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복권기금을 유지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중이다"고 말했다.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복제품) 앞에 모셔진 복장사리를 친견하고 있는 관람객들. 월정사 성보박물관 특별전은 12월 5일까지 계속된다. 사진제공=월정사 성보박물관

한편 이번 지원을 계기로 사립박물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본격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심주완 주임은 "복권기금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박물관 운영 전반에 대해 적극 지원하는 구조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유식학 자아이론, 동기유발 통합이론 바탕 가능"

송운석 교수 '불교의 제8식…' 통해 주장

어떻게 하면 조직원의 동기를 유발시켜 생산성을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을까? 조직 관리자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고민이다. 이와 관련돼 발전해온 것이 동기유발이론. 인간행태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경영학, 행정학 분야의 주요 영역이다. 이처럼 불교와는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동기유발이론을 유식학의 자아이론에 기초해 새롭게 정립하려는 시도가 이뤄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송운석 단국대 교수(행정학 · 사진)는 11월 13일 불교학연구회(회장 이중표)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불교의 8식설을 통한 동기유발 통합이론 개발 가능성'을 통해 "기존 동기유발이론들은 동기유발의 일부분은 잘 설명하지만, 다른 부분과의 상호작용 및 관계는 설명하지 못해 많은 이들이 통합이론 개발을 시도했으나 이론의 토대가 되는 서구적 자아 개념의 한계로 인해 번번이 실패했다"며 "유식학의 자아이론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8식설로 대표되는 유식학의 자아이론이 "인간 의식작용 및 행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므로 리더십 보상체계, 개인의 생래적 특성, 이익 추구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나는 역동적인 동기유발과정 설명에 적합할 뿐 아니라 서구적 자아 개념들을 모두 포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견지에서 송 교수는 8식설에 기초한 동기유발순환모형을 구성, 새로운 동기유발통합이론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제8식은 경험과 생래적 특성을 토대로 형성되는 개인의 욕구체계가 되고, 제7식은 제8식에서 생겨나는 충동을 자신의 생존과 발전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며, 제6식은 제5식을 통해 받아들인 외부자극들을 제7 · 8식의 작용들과 통합해서 개념화하고 행동으로 전화시킨다. 또 그 결과는 제8식에 축적돼 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련의 과정이 순환적이며 복합적인 구조를 이룬다.

송 교수는 8식설에 기초한 자아개념을 적용한 이 같은 모형이 "동기유발과정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고 시간성을 토대로 한 순환적 변화과정으로 보는 데 도움 될 것이다"며 "이를 통해 인간 행위를 설명하고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유용한 이론 개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익순 기자

인도철학회 11월 26일 보조사상연구원 27일

추계학술대회 개최

인도철학회(회장 김선근)와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의 학술발표회가 11월 26일과 27일 각각 열린다.

'간화선 수용과 한국 간화선의 정체성'을 주제로 법련사 3층에서 열리는 보조사상연구원 16차 정기학술대회에서는 법산 스님(동국대 교수)의 '간화선 수용과 한국 간화선의 특징', 인경 스님(명상상담연구원 원장)의 '간화선과 돈점문제', 성본 스님(동국대 교수)의 '수선사의 간화선 사상'이 발표된다. 02)733-5311 www.bojosasang.org

'티베트, 문화와 불교'를 주제로 동국대 다향관에서 개최되는 19회 인도철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로상중네 스님(길상사)의 '어떻게 티베트불교가 확산될 수 있었는가', 안성두 박사(금강대 전임연구원)의 '티베트불교에서 마음의 문제', 김한규 서강대 강사(사학과)의 '불국과 제국, 티베트와 중국의 역사적 관계를 통해본 티베트 역사 공동체의 정체성'이 발표된다. (02)2260-3130 www.ksip.org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54>

소리는 보고 모습은 듣는다

생물은 환경에 적응하여 변화해오면서 여러 감각 중에 특히 시각(視覺)과 청각(聽覺)을 발달시켜 지각 범위를 넓혀왔고, 이에 수반되는 넓은 운동범위를 가지게 됐다. 이 같은 현상은 진화를 통한 신체 변화뿐만 아니라 인식능력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인간만 보더라도 무선 통신을 개발하고 현미경이나 망원경 등을 만들어 지각능력의 한계를 넓힘으로서 지금의 문명을 이룩해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대상을 지각하여 인식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거나 안다고 말하는 것은 지각되는 그 대상을 이미 예전부터 자신이 기억하고 있던 경험이라는 틀 속에 집어넣어 서로 비교하고 맞추어 봄으로서 지금 본 것의 모양을 이해하고 납득하며 받아들이는 것이다. 납득한다는 것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한다는 말과 같다.

이처럼 대상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은 대상을 보는 순간 우리 뇌 속에서는 대상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기억(業)으로 정리하고 변형시키는 것(attention preference)을 말한다. 이런 맥락에서 대상에 대한 지식세계란 결국 자신의 기억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작은 세계를 자신의 틀로서 계속 강화해 가는 것(self-organization)에 불과하다. 이것은 모든 생물체의 감각기관이 가진 특성이자 한계이기도 하다.

시각과 더불어 대표적인 감각 중의 하나인 청각에 의존하는 언어는 우리가 자신을 표현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대표적 수단이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할 수 있었기에 지금의 인류문명을 만들어 냈다. 우리는 말을 들을 때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 말뜻을 머릿속에서 정리하게 된다. 이것은 시각처럼 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을 듣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말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말을 들어보자'는 표현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의미의 공유가 생물체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에 의미를 부여하여 받아들이는 것이기에 사람이나 동물은 자신들이 만든 의미체계 속에 갇히게 된다.

선사들의 깨달음을 얻은 이야기를 보면 그 계기가 다양하다. 할이나 방 이외에도 촛불을 끄거나 시냇물에 팔이 흔들리는 것을 보는 등의 시각적 상황도 있고, 닭 울음소리, 기왓장 부딪히는 소리처럼 청각에 의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의미를 지닌 형태와 소리로서 받아들였다면 그냥 '어, 어두워졌네' 아니면 '닭이 우는구나' 했을 것이지만 상(相)이 더 이상의 길들여진 상이 아님을 알아 무르익은 상태에서는 전혀 의미가 부여되지 않고 순수한 그 한자리에서 보고 듣게 되어 일을 마치게 된다.

관세음보살님도 소리를 관하지 듣는 것이 아니기에 무릇 불자라면 눈에 보고 듣는 것에 현혹되어 울고 웃지 말고 세상 모습과 소리의 본래면목을 보아 자신의 본면목을 찾도록 해야 한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말 듣는 순간 머리 속에는 말뜻 정리

스스로 만든 의미체계에 갇히는 것



그림 : 문병성

수행하시는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氣와 사랑의 약손 교습 안내

- 서울시 사라져가는 전통문화 대상선정!

기공 · 호흡 · 운동요법 · 물리요법 · 자극요법 · 자세동작교정요법 · 정신심리요법 · 명상요법 그리고 기치유와 경락경혈요법 등의 요소를 모두 포함한 종합적인 건강관리법입니다.

수행하시는 스님과 불자님들의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 개별적인 특징에 맞추어 관리하여 드리며 약손요법을 배워 주변에 봉사하시고자 하시는 경우에 집중적으로 개별 전수를 해 드립니다.

기와 사랑의 약손 042-472-1881

전통양생법을 통한 건강 지키기

중국무술내가권(태극권, 형의권, 팔괘장)연구소

▷ 중국전통기공법 · 중국무술내가권
체력단련, 자세교정, 집중력강화, 자기조절, 각종 성인병 및 난치병 예방

▷ 벽곡 법(전통도가식 단식)
- 체질개선, 내장기능 증가 (필히 공력이 높은 선생으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별 특성, 목적에 맞는 공법지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19 메트로존 604호 (시청 맞은편)
상담전화 : 042-471-1882

제2회 침구교육사 자격 취득 교육생 모집

◆ 교육목적 및 과정 ◆

평소 침구학에 관심이 많은 의료계종사자 및 재야 침구인들은 그동안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0여년간 제도운영이 미흡하여 실질적인 교육원을 개설할 수 조차 없는 실정을 감안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국내 최초로 평생교육침술원을 개설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유능한 교육생을 배출함은 물론 침구교육사 양성제도를 확충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1. 침구교육사 과정

모집분야	모집인원	지 원 자 격	수업시간
6개월과정 (2학기)	50명	자격기본법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자로서 1. 해당분야 3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침구분야 종사자 2. 해당분야 국내외 사회교육원 및 교육학원에서 2년이상 교육이수자 3. 기타 위사항에 준하는 전문성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야 침구인	매주 1회 토요반 오전 9시~ 오후 6시
1년과정 (4학기)	50명	상기와 같이 결격사유가 없는자로서 1.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케어복지사, 일반인 및 건강분야에 자격이 있는자 2. 기타 건강관리에 관심있는 일반성인 3. 대체의학분야 종사자	

2. 교육과정
• 한(중)의학기초이론, 해부생리학 • 침술내과학, 외과학, 위생법, 경혈학, 한방진단학, 침구처방학
• 대체의학관련과목 다수 • 사상의학(체질의학), 교육학개론 • 실기교육

3. 접수문의 • 02)393-5111(代) 서울 서대문 본교육원 교무처

4. 신청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 사진(3×4) 5매 • 이력서 • 각종자격증사본 • 주민등록등본

◇ 특 전 : 교육이수후 자격검정 합격자는 평생교육침술원을 개원할 수 있음
• 국내최초로 평생교육침술원을 개설할 수 있는 제도로 교육을 실시하오니 재야 침술에 전문인은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원을 졸업후 중국연변대학교 증의학(한의학)과에 편입학 가능 • 본 과정을 졸업한후 외국대학(대체의학 및 한의학)편입학 가능
• 본 과정을 이수한후 개원설립시는 특별혜택 부여

■ 오시는 교통편 ※지하철 - 5호선 서대문역 1번출구 나와 1미터 조흥빌딩 5층 ※버스 - 137번, 서대문 로터리 하차 충정로우체국 옆

문교부허가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침구교육원
우)120-012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조흥은행 5층
TEL. 02)393-5111(代) FAX . 02)312-5404

일 주 문



취운선원 동안거 동참자 모집

영축총림 통도사 취운선원장 청운 스님은 불기 2548년 11월 26일부터 시작되는 동안거 결제에 참가할 남녀 대중을 모집하고 있다. (055)383-6479



과거사 진상규명위원 위촉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의장 효림 스님이 11월 2일 국정원 산하 '과거사 진상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도선사 33인 고승대덕 초청 법회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7관세음 33일 기도 및 33인 고승 대덕 초청 회향 대법회를 11월 22일 봉행한다. (02)993-3161



능인선원 백만불 봉안법회

능인선원 주지 지광 스님은 개원 20주년 기념, 정규 불교대학 건립을 위한 백만불 봉안 대법회를 11월 27일 잠실 체육관에서 봉행한다.(02)577-5800



제1회 문화환경교실 개최

송광사 서울포교원 법련사 주지 보경 스님은 11월 21일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천수만 일대를 답사하는 '제1회 문화환경교실'을 마련했다. (02)733-5367



청화 스님 열반 1주기 추모재

전남 곡성 성륜사 주지 도일 스님은 11월 21일 오전 11시 성륜사 법성당에서 '무주당 청화대종사 열반 1주기 추모재'를 봉행한다. (061)363-0081



팔공산 사리사 산사음악회

대구 사리사 주지 덕운 스님은 11월 21일 오전 10시 팔공산 이전 기념 100일 기도법회를 봉행 후 제1회 사리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053)986-4240



33인 큰스님 초청 대설법회

대구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은 11월 29일~12월 31일 매일 오전 11시 33인 큰스님 초청 법화경 대설법회를 개최한다.(053)766-3747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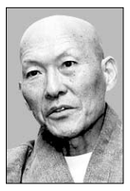
서울 무애원 주지 경선 스님은 최근 (사)한국미술협회가 주최한 제23회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한국화 '새벽산길'로 입상했다.



동국대 경주캠 불문원 총동문회장

前 부산불교신도회장 강선태 씨는 11월 1일 부산 농심호텔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동국대 경주캠 불교문화대학원 총동문회장으로 선출됐다.

개인 부문 법정 스님
김연호 씨
단체 부문 고려대장경연구소
특 별 상 윤청광 씨
이재달 씨


법정 스님


김연호 씨


윤청광 씨


이재달 씨

제2회 대원상 수상자 선정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이 제정한 대원상 개인부문에 법정 스님(前 길상사 회주)과 김연호(제천 진주동물병원장) 씨가 단체부문에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가 선정됐다. 또 윤청광(불교극작가) 이재달(대광맹인불자회 회장) 씨가 특별상에 선정됐다.

제 2회 대원상 개인부문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각 1천만원, 단체부문은 상패와 상금 1천500만원, 특별상에는 상패와 상금 각 500만원이 수여된다. 대원상 시상식은 11월 19일 오후 2시 다보빌딩 3층 법당.

승가부문 수상자 법정 스님은 (사)맑고 향기롭게를 창립했으며, <산에는 꽃이 피네> <무소유>등 20여종의 서적을 발간해 불교의 대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재가부문에 선정된 김연호 씨는 1973년부터 제천지역에 청년회, 학생회, 어머니회, 승려연합회, 거사림회, 우리는 선우 등을 창립했다.

단체부문에 선정된 대장경연구소는 1995년 <금강경 전산화본>을 발표한 이후 1996년 고려대장경 전산입력작업을 완료했다. 2000년 12월 <고려대장경 전산화본>을 발표하여 인터넷을 통해 고려대장경을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게 했다.

특별상을 수상한 윤청광 씨는 방송작가와 출판인으로 불교방송 <고승열전> 전 24권을 집필하는 등 불교를 알리는 역할에 헌신한 것이 인정됐다.

이재달 씨는 23세에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중도 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대광맹인불자회를 설립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재활과 복지에 전념한 공로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신행과 복지 일관성 있게 실천"

'복지법인 효림원' 설립

무구 스님



"막상 법인인가를 받고나니 어깨가 무겁습니다. 불자들의 후원을 사회로 회향하는 것이 불법을 지키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서울 수효사 내에 효림원을 설립, 지난 10월 말 서울시로부터 복지법인 인가를 받은 수효사 주지 무구 스님(사진). 수효복지대학 운영, 대구 불교복지대학 강의, 지역 독거노인 돕기, 군부대 지원, 남양주 백천사에 개설한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 활동까지 스님의 일주일은 '복지'일정으로 꽉 찼다.

"이것저것 하다보니 좀 더 체계적으로 활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구 스님의 강의를 듣고 뜻을 이어받은 수효복지대학 케어복지과 졸업생들도 매달 스님과 함께 '독거노인 반찬 나누기', '전통음식 대접하기' 등의 정기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스님은 "강좌를 수강하고 나면 학생들의 반 이상이 복지활동에 동참 한다"며 "졸업생들의 행로가 복지활동으로 이어질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법인시설 설립을 시작으로 올 12월에는 수효사를 지상 8층 신축 건물로 이전할 계획이다.

스님은 20년 넘게 쌓아온 복지 원력의 결정체인 사회복지법인 효림원과 신축 건물을 "갈 곳 없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휴식처로 만들겠다"며 "계속해서 복지 사업에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강진 기자

"온·오프라인에 젊은 공간 만들터"

지암불교문화재단 청년문화원 박준탁 국장



"불자들이 마음껏 이용하면서 신심을 닦을 수 있는 온-오프라인 터전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강원도 평창 지암정사(주지 성담) 개원 1주년에 맞춰 문을 연 지암불교문화재단 불교청년문화원 박준탁 기획국장(사진)은 불교청년문화원 개설의 '일등공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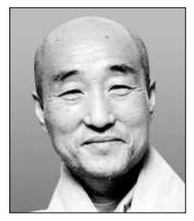
현재 박 씨의 구상은 청년 불자들을 위한 공간 마련과 불자 인드라망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를 위해, 최근 재단이 인수한 지암정사 인근 폐교를 '유스호스텔'과 같은 건물로 조성해 불자들에게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사찰에 컴퓨터를 보급과 홈페이지를 제작, 관리를 통해 사찰과 불자간의 연결이 용이하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해 놓았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장학재단 설립·화합에 진력"

해인사승가대 총동문회장 일면 스님



"여러 선배님들에게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11월 10일 해인승가대학 총동문회장으로 추대된 일면 스님(9기 · 사진). 해인승가대학 총동문회는 12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가산불교문화원장 지관 스님(1기), 남양주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1기), 법정 스님(서울 길상사 · 2기), 중앙종회의장 법등 스님(10기) 등도 해인승가대학 출신이다.

"해인승가대 활성화를 위해 올해 장학재단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또 재학생 뿐 아니라 졸업생이나 해외유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일면 스님은 해인승가대 후배인 현 주지 현응 스님(16기)과 더불어 해인사 발전을 위해 동문 화합에도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레디메이드' 보살, 불성 찾는 로봇이야기

제1회 과학기술창작문예대상 박성환 씨



"소설 '레디메이드 보살'은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지만 본질적으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불교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아 사이언스 주최 2004년 제1회 과학기술창작문예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단편소설 '레디메이드 보살'의 작가 박성환(사진) 씨는 11월 10일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자신의 소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의 소설 '레디메이드 보살'은 사찰에서 일하던 로봇 '인명'이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렸다. '로봇도 깨달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고, 그 와중에 권력층은 로봇의 깨달음을 은폐하려는 한다는 내용이다.

그의 소설 속에서 인간과 로봇은 둘 다 '불성'을 가진 존재다.

"조주 선사가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라고 화두를 던졌듯이, 불교에서는 인간 자체를 다른 존재와 동등한 입장에 놓고 봅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심으로 출발하는 불교는 '인간'에 대해 탐구하는 과학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줍니다."

불교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자주 사찰에 드나들었던 박 씨는 경전 중에서는 특히 <반야심경>이 감명 깊었다고 말했다. 소설 마지막 장면에서도 박 씨는 로봇 부처인 '인명'의 입을 빌어 '모든 것은 공(空)하다'는 <반야심경>의 핵심을 풀어 썼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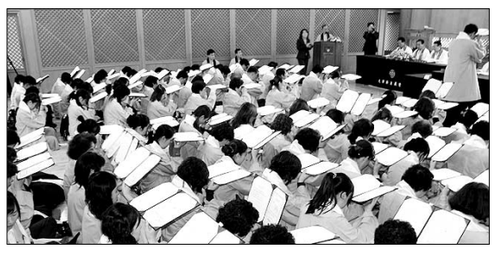
대구불교방송 사장 법조 스님 취임식



대구불교방송 3대 사장 법조 스님 취임식이 11월 8일 대구동구문화체육회관 리셉션장에서 열렸다.

이날 취임식에서 법조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불교방송의 가청권 확대와 다양한 수익사업 개발로 안정적 경영을 이룰 것"이라고 다짐했다.

진각종 보살십선계 수계법회



진각종(통리원장 효암)은 11월 8~9일 삼매야계단이 설치돼 있는 서울 탑주심인당과 대구 희락심인당에서 각각 보살십선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수계법회는 2년 이상 불사에 동참하고 7일간 습의불공을 마친 진언행자 5백여 명이 참가했다.

대불광 이전

대불광이 작은마음으로 문을열어 10여년이 지났습니다.
여러 제방스님 불자님들의 관심과 은덕에 힘을 입어
새로운 전시 공간을 마련하여 개관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일일이 전해야 하지만 우선 지면으로
인사 여쭈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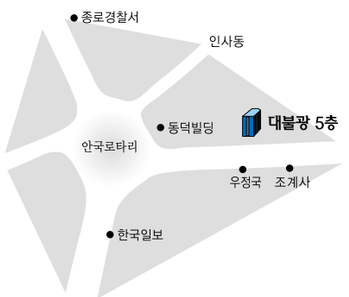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2004년 11월 대불광 대표 허길량

마음을 다하여 초대의 글을 올립니다.

개 관 안 내

일 시 : 2004년 11월 18일 오후 5시
장 소 : 대불광빌딩 5층 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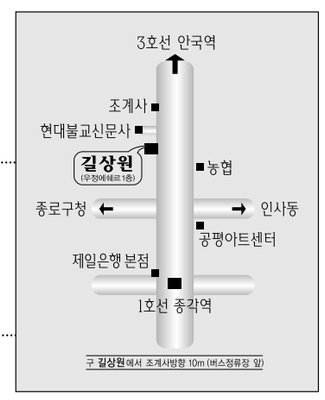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74-8 대불광빌딩 5F 전시관 02)738-1117

길상원 이전

삼보 귀의 하옵니다.
길상원은 제방스님, 불자님들 덕분에 성장 발전하여 이제 새로운 공간을 마련 이전합니다.
조촐하게 이전식을 갖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길상원 차재욱 보현심 합장

● 일 시 : 2004년 11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
● 장 소 : 길 상 원 Tel. 02)722-4435





불자 세상보기

이 우 상
소설가 · 대진대 문창과 겸임교수

무릎 꿇은 일본왕

출근길, 승용차 FM 라디오에서 낯익은 가락이 들린다. 외국 노래여서 가사는 알 수 없지만 콧노래로 따라 부른다. 그것을 번안한 노래말이 지금도 자욱한 최루탄 냄새와 함께 기억의 창고에 저장되어 있다. "우리들은 정의파다. 훌라~훌라~. 무릎을 꿇고서 사느니보다 서서 죽기를 원한단다. 우~리~들은 정의파다." 어둡고 우울한 흑백필름 시대의 추억이다.

한국인의 의식 구조 속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최후의 선택이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치욕의 끝이다. 병자호란 때 인조 임금이 청나라 태종 앞에서 보인 삼전도의 굴욕, 명분과 목숨을 바꾼 삼학사의 절개가 시퍼렇게 유전되고 있다. 가락을 흥얼거리면서 지난 11월 8일자 신문에 소개된 무릎 꿇은 일왕(日王)의 사진이 추억의 스크린에 겹쳐진다.

아키히토(明仁) 일본 왕이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니카타현을 찾아 피난민 숙소에서 무릎을 꿇고 난민들을 위로하는 모습이 전세계에 소개되었다. 신적인 존재로 여기는 '천황'이 필부들 앞에서 보인 행동이니 그 파급효과는 절대적이다. 재난을 당한 난민들의 고통과 아픔이 한방에 날아갈만한 외경스러운 정경이다. 고통보다 괴로운 것은 무관심과 외면이다. 공허한 말재주로 사태를 무마시키려는 행태는 분노와 증오를 증폭시킨다.

사실 일본인들에게 무릎을 꿇는 행위는 일상사이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과 속내가 다른 것이 일본인의 속성이다. 일왕은 일본인들이 만든 상징물이다. 상징을 통해 서로 이익과 질서를 얻어낸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상징화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을까. 권력과 제도도 상징물에 불과하다. 따라서 일왕이 보여준 행동은 일상사가 아니다. 술수와 쇼도 아니다. 불교적 시각으로 본다면 하심(下心)의 실천이다.

시(詩)를 쓰는 어느 선배가 청년 시절에 겪은 일화가 생각난다. 비 오는 날, 평소 은사로 모시는 원로 시조시인을 만났다가 헤어질 때, 노시인은 한사코 우산을 청년에게 건네주며 "자네는 훌륭한 시를 쓸 젊은이네. 비를 맞게 할 수는 없네. 나는 훌륭한 시인을 키운 스승이라는 기쁨을 누릴 것이네". 노스승은 청년 시인에게 우산을 건네주고 당신은 비를 맞으며 갔다고 한다. 그 은혜에 보답코자 선배는 형형한 눈빛을 잃지 않고 시를 쓰고 있다.

자신을 낮추는 일은 어렵다. 알음알이와 지위와 아상이 그것을 가로막는다. 창처럼 날을 벼려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라고 강요한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은 타도의 대상이라고 부추긴다.

가을에 벼들은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 다투어 머리를 숙여 온 들판을 보면 마치 좌선삼매에 든 선객들을 보는 듯 하다. 알이 토실토실한 놈일수록 햇빛을 이웃에게 양보하며 깊숙이 머리를 숙인다. 게중에 드문드문 섞여있는 쭉정이들은 겨울이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고개를 쳐들고 있다. 농부는 일단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벼를 벤다. 그러나 창고에 쌓이고 밥상에 올라 한껏 윤기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염없이 고개를 숙였던 알곡들이다.

힘든 일을 겪을 때 진정으로 다가와 손을 잡고 위로를 베푸는 지도자가 그립다. 고통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든 세상일의 대부분은 지도자, 가진 자, 아는 자, 어른된 자의 책임이다.

'네탓이오'에만 열을 올리는 세상, 화합과 사과에 인색한 인심, 상대를 향해 쏘아댈 화살만 벼르고 있는 이 나라의 풍경을 바라보니 일왕의 행동이 무겁게 다가온다. 우리는 무릎 꿇는 것은 죽음보다 더 어려운 것이라는 과거 시대의 공식에 지금도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조계종이 내년도 예산에 '승려 노후복지'를 위한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였다. 1억여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는 승려 노후복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계획수립에도 부족할 것이지만, 조계종이 처음으로 스님들 노후복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이 중요하다. 스님들의 노후가 불안함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조계종 종단에 깃들어 있는 많은 병폐들의 원인이며, 이 문제의 해결이야말로 청정 승단의 위상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과제라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계종단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은 한국 불교를 바꾸는 중대한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스님들의 노후복지 문제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해결이 늦어졌던 것은 이 문제를 공적인 제도 차원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승려들 개개인의 문제로 돌려 왔기 때문이다. 그것이 스님들의 청정성을 해치는 여러 행태를 유발했던 것이다.

승려 노후복지 그 '깊은뜻'

그런데 이제 정작 이 문제를 종단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하는 시점에서는 그 동안 스님들 노후복지 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요소들이 도리어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문중을 중심으로 한 파벌과 사설사암 등 많은 문제들은 긍정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스님들 노후복지문제에 일정한 해결책을 제공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공적인 제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기존의 방식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상적인 틀을 만들어가는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결코 서두르지 말고, 부정적인 요소들은 과감하게 척결하면서 한국 불교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또한 출가 승단을 외호하는 의무를 지닌 재가불자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는 성과들을 하나씩 쌓아 나가면서, 그것이 다시 증폭의 효과를 내도록 해야만 사부대중의 화합을 통한 청정 승단이라는 이상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결코 용두사미식으로 끝나서는 안될, 한국불교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에 철저한 계획과 불퇴전의 추진력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성태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국가대표급 폭력

마땅히 법에 의해 법을 세우고 법을 갖추어 그것을 공경하고 존중하라. 법을 관찰하고 법으로써 우두머리로 삼고 바른 법을 보호하라. 〈전륜성왕수행경〉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가 국가대표 선수단 내에서도 자행돼 충격을 주고 있다. 여자 빙상 쇼트트랙 선수들 6명이 지난 11월 3일 선수촌을 이탈, 코치와 감독들에게 성폭행에 가까운 상습적인 구타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하소연한 것.

이번 사건에 관련된 한 선수는 "○○○선생님께서 ○○○선수 엉덩이를 스케이트 날집으로 엄청 세게 마구 때리더니…, 머리채를 잡혀 쥐어 흔들리고 있으면 여자로 태어나 머리가 긴 게 원망스러운 적도 많았습니다"라며 모멸감과 고통을 호소했다. 선수들이 동계 올림픽 등 세계적인 대회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얼굴들이었고, 최정상의 실력으로 수십차례 이상 국제대회에서 우승해 국가의 명예를 드높였다는 점에서 그 파문이 적지 않다. 빙상계의 폭력 불감증은 결국 코치와 쇼트트랙협회 회장단 사퇴, 여자 대표팀의 월드컵 3 · 4차대회 불참 등으로 이어지며 국가 이미지 실추에도 한몫하고 있다.

이 사건의 원인은 지나친 '승리 지상주의' '성적 지상주의'에 있다 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1등만 하면 된다, 좋은 성적만 올리면 된다는 눈먼 승부의식이 연약한 여자에 대해서도 폭행을 가할 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으로 변질된 것이다.

부처님은 폭력에 대해 단호하게 금지하는 말씀을 하셨다. <법구경>에서 "모든 것은 폭력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 이치를 자기 몸에 견주어 남을 죽이거나 죽게 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무리 좋은 결과를 위해서라도 해도 폭력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된다.

■ 강유신(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 - 이렇게 생각한다

귀한 자리 관심부족 아쉬워

11월 9일 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이 주최한 불교 · 개신교 ·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종교별 여성신도교육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 다녀왔다. 발표내용이나 발표하는 자세 등 모두 수준급 이상이었다.

개신교와 가톨릭 두 종교는 불교에 비해 포교나 교육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조직력과 적극성을 갖고 있는데도 발표자들은 여자라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고백했다.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믿는 그들의 종교관으로 본다면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 납득시키기 위해서 교육은 어쩌면 필수적인지도 모르겠다. 그에 비해 누구나 불성을 갖고 있고 마음을 깨치면 부처가 된다는 불교는 자각종교이기 때문에 교리나 포교에 등한시하는 것은 아닌지.

발표를 위한 준비에 많은 시간을 보냈을 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의 진지한 발표도 들어줄 청중이 많지 않다면 얼마나 힘이 빠지는 일일까?

불교측에서 모처럼 마련한 귀한 자리에 귀담아 들어줄 참석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만약 두 종교가 주최한 행사였다면 과연 오늘과 같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닐 것 같다. 그 사실이 불자인 나를 한없이 슬프게 한다.

"불교가 발전하려면 스님들부터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원불교 교무의 신랄한 지적이 가슴에 남는다. 어찌 스님들 탓만 있겠는가? 사부대중 모두가 반성하고 분발해야 할 것 같다. 강대원심(청계사 출판부장)

'빈그릇 운동' 활성화 됐으면

현대불교신문을 통해 요즘 불교 사회단체들이 '빈그릇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빈그릇 운동'은 '발우공양'을 연상시켜 부처님 가르침에 딱 맞는 사회운동이라는 점에서 반가울 뿐만 아니라 자연 보호와 직결된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나서 '깨끗이' 먹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다. 게다가 우리 밥상문화에는 '체면치레'라는 것이 있어 배가 부르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 음식을 남기는 경우도 많다. 우리가 낭비하는 음식물이 부지불식간에 쓰레기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다.

빈그릇 운동으로 인해 자연이 얼마나 보호될 수 있는지 그 효용가치를 알리고 이로 인해 절약될 수 있는 자원의 액수를 추산하는 것도 분명 중요하다. 그러나 '빈그릇 운동'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마음가짐'이라 생각한다.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행위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이 다른 생명의 '보시'에 있음을 깨닫고 어떤 음식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고마운 마음으로 먹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앞으로 여러 단체와 음식점, 그리고 불자들의 실천을 통해 빈그릇 운동이 활성화됐으면 한다. 김용찬(경북 청도군 청도읍)

교구본사 지역불교발전 나서야

조계종 교구본사는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에 맞게 포교와 사회활동에 나설 것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교구본사는 많지 않은것 같다. 얼마 전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에서도 이러한 현실이 지적된 것을 볼 때, 하루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선은 예산을 대사회활동과 포교분야에 더 배정해야 한다. 관련실무자들을 충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절 안의 일'에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것은 사회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일이다. 지역사회와 호흡을 같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현안이 생기면 목소리를 보태고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해야 지역의 중심사찰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다.

지방자치제와 주5일제로 인해 불교는 그 어느 때보다 포교 호기를 맞고 있다. 그 중심에는 교구본사가 있다. 교구본사가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본사역할을 수행하고 포교에 나서길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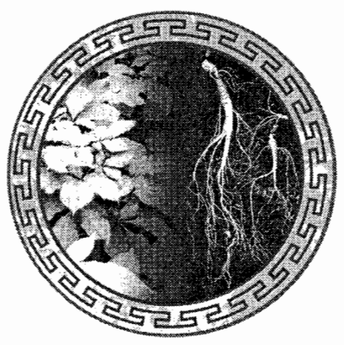
서정일(서울 용산구 이촌동)

'현대' 만평 심 민 섭



공주대학교 식품과학연구소
NSF-ISR에서 ISO 9001(2000), HACCP인증
SAMSUNG 2억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이것이 명품이다!
명품은 말하지 않습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는
산삼배양근이 함유된 제품으로써
그 효능과 품질로 말합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 시음 무료체험
전화주시면 일천분에 한하여
심마니토종오가피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체험의 즐거움과 건강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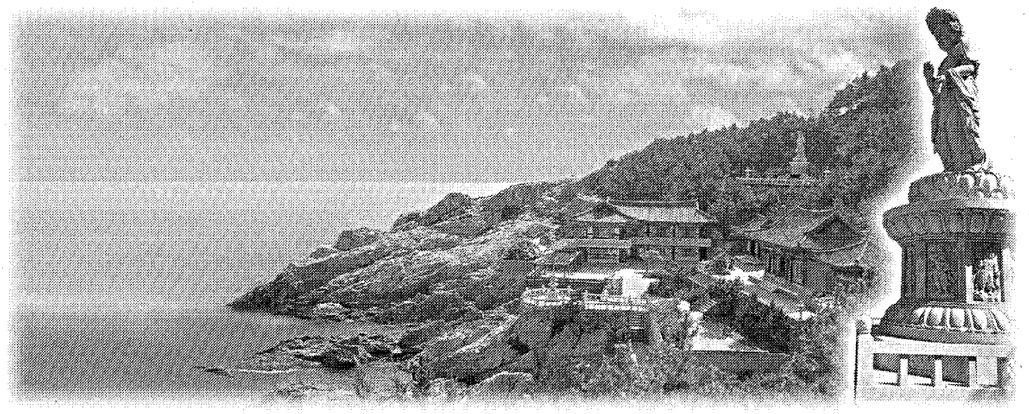
심마니 토종 오가피

오가피 묘목분양 오가피 묘목분양 상담
공장 및 농장견학회

상담문의 및 무료자료배송 02)447-9114
㈜현풍F&B HYUN PUNG F&B CO.,LTD.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 주차장 완비
◀ 입장료 무료
◀ 점심공양 가능
◀ 방생물 배달해 드림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7755

Btn 불교TV

10월 25일 !

불교TV가 확 바뀌었습니다.

불교TV 가을개편

신행/교양

- 휴먼다큐 아름다운 사람들
- 구본일의 명상태교 명상육아
- 특선 다큐멘터리
- 절로 가는 길
- 명상음악산책
- 우리시대의 장인
- 한국의 명찰
- 역사드라마 제왕의 길

포 교

- 산중대담 선지식을 찾아서
- 영어법문 디스커버링 부디즘
- 심야특선 다시 듣고 싶은 법문
- 부처님 경전이야기

강좌/교육

- 왜 지금 붓다와 노자인가?
- 혜정정사의 밀교수행강좌
- 체험! 붓다의 수행법 위빠사나
- 왕초보도 따라하는 불교예절, 불교상식
- 손경락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건 강

- 佛家秘傳修行 선무도
- 불교TV 메디컬 건강이 최고

www.btn.co.kr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친구들 도움으로 심장수술…약사여래 원 세워
오산심장사랑협회 구성 20여년간 50명 치료 도와
500여점 그려야 비용 마련 "기쁨으로 내 역할 다할 뿐"

어린이 심장수술 돕는 화가 홍성모 씨

붓으로 생명의 희망을 그려요

천장도 돌고 바닥도 돌았다. 빙글빙글 돌아가던 세상이 안정을 찾을 무렵이면 방아찧는 소리가 그의 심장을 압박했다. 그럴 때마다 따뜻한 볕이 시리도록 그리웠지만 36kg의 야윈 몸으로는 밖으로 한 걸음 내딛기조차 버거웠다.

선천성 심장병. 한국화가 오산 홍성모(45) 씨에겐 지울 수 없는 생의 무게였다. 병도 서러웠지만 그것을 다스릴 수 없는 가난은 그를 더욱더 옥죄였다. 그래서 '죽기 위한 노력'을 쉼없이 감행했다. 대학교 졸업을 앞둔 그때의 '그날'이 없었더라면 세상의 영원한 그늘이 되었을지 모르는 일.

"그 날이요? 돈이 없어 하루하루 병을 키우고 있는 못난 몸을 위해 친구들이 수술비 모금 운동을 벌이던 날이죠. 부끄러운 사연은 대학 학보에 소개됐고, 그 작은 정성이 모여 저는 그렇게 바라 마지않던 심장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곤 다시 태어났죠."

홍 씨가 '그림 그리는 약사여래'의 원을 세운 것은 원광대학교를 졸업하던 1986년 그 해부터다. 세상의 멈든 심장, 뒤틀린 고동소리는 영원히 그의 심장에 묻기로 결심하고 "50명의 생명을 소생시키지 않고서는 작가라 이름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자신의 호를 딴 '오산심장사랑협회'를 만들어 형편이 여의치 않은 아이들에게 무료 검진을 주선해왔고, 벌써 20년째 생활비를 쪼개 심장수술비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뜻좋고 걸림없는 무주상보시였건만 전셋방을 전전하던 홍 씨에게는 그리 간단치만은 않은 일이었다.

"작은 수술일지라도 당시 돈으로 최소 3백만 원 이상은 들어야 했으니 쉽게 모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니었죠. 힘든 수술은 1천만 원이 넘었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도 일년에 두 아이의 수술비는 장만하겠다고 서원을 세운 상태였습니다. 제게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제 그림이 곧 생명이자 대안이었죠."

그는 끊임없이 붓을 들었다. 화선지 결 따라 번져 나가는 먹의 흐름에 그의 '현재'를 오롯이 실었다. 붓끝에 나를 싣는 이 순간만큼은 '예술'도 없었고 '봉사'도 없었다. 먹으로 옅은 물감으로 그저 함이 없이 산수를 노래할 뿐이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어 작품을 들여다보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헤매던 기억이 생사를 초월한 산천경개 앞에서 소리 없이 녹아내렸다. 누군가의 치유에 힘이 돼야할 그림을 마주하며 그는 그렇게 기운을 모았다.

그 그림이 뜻깊은 수술비로 화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다. 전시회라도 여는 해에는 유동적일지언정 어느 정도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3년의 세월을 두고 400~500점을 그려야 전시회를 준비할 수 있었기에 수술비에 대한 그의 고충은 엄청났다.

결국 그는 직접 작품을 들고 거리로 나서 손수 그림을 팔았다. 작품 하나를 팔기도 쉽지 않았지만 헐떡이는 심장에 새 생명을 입히는 과정이라 생각했기에 개의치 않았다. 자기인지 봉사인지 하나를 택하라며 아내는 괴로워했지만, 생활비에 앞서 수술비를 걱정하며 그 험한 세월을 꿋꿋이도 버텼다.

"이제는 '한다' '안한다'는 생각도 없어요. 제가 그리는 자연이 그 자리에서 소리없이 제 역할을 다하듯, 시절인연이 맞을 때를 기다려 제 힘을 쏟아부을 뿐이죠."

얼마 전 서원했던 50명의 수술을 마쳤다. 20년의 세월을 기다려 목표달성을 이뤘지만 홍성모 씨는 여전히 51번째 아이의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그에겐 목표를 이루었다는 기쁨도 앞으로의 봉사를 기획하는 당찬 다짐도 없다. 수술 이후에 도움받은 아이와 연락을 취하는 일도 극히 드물다. 아픔에 가리워진 본디 밝은 마음을 되찾으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아이들의 어두운 과거에 작은 빛으로 잠시 머물다 갈 뿐이었다.

홍성모 씨는 이제 한국의 사계를 화폭에 옮기려고 한다. 늘 변화하고 있지만 그 본디 아름다움에는 흠이 없는 한국의 사계. 그 풍광에 다시금 보살의 서원을 녹이려는 그의 발걸음이 또다시 빨라지기 시작했다.

글=강신재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요 일	시 간	법 회 명	강의내용
매주일요일	10-14시	일요가족법회	금강경강의
매주수요일	10-15시	목련사랑법회	화엄경강의
〃	10-15시	수능자녀기도	〃
〃	10-15시	지장경독송회	〃
매주목요일	10-15시	대비주기도회	예참문강의
셋째화요일	14-17시	부산 · 동선회	주제별특강

◆등산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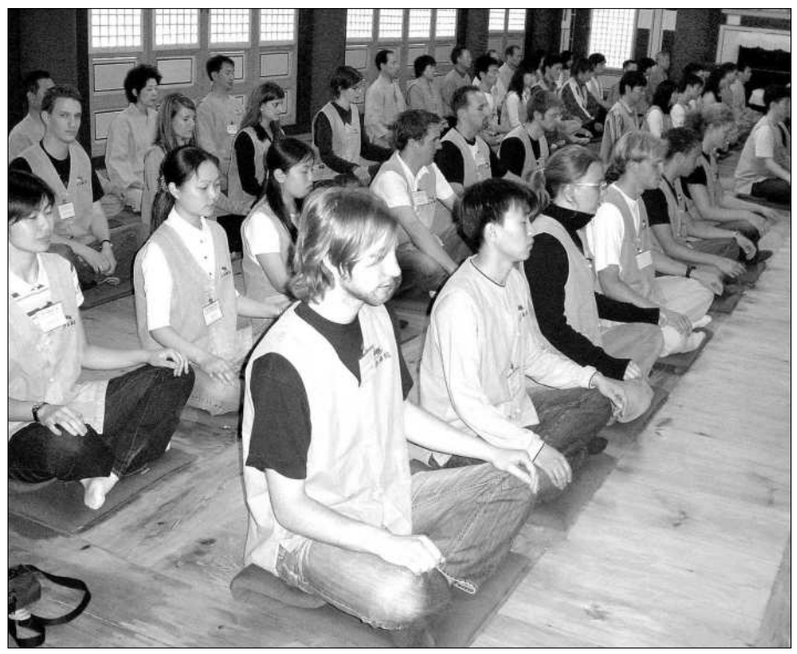
• 일시 : 11월 28일 일요일 오전 10시 • 출발지 : 우리절
참석하신 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세상에서 소중한것을....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 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지령 500호

간화선과 힌두명상, 어떻게 다른가

지구촌에 명상 열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불교, 개신교, 힌두교를 포함한 종교별 명상법과 단학 · 수선재 등의 선도명상, 초월명상(TM) · 오쇼 라즈니쉬 명상과 같이 기존 명상법을 현대인의 구미에 맞게 수정 · 변형한 명상법 등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명상법 종류만도 수만 가지에 이른다. 특히 불교 명상의 경우 'zen' 이란 이름으로 전세계에 널리 퍼졌으며, 이런 현상으로 인해 '명상' 이라는 개념이 '선' 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내 상황은 다르다. 국내 불교계에서는 불교 명상 이외의 명



서울 우곡선원이 올 5월 충북 괴산 다보수련회에서 개최한 외국인 유학생 참선 체험 현장. 미국 · 일본 등 20개국 외국인 유학생이 참선수행법을 경험했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

"고요함으론 무기공 빠지기 십상"
"삼매 추구로 지혜 드러낼 수 있어"

●명상으로도 깨달음 얻을 수 있을까

"명상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를 묻는 질문에서 스님들이나 불교 전문가들 대부분이 고개를 젓는다. 부정하는 근거의 핵심은 "명상은 고요함만을 추구할 뿐이며 그 같은 의식의 고요함을 통해서는 깨달음이나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간화선은 모든 의식의 성성적적(惺惺寂寂 · 의식이 또렷또렷하면서 고요함)을 추구하지만 명상은 적적(고요함)을 닦는 것에 머무른다는 얘기다.

영진 스님(前 조계종 기초선원장)은 "적적만 추구하는 명상은 마치 깜깜한 귀신굴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고요함만 즐기는 형국"이라며 "고요한 경계를 맛보고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는 명상으로는 무기공(無記空)에 떨어지기 십상"이라고 주장했다. 언어 이전의 소식을 참구하는 간화선 수행법은 고요한 상태에서 마음상태를 관하는 명상과는 구별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명상이 고요함만을 추구한다는 입장에는 이견이 있다. 한국 요가계 원로 이태영(한국요가연수원장) 박사는 "요가에서 삼매를 추구하다보면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세계 속에 녹아있는 훈습(薰習)이 제거되기 때문에 본래 구족된 지혜를 드러낼 수 있다"고 말한다. 요가수행은 심작용의 지멸, 즉 삼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며 지혜의 발현을 수반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간화선과 힌두 명상이 궁극적으로 동일한 수행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임승택(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연구 교수는 '요가수트라와 초기불교의 삼매관' 에서 "요가의 삼매를 '어행(語行)과 심행(心行)의 지멸' 로 표현한다면 불교의 삼매는 '신행(身行)의 지멸' 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며 "이는 불교에서의 삼매가 요가와는 달리 육체까지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양자는 기본적으로 형이상학적 입장도 달리한다. 물론 요가와 불교의 경우 공통적으로 '지혜의 발현' 과 '번뇌의 소멸' 을 이끄는 일련의 수행과정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요가는 우주의식에 합일하는 '진아(眞我)의 독존(獨存)' 을 구경으로 삼고, 불교는 '열반의 실현' 을 궁극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깨달음의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간화선에서는 비논리적 화두참구를 통한 일순간의 깨침을 강조하는 경향이 크지만, 요가는 대상에 대한 오랜 '집중' 과 '통찰' 의 시간을 전제로 삼는 점수(漸修)적인 수행에 가깝다. 그러나 신체 내부 에너지 센터의 각성으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쿤달리니 요가의 성취는 '돈오(頓悟)' 적인 색채가 강하다는 것이 요가

전문가 기고–선에서 본 명상

인경 스님(명상삼담연구원장)

실용적 응용 · 외연확산 주목 필요

"선 전통 바로세우고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이해해야"

'선(禪)' 이란 용어는 '고요하게 생각하다' 는 의미를 가진 Jhāna(Sk. dhyāna)의 번역어인데, '선수행(禪修行)' 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선을 닦는 실천행위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 선이란 용어는 불교의 오랜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관점과 의미를 가진다. 선은 역사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됐다.

첫째는 초기불교의 관점이다. 초기불교 경전에서는 선을 대부분 마음의 평정상태를 가리킨다. 마음의 평정은 세속적인 갈망이 사라진 상태,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마음이 사라진 상태, 감각적인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정이 이루어진 상태, 일체의 번뇌가 사라지고 마음이 온전하게 청정해진 상태로 다시 네 단계로 분류된다. 여기에 의하면 선이란 일상의 번뇌로부터 정화된 마음상태를 가리킨다.

둘째는 대승불교의 관점이다. 대승불교에서는 불성의 존재를 믿고 인정하면서 선수행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대승경전에 의하면 불성이란 바로 깨달음을 의미하며, 널리 빛으로 가득 찬 근본적인 지혜로서 묘사되고 있다. 이때 선이란 근본적인 지혜를 말하며 이 지혜는 점차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홀연히 내게 닥쳐오는 순간의 황홀하고 행복한 경험이다. 하지만 이런 종교적인 경험은 그냥 찾아오는 보상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함과 내면의 통찰을 꾸준하게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결과로 본다.

셋째는 중국 선종의 입장이다. 중국 선종의 경우도 대승경전에 이론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만, 더욱 철저하게 일상적인 체험을 중시한다. 선이란 특별한 경험이 아니다. 매우 평범한 일상의 일체성이다. 차를 마시는 순간이 선이며, 낙엽이 흩날리는 가을의 달빛이 냇물을 꿰뚫는 순간이 선이며, 할아버지가 손자를 안고서 좋아하는 순간을 떠나서 별도로 선을 찾을 수가 없다. 억지로 무엇인가를 닦으려 하면 오히려 어긋난다.

그렇다면 명상이란 무엇인가? 오늘날 여기저기서 명상을 말한다. 필자는 선과 명상을 Jhāna의 번역으로서 동의어로 본다. 다만 명상이란 용어가 혼란스럽게 느끼는 이유는, 명상이란 용어가 가지는 폭넓은 외연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이런 혼란은 전통적인 불교적 개념에 익숙한 불교도일수록 더욱 심각하게 느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여기서 현재 우리 문화 속에서 불교와 다른 명상 수행법들을 몇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논의해 보자.

첫째는 심리치료나 상담 과정에서 사용되는 명상의 의미이다. 이때의 명상은 심리적인 장애나 혼란 상태를 자각하고 마음의 평정을 성취하는데 그 목표가 맞추어져 있기에, 번뇌로부터의 해탈을 의미하는 불교에서 사용되는 선의 개념과 다르지 않다. 이를테면 그림명상이나 춤명상이라 할 때, 이것은 정확하게 전문적인 화가나 무용수의 예술적인 활동과는 구별된다. 다시 말하면 그림이나 춤이란 도구를 통해서 마음의 혼란된 상태를 평정과 지혜로 바꾸는 측면을 강조하는 까닭에 이때의 명상은 정확하게 선의 의미와 어긋나지 않는다.

둘째는 명상의 의미가 신이나 우주의 원리에 계합하는 것을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요가나 마하리쉬 계통의 경우에는 해당되는데, 이들 역시 명상이라고 부른다면 어쩔 수가 없다. 기독교나 가톨릭뿐만 아니라 이슬람교의 수피들의 수행법도 모두 명상이란 용어로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볼 때, 명상이란 용어가 가지는 외연은 대단히 넓고, 우리는 확실하게 다종교 현상 속에서 살고 있음을 느낀다. 필자는 진정한 명상은 불교의 수행법인 선(禪, Zen)이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역시 이것은 불교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을 안다.

셋째는 종교적인 체험과는 다르게, 현실적인 문제나 건강상의 목표를 가진 수행법도 명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점은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생겨난 명상의 방식인데, 주로 기업체나 의료계통에서 사업상의 이유로 혹은 환자의 치료 때문에 사용된다. 이 영역은 명상의 응용분야로서 미래사회에 더욱 확산될 분위기인데, 주의하여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점을 불교가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와 함께 선의 대중성 확보 문제는 오히려 기존 명상계가 선에서 배워간다는 점이다. 때문에 선에서는 선전통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 불교가 아닌 영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명상을 이해해야 한다.

개 천지조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지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상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 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응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히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皇道師)이 직접 상담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안되는 분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집안이 잘 안풀리는 분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 02)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 매일경제신문 인제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소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구요?!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심 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에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 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천식이 떨어졌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임파선이 나았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변비가 나았다.
● 혈색이 좋아졌다.
● 기력이 좋아졌다.
● 백혈병이 나았다.
● 아프던 무릎관절이 안 아프다.
●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것이 없어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염가에 드리고자 합니다. (생물 : 시중가 10kg당 40만 원을 20만 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 사은행사 :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았습니다.(100분 한정)

만삼달인 물(만삼 생즛 10kg · 황기 · 잔대 · 삼지구엽초 · 생강 · 대추 · 감초)
● 1Box (60포 : 20만원) ● 2Box (120포 : 3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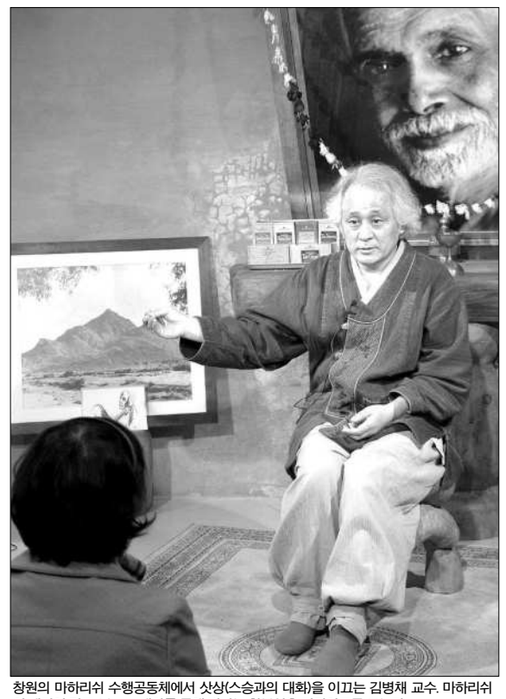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8292, 562-2165
❖ 성 명 : 심정택 H · P : 011-9242-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상법을 제 3수행법으로 간주하고 양자간의 확실한 구분선을 긋고 있으며, 불교 밖의 명상계에서는 "불교수행은 명상의 한 방편일 뿐"이라며 불교와의 영향 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불교와 명상에 대한 분명한 구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공통점이 논의되고 있는 불교의 '간화선', 그리고 마하리쉬 명상 · 요가 등의 '힌두 명상'을 대비시켜 봤다. 이 명상들은 어떤 점에서 닮아있고 구분되는지, 깨달음/수행법/'나'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지령 500호

간화선과 힌두명상, 어떻게 다른가

목적과 방법 분명한 차이



창원의 마하리쉬 수행공동체에서 삿상(스승과의 대화)을 이끄는 김병채 교수. 마하리쉬의 제자인 김교수는 1:1대화를 통해 빛나는 참본성을 자각하도록 돕는다.

간화선 나·너 초월한 연기론적 세계관 바탕
힌두명상 브라만·아트만 합일로 깨달음 추구

전문가들의 견해다.

마하리쉬 명상은 즉각적인 깨달음과 관계가 있다. 인도 수행자 라마나 마하리쉬의 제자이자 창원에서 마하리쉬 아쉬람(슈리 크리슈나다스 아쉬람)을 운영하고 있는 김병채(창원대 교육학과) 교수는 "우리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참나 그 자체이며, 완전한 나를 자각하는 즉각적인 깨달음만이 필요할 뿐 수행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직관적 깨달음은 스승과의 대화(삿상)를 통해 얻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간화선의 선문답과 닮아있다고 볼 수 있다.

●수행법의 차이는

한국사회에서 요가는 건강관리를 위한 체조쯤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 요가는 다양한 수행법을 포괄하고 있다. 관음신앙 · 정토 신앙과 유사한 박티요가, 묵조선 · 위빠사나 등과 비슷한 라자요가, 염불선과 닮은 만트라요가, 티벳 좌도 밀교와 유사한 쿤달리니 요가 등 그 종류와 형식은 다양하다.

이 가운데 갸냐요가(지혜의 요가)는 간화선과 비교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세계와 인간, 그리고 나의 참본질에 대해 탐구하는 명상법으로, 세계의 근원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에 합리적인 답변을 찾고자 노력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생각을 통해서 진리에 '집중'하기 때문에 언어 이전의 소식을 참구하는 간화선과 구분될 수 있다.

육체에 대한 관점에도 차이가 있다. 요가는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소우주 속에 궁극적인 진리와 합치될 수 있는 지혜가 구족돼 있다고 본다. 그리고 육체 안에서 그 같은 지혜가 발현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예를 들어 음식이나 호흡 등이 기(氣)가 되고 이 기의 작용에 의해 지혜가 드러나는 방식에 주목했고, 실제적인 섭생과 몸의 상태에 따라 지혜로 전화되는 양상이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요가수행에 있어 육체의 요가인 하타요가 수련이 명상이전에 전제되는 이유는 이 같은 사실에 근거한다.

반면 간화선에서는 육체 내 지혜의 발현 양상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 마하리쉬 명상에서도 육체의 작용 · 제어 등과 관련한 별다른 규정이 없다. 마하리쉬의 경우 오히려 "수행으로 얻은 나는 참나가 아니며, 깨달음을 위한 그 어떤 수행도 불필요하다고 역설할 뿐"이라고 강조한다. 과거에 속아 무지에 가려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참본성, 참나는 즉각적으로 깨닫는 것이 전부라는 생각에서다.

●무아냐 유아냐

간화선과 힌두명상의 구별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나'의 문제다. 고우 스님(봉화 각화사 선덕)은 "힌두명상은 브라만과 아트만의 합일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실체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간화선은 나와 너를 나눠보는 이원적인 사고를 넘어서는 연기론적 세계관을 근본 바탕으로 한다"고 말했다.

'무아(無我)'를 주장하는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영원불변의 '아트만', '브라만'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는 곧 망상이며, 망상을 통해 얻는 깨달음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화선은 불성, 여래장, 참나 등의 말을 사용해서 자아를 세우고 그것과 하나되려는 수행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마하리쉬가 말하는 빛나는 본성인 '참나'는 화엄사상에서 말하는 '보광명지(普光明智, 널리 온 우주는 감싸고 있는 빛나는 지혜'와 외형적으로는 별다른 구분이 없다. 이는 요가에서 말하는 '존재하는 것은 모두 우주적인 의식으로 이뤄져 있고, 그 같은 정신성은 환희를 기본으로 한다'는 싸 아난드(Sat Cit Anand)와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무아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개념적인 문제로 환원된다. 임승택 연구교수는 새끼줄의 비유를 들었다.

새끼줄을 보고 뱀으로 착각해서 거듭 확인해 봤더니 새끼줄이었다. 그렇다면 뱀이라는 지식은 파기 가능한 것이다. 임 교수는 "그 파기의 궁극에서 만나는 것을 '개념화'하느냐 '무아로 상정'하느냐의 차이"라고 말했다. 힌두교에서는 그것을 아트만 등으로 이름하여 유아전통의 맥을 이었고, 불교는 최후의 무엇까지도 철저히 배제하는 무아사상을 이끌어 왔다.

김철우 · 강신재 기자

전문가 기고 – 명상에서 바라보는 간화선

박석(미래사회와종교성연구원 원장)

화두집중 어려워 현대인에 어필 안돼

"지나친 단도직입의 강조가 수행의 즐거움 못 느끼게 해"



최근 일반인들의 명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명상이 유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는 상업적인 의도에서 나온 얄팍한 명상도 많이 보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화란 상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는 하지만 고매한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명상조차도 상업화의 덫에 걸리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명상이 건전한 대중문화의 한 부분으로 성장하려면 깊이와 내용을 좀 더 보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전의 다양한 전통적인 명상법으로부터 자양분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간화선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간화선은 학문적 관점에서 볼 때 당시까지 발달한 인도의 불교사상의 정점 위에 중국 토착의 사유체계인 도가사상의 장점을 융합시켜 만들어낸 매우 독창적이면서도 강력한 명상법이다. 간화선은 지엽적인 수행의 과정을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으로 존재의 본질에 대한 자각을 일으킬 수 명상법으로서 매우 단순한 듯 보이면서도 실로 심오한 맛이 있다. 그래서 중국 불교의 주된 수련법으로 등장할 수 있었고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동아시아의 불교의 대표적인 명상법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간화선은 약간의 한계점이 있다. 우선 일반인들에게는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있다. 일반 명상은 대체로 호흡이나 신체의 어느 한 지점, 혹은 외부의 형상이나 주문 등에 집중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은 비교적 쉽고 구체적이다. 그러나 간화선에서는 화두에 집중을 해야 한다. 그것도 단순한 집중이 아니라 의심덩어리를 가지면서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막연하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의 관점에서는 간화선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공안들이 문화적 차이로 인해 현대인들에게 별로 어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나 "뜰 앞의 잣나무이다" 등의 화두는 옛날 선사들에게는 간절한 의심을 일으켰는지는 몰라도 요즈음의 보통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인 의심덩어리로 다가서기가 어렵다. 좀 더 현대인에게 맞는 화두, 그리고 특정한 종교적 색채를 띠지 않으면서도 존재의 본질에 대한 강력한 의심을 자아내는 화두를 개발하면 대중적인 명상법의 하나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간화선의 또 하나의 단점은 단도직입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수행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잔잔한 즐거움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요가 명상을 포함한 일반적인 명상은 대부분 수행의 초기단계에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밝아지는 단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그 뒤로 점진적인 수행에 의해서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방식이다. 그러나 간화선은 화두를 타파하기 전까지 오리무중 속을 헤매는 막막함 속에서 정진을 해야 한다. 물론 간화선도 그 속에 아기자기한 수행의 재미가 없을 리야 없겠지만 좀 무거운 것은 사실이다.

처음부터 너무 무거운 화두보다는 생활 중에서 자그마한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가벼운 화두를 잡게 해서 수행의 기쁨을 느끼면서 점진적으로 존재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식으로 하면 일반 대중들에게 더 쉽게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110-4 101호
☎ 02)396-2736 · HP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heegyunwiz@hanmail.net

관절과 연골에 글루코사민 포르테

관절염 치료제 BDX-1(특허 제0429595호)
BDX-1은 2000년 3월부터 3년여 동안 총 10억여원의 개발비를 투자하고 중소기업청이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통해 지원하여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카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류마티스 내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활성평가 연구실에서 30여 차례 이상의 효능 및 독성실험 등 임상 실험을 거쳐 완료된 관절염 치료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원료입니다.
2004년 4월 국내 특허를 획득(특허 제0429595호 : 생약추출물을 포함하는 관절염치료 및 예방용 조성물의 제조방법 및 그 조성물) 하였습니다.

· 골관절염
· 통증을 감소 및 활동성 향상
· 관절손상 보호
· 항염증 작용
· 혈액과 관절에 쉽게 흡수되어 항염증, 진통작용
· 활동성을 향상
·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신장결석, 사고등으로 인한 관절계통의 상처 치유

관절과 연골을 튼튼히 하는데 도움을 주는 글루코사민 포르테정은 엄격한 품질관리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 900mg 60정×2

"글루코사민 포르테"를 1개월만 복용하면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2~3개월만 복용하면 좋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주)제이팜제약
주문 및 상담전화 : 02-598-9834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 (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부처님이 광명으로 나투시어 감로법비가 내리고 있는곳
동해사

감로법비의 신비스러움을 지금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 법비기간 : 양력 10월 12일 ~ 11월 20일까지

세가지 소원중 한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지는 기도영험 도량인 동해사에 오시어 감로법비도 맞으시고 기도써 소원이루어 보세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156번지
동 해 사 주지 혜명 합장
033-672-2900

▶ 동해사에서 낙산사 10분 소요, 휴휴암 15분 소요, 불탐사 10분 소요
▶ 바닷가 방생지 5분 소요 ▶ 대형주차장 완비

해동승복

직접 만나보세요!!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각종누비
● 면누비(먹물)
● 모직누비
● 물실크 누비
● 무명누비
● 손누비 (명주, 무명…)

동복
● 고급모직
● 무명
● 각종 먹물, 면

장삼, 가사, 조끼 몸빼, 셔츠

대구 고속터미널 동간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강의(20) 하나의 사건을 둘러싼 서로 다른 이야기들

영화 라쇼오몽, 혹은 상(相)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세계는 주관이 만든 환상(三界唯心, 萬法唯識)"이라는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강의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 뜬금없이 영화 얘기 하나를 해 볼까 합니다.

불교적인 너무나 불교적인 영화

구로자와 아키라(黑澤明)는 1951년에 <라쇼오몽(羅生門)>이라는 영화로 베니스 영화제 대상과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동시에 수상하여, 일본 영화를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소문만 듣던 그 영화를 미국에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흑백의 낡은 필름이 일반 극장 상영관 한 편에서 상영되었습니다. 관객은 영화를 배우는 학생들과 교수, 그리고 관심 있는 일반인 몇 명뿐이었습니다.

저는 상영이 끝나고, 그들이 하는 토론까지 다 듣고 나서, 손을 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근본적으로 '불교적'이며, 인간 인식의 영원한 딜레마를 다루고 있다."

영화의 스토리를 개관해 주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 출시되지 않은 듯합니다. 귀국 후 서울예대 영화과 강한섭 교수께 부탁하여 일본 NHK에서 방영된 것을 녹화한 테이프를 빌려 본 적이 있고, 저번 대만의 학회에 들렀다가 덤핑가로 팔고 있는 이 영화의 DVD판을 사올 수 있었습니다.

첫 장면은 폭우가 쏟아지는데, '승려'와 '나무꾼'과 '걸인'이 쇠락한 절터의 라쇼오몽(羅生門) 아래에 모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나무꾼은 자신이 목격한 기이한 사태를 탄식을 섞어 들려줍니다.

서로 다른 증언들

'나무꾼': 숲 속을 걷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여자 모자가 떨어져 있었고, 좀 더 가다보니, 남자의 모자, 밧줄과 부적이…. 이들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 사무라이의 시체가 있었다. 나는 놀라서 관청에 신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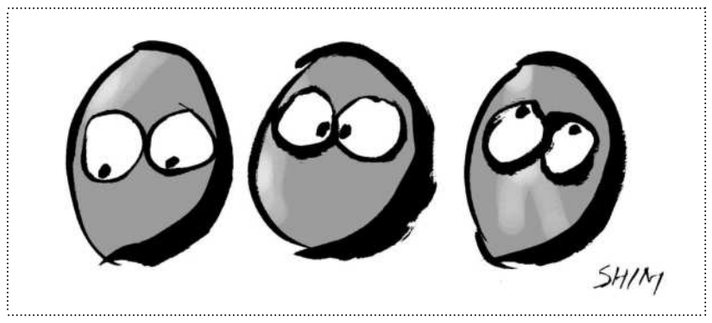
장면이 바뀌어, 악명 높은 '산적' 다조마루가 밧줄에 묶여 관청에 잡혀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무라이'를 죽였다고 순순히 시인합니다. 여기까지가 서곡입니다. 문제는 이 살해를 둘러싼 진실입니다. 그 사건에 개입한 사람들의 증언이 서로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산적' 다조마루의 증언: "그때 산들바람만 불어오지 않았어도…. 사무라이와 그 아내가 길을 가고 있었다. 사내는 걷고 여자는 말을 타고 있었는데, 산들바람이 베일을 살짝 들추었다. 거기 드러난 여자의 얼굴은 천사 같았다. 나는 여자를 가지겠다고 작심했다. 길을 막아서서 사내에게 조선산 검을 싸게 팔겠다고 유혹, 숲 속으로 끌고 가 밧줄로 묶어버렸다. 그녀는 남편이 당한 꼴을 보고, 단도를 빼들고 달려들었고, 나는 간단히 그녀를 제압하여 키스를 퍼부었는데, 놀랍게도 그녀가 나를 받아들였다. 일을 마치고 갈 길을 가려 하자, 여자가 막아섰다. '이리된 마당에, 두 남자를 섬길 수 없으니,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사내를 풀어주고, 정정당당히 칼까지 쥐어주고 결투를 벌였다. 격한 싸움 끝에 사내를 찌르고 나서 둘러보니 여자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절간에 숨어 있다 발견된 여인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무라이의 아내' 마사코: "산적은 나를 범한 다음, 남편에게 조롱을 퍼붓고 나서, 숲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남편에게 다가갔으나, 남편은 몸을 버린 나를 차가운 증오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절망적 심정으로, '그런 시선을 못 견디겠어요.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라며 단도를 꺼내들고 남편에게 다가가다가, 격한 마음에 실신해 버렸다. 깨어나 보니, 남편은 이미 죽어 있었고, 나는 정신없이 강가로 달려가 몸을 던졌으나, 목숨이 모질어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걸인'은 짜증을 내며, 들을수록 헷갈린다면서 투덜댑니다. 그러나 얘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승려'는 이번에는 살해당한 남자, 그 '사무라이'의 증언을 들려줍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고요. 걱정 마십시오. 무당의 도움을 빌렸습니다.



'사무라이' 다케히로: "산적이 아내를 범할 때, 나는 질투를 느꼈다. 아내는 아름다웠다. 그런데, 일이 끝나자, 아내는 놀랍게도 산적에게, 나를 죽이고 자기와 함께 달아나자고 유혹했다. 이 제안에, 산적조차 놀랍고 불쾌해 하면서 부정한 아내를 벌주라면서 오히려 나를 풀어주었다. 그러는 사이에 아내는 도망가 버렸다. 나는 수치와 회한에 떨다가 아내의 단도로 가슴을 찔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나는 잊지 못한다. 앞서가는 산적의 허리를 붙들고, 차가운 시선으로 나를 가리키며, '아노 히토오 코로시테 쿠다사이, (저 남자를 죽여주세요) 하고 외치던 아내의 얼굴을…."

과연 진실은 어디 있는가

그런데 이 죽은 자의 독백에도 나무꾼은 고개를 절래 절래 흔듭니다. "내가 본 시체에는 단도가 아니라 칼이 꽂혀 있었어!" '나무꾼'의 증언은 또 다른 것이었습니다.

"땅바닥에 있는 여인의 모자를 줍고 나서 숲 사이로 훔쳐보니, 산적은 여인에게 사랑을 맹세하며, 결혼해 달라고 애걸하고 있었다. 산적의 제안에 난감해진 여자는, 두 남자가 결투로 해결하라면서 남편의 밧줄을 끊어주었다. 그러나 남편은 '너 같은 년 때문에 내 목숨을 걸고 결투할 생각은 없다'면서 '네 년이 죽어라'라고 퍼붓는다. 산적도 겁이 나서 주춤했다. 그러자 여인은 둘 다에게 '사내답지 못하게시리'하고 비웃었고, 이 비웃음에 두 남자는 마지못해 결투를 벌였다. 그러나 그것은 당당하고 늠름한 결투가 아니라, 잔뜩 겁에 질려 벌벌 떨면서 빙빙 도는 꼴이 측은할 지경이었다. 엎치락뒤치락하다가 어쩌다 산적의 칼이 남편의 가슴에 찔렸다. 그 사이에 여자는 도망갔다."

이쯤에서 우리는 드디어 '객관적 진실'을 알 수 있게 되었다고 안도합니다. 그러나 안도는 아직 이릅니다. '걸인'은 '나무꾼'에게, "아직 숨기는 것이 있지? 다 털어놓지 그래"라고 다그칩니다.

그때 어디선가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쇼오몽의 뒤편에 버려진 아기가 있었습니다. 걸인이 아기의 옷을 벗기려 하자, '나무꾼'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걸인은 "단검을 훔쳐간 도둑 주제에…"라면서 나무꾼에게 대들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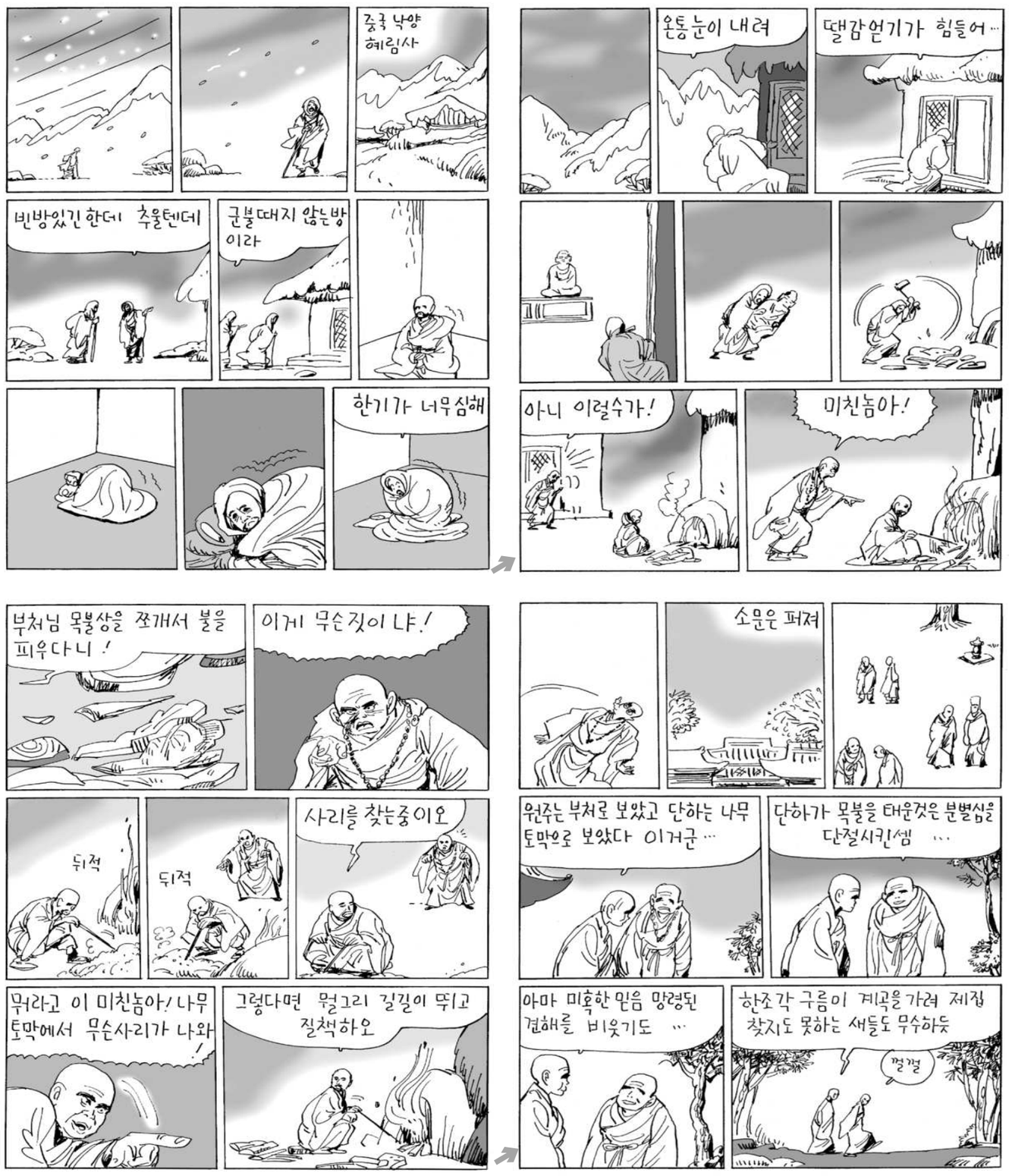
걸인이 기어코 아기의 옷을 벗겨내 챙겨 떠나자, 승려는 인간 존재의 '거짓'에 대한 깊은 환멸에 젖습니다. 나무꾼이 아기를 데려가려고 손을 내밀자, 승려는 "아직 더 훔칠 것이 있느냐"라고 화를 냈고, 나무꾼은 자식 하나쯤 더 있어도 별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 아기를 돌보고 키우겠노라고 말합니다. 승려는 이 말에 인간에 대한 희망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나무꾼에게 아기를 건네줍니다.

이것이 영화의 스토리, 그 대강입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주장자따라… ㊸ 단하천연선사의 '목불'

조태호



단하천연 선사(739~824): 태어난 곳과 본관 · 성씨등은 전해지지 않는다. 마조도일의 문하에 들어갔다가 석두선사에게서 삭발한 후 활달한 선기를 펼쳐 보였다.

네티즌 교리문답

'이입사행(二入四行)'의 뜻은?

문 보리달마가 말씀하신 '이입사행(二入四行)'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선으로 가는 두 가지의 길과 네 가지의 실천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ID ROLLINGH)

답1 : 교와 선(염불, 참선, 기도 등 모든 행을 총칭)을 함께 하는 것을 이입(二入)이라 칭하며, 실천적인 수행의 방법을 약술한 것을 사행(四行)이라 칭한 방편적인 언어입니다. 첨언하면 정과 혜, 유위와 무위, 번뇌와 보리 등도 이입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뇌 없이 보리를 알 수 없으며 보리 없이 번뇌를 알 수 없는 이치입니다.

결국은 공과 실상을 들어서 중도로써 이치에 이르는 길을 열어 보인 것입니다. 기타 이입과 사행의 의미는 인터넷으로 뒤져서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습니다.(불심)

답2 : 이입사행은 그 원형이 <금강삼매경>과 같은 반야계 경전에 있습니다. 즉 반야사상에 그 근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반야란 '지혜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대승불교의 모든 실천덕목은 이 반야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야는 불교의 모든 가르침에서 일관된 핵심이자 원리입니다. 또 인생과 세계를 투시할 수 있는 깨달음의 예지입니다. 그러므로 선은 인생의 진실을 추구하는 방법이며, 반야를 실천하는 인간의 깊은 예지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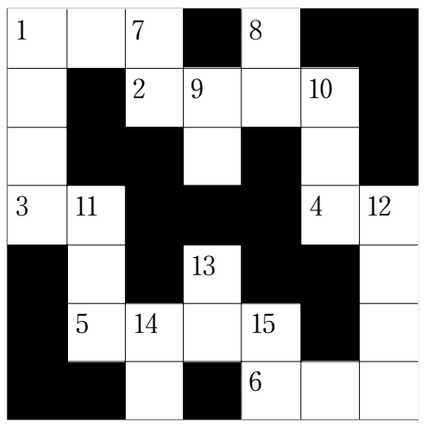
보리달마의 이입사행에서는 반야공관과 바라밀의 실천을 근간으로 하는 대승불교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야)

답3 : 도에 이르는 길은 많으나 근본을 들어 말하자면, 두 가지의 길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진리의 깨달음에 의한 입문, 즉 이입입니다. 다른 하나는 실천에 의한 입문, 즉 행입입니다. 진리의 깨달음에 관한 입문이란 경전의 대체(大體)를 꿰뚫어 체득하는 지혜의 완성입니다. 모든 생명체의 동일한 진성을 깊이 믿는 것입니다. 이 참된 성품이 번뇌에 가려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는 일입니다.

실천에 의한 입문에는 네 가지 규범이 있습니다. 증오의 과보를 갚는 규범(報怨行), 삶의 여러 가지 가변적인 조건에 따르는 규범(隨緣行), 집착을 버리는 규범(無所求行),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규범(稱法行) 등을 말합니다. (불학자)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가로

1. 유물과 유적을 발굴하고, 그를 통해 옛 인류의 생활을 연구하는 학문 2. 이름난 산과 큰 천 3. 단단한 것이 부드럽고 무르게 됨 4. 경 · 율 · 논 삼장 가운데 하나로 경전을 일컫는 말 5. 가냘프고 고운 여자의 손 6. 대한불교 천태종(天台宗)의 총본산으로 충청북도 단양군 소재.

정답은 26면에

세로

1. 오래돼 예스러운 풍치나 모습이 그윽함 7. 일제하 대표적인 선지식 중 한 분으로 선농(禪農)불교를 내장사에서 실천에 옮김 8. 지대 · 수대 · 화대 · 풍대 9. 산 위에 쌓은 성 10. 천수관음의 유래, 발원, 공덕 따위를 말한 경문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독송됨 11. 화산이 분출하여 형성된 섬 12. 오래도록 살고 죽지 않음 13. 극락의 반대 14. 순간적으로 강렬히 번쩍이는 빛 15. 옛 제도나 풍습을 그대로 지키고 따름.

논쟁으로 풀어 본 한국, 한국인



1980년대 불교의 현실참여 논쟁에 불을 지폈던 민중불교운동. 사진은 민중불교운동연합이 조계종 옛 총무원 청사 앞에서 개최한 '불교자주화와 민주화를 위한 대회'.



말 · 말 말 -대한민국史를 바꾼 핵심논쟁50
권오문 지음
삼진기획 |1만5천원


일부 광신도에 의해 파괴된 단군상.

1960년 겨울, 서울 광화문 거리. 비구승들이 '불법에 대처승없다'는 플래카드를 치켜든다. 명분은 이랬다. 일제가 이식한 대처승 제도를 말끔히 걷어내겠다는 것. 논쟁의 발단은 사실 이보다 앞선다. 이승만 대통령의 '정화유시'가 비구 · 대처간 갈등의 뇌관을 건드리면서 비롯된다. 곧바로 양측은 '절 뺏기' 싸움에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운다. 이후 세속법에 기댄 법정 다툼은 결국 비구승들의 승리(?)로 끝난다.

이른바 '불교정화운동' 논쟁. '사찰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놓고 벌인 이 논전(論戰)은 20세기 한국불교사에 씻을 수 없는 오욕과 깊은 상처를 남긴다. 그리고 이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아직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말 · 말 말-대한민국史를 바꾼 핵심논쟁50>은 정화운동 등의 불교논쟁을 비롯해 광복이후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진행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대표적인 논쟁 50가지를 책으로 묶었다. 해방 이후 상해 임시정부와 이북 인민공화국 사이의 주도권 경쟁, 민족문학 논쟁 등 격동기 한국사의 굵직한 쟁점은 물론, 최근 대립 중인 배아 복제, 전교조와 교총의 교육이념 논쟁, 호주제 폐지, 사형제 존폐 등의 핫이슈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이 책은 논쟁으로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한 눈에 읽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주제별 논쟁을 시대 순으로 배치해 쟁점은 무엇인지, 전개는 어떠했는지 꼼꼼히 짚어주고 있기에 그렇다.

이런 배열은 각 논쟁들이 시대나 분야를 불문하고 서로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령 민중불교운동을 적극적인 현실참여로 볼 것인가, 교리적 정당성 확보로 볼 것인가에 관한 80년대 민중불교 논쟁은 '예수도 민중이다'는 민중신학 논쟁과 별반 차이가 없다. 또 개신교의 토착화와 단군신화 해석에 둘러싼 쟁점도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로 불거진 민족주의 열기와 맞닿아있다.

책은 이처럼 그간 한국현대사를 달군 격렬한 논쟁들을 통해 역사적 맥락에서 어떻게 논쟁을 일궈왔는지 보여줘 당대를 산 사람들의 생각과 고민, 그리고 논란을 가져온 문제들 되짚어보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종교인들이 '사형제 폐지'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 왼쪽). 여성단체가 마련한 '초경 축하파티'.

광복이후 현재까지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문화 대표 논쟁 50가지 되짚어

불교계를 달군 논쟁으로는 보조국사 지눌과 성철 스님의 '돈오점수, 돈오돈수' 논방, 조계종 법통과 관련된 정체성 문제, 민중불교 운동 등이 불교 논쟁의 흐름을 이끌었다. 특히 '돈점' 논쟁은 '깨침의 본질'과 '닦음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룸으로써, 여는 불교논쟁과 달리 생산적인 쟁점을 끄집어내 불교사상의 깊이와 폭을 넓혔다.

불교 논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책은 최근 '간화선이냐 위빠사나냐'를 두고 벌이는 수행법 논쟁, '대승이냐 소승이냐'의 한국불교 정체성 문제, '기복과 정법'의 기복불교 논쟁, '여자에겐 불성이 없다'는 성차별 문제 등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우선 수행법 논쟁의 경우, 한국불교의 중심 수행법인 간화선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문제의식이 논쟁의 출발이 된다. 그러면서 지은이는 한국의 선수행 기풍이 새롭게 탈바꿈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수행법 쟁점 핵심과 논쟁흐름을 상세히 소개한다.

무엇보다도 지은이는 전통불교의 간화선이 위빠사나에 밀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진단한다. 그 이유로 바쁜 현대인들이 짧은 시간 안에 깨달을 수 있다는 위빠사나 서적과 강좌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현실을 꼽았다. 위빠사나 수행법 확산에 따른 간화선 전통을 따르는 수행자들의 '속앓이'도 가감 없이 언급한다. 현재 조계종단이 다른 불교 수행법들을 용인 내지 묵인할 수 있다는 너그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속사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지은이는 말한다. 간화선 수행지침서 발간, 선원장 초청 법회 등을 예로 들며, '안간힘을 쓴다'는 표현을 쓰는 데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기복불교 논쟁은 불교의 정체성과 맞물린 문제로 접근, 불교계의 가장 첨예한 논쟁의 하나로 평가한다. 지은이는, 정법을 제일의 가치로 하는 불교계에서 기복은 여전히 불교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토대로서 기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한다. 대신 조건을 단다. '불교는 미신에 가깝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없앨 것은 없애고, 씻어내야 할 것은 씻어내고, 벗겨야 할 것은 벗겨내어 참다운 불교 본연의 모습을 되살려야 한다는 따끔한 충고도 잊지 않는다.

세계일보에서 오랫동안 종교 전문기자로 지낸 지은이는 "일관된 시각에서 현대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집대성한 것이 특징"이라며 "이들 논쟁은 곧 '우리 역사와 당대 지식인의 고민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환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번쯤 새겨봐야 할 담론"이라고 말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전문가 서평



한국을 버려라 이성용 지음 | 청림출판 |1만원

근래 우리 주변에는 외국으로 이민을 떠나거나 조기유학을 보내 놓고 기러기 아빠가 된 사람들이 적지 않다.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여건상 떠나지 못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머지않아 인류는 다시 유목민이 된다고 하지만, 한국은 그렇게 '떠나고 싶은 나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인가?

저자는 베인엔컴퍼니 소속의 컨설턴트 이성용 대표. 그는 이 책에서 컨설턴트의 시각으로 한국과 한국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진단하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인 그는 한국인의 유전자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대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한국의 문제점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우리에게는 존경하는 한국인이 없다는 점, 잭 웰치 같은 위대한 CEO가 나올 수 없는 문화, 낮은 수준의 기업문화와 거래관행, 정부정책의 신뢰성과 교육문제, 경영투명성의 문제, 경쟁심과 불안감의 문화 등 수 많은 문제들이 한국을 디스카운트하는 원인이

떠나고 싶은 나라가 될 것인가

위기의식 느끼고 초발심으로 다시 시작하자

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 문제점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GEO의 독특한 교육과 인재양성 과정, 일본이 '기무치'를 브랜드화 하는 과정, 중국 경제의 급성장 배경을 우리의 현실과 대비하면서 우리의 과오를 들추고 있다.

한국인의 공동체적 행동방식을 단순히 '사회주의적 성향'으로 비하한 부분이라든지, 함께 비행기를 탄 김우중 씨에 대한 평가 부분에 대해서 필자로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고,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하는 대신 대안제시에 인색한 점이 좀 아쉽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점을 구석구석 파헤친 내용이 매우 신랄하고 공감가는 대목이 많다. '갑'과 '을'간에 거래의 불공정성이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비체계적인 교육훈련시스템(1년 경험, 20년 되풀이) 등에 대한 내용은 경영현장에서 뼈저리게 느껴온 필자의 체험과 일치한다.

특히 흥미를 끈 것은 '경쟁력 반감기', '전문성 반감기(professional half-life)'라는 새로운 개념이다. 저자는 어떤 개인이 입사당시 갖고 있는 전문성(기술 등)의 50%를 상실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년 정도라고 한다. 10년이 지나면 최초능력의 10% 정도 밖에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대학졸업 후의 '제도적인 학습'이 매우 중요한 근거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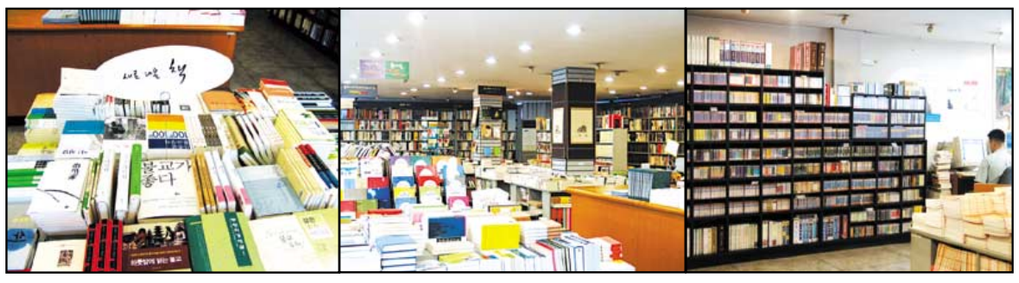
저자의 말처럼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움직이는 위기의식이 필요하다. 지금이 바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정한 사회변화를 시작하는 '초발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것만이 우리가 다시 위대한 세대가 되는 길이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는 길이다. 그것만이 한국을 버린 사람들이 후회하면서 되돌아오게 하는 길이다.

■**손기원** (지혜경영연구소 대표)

불교서적의 요람으로 불자들과 함께한 10년! 여시아문은 여러분의 개인 법당입니다.

Hot!

국내 모든 불서를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 주문으로
빠르게 받아본다!



불교의 기초부터, 선지식 이야기까지!
대한민국 대표 불교서점 '여시아문'과 만나십시오

마음을 찾아주는 60가지 이야기
선사들의 삶과 깨달음

방경일 글, 김장열 그림
국배판 변형 / 257쪽 / 값 10,000원
도서출판 솔바람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말씀 / 신국판
컬러 도판 20컷 / 269면 / 9,000원
시공사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도법 지음
신국판 / 382쪽 / 값 11,000원
아름다운 인연

행자의 길은 늘 깨어있어야 한다
노스님의 젊음

지묵스님
신국판 / 336쪽 / 값 10,000원
우리출판사

고려불화
실크로드를 품다

김영재 지음
신국변형판/ 384쪽 / 값 20,000원
운주사

수도자에게 주는 글
해탈의 길

성철스님
신국판 / 248쪽/ 값8,500원
도서출판 장경각

선사들이 띄우는
깨달음의 편지

정념 엮음
신국판 / 292쪽/ 값10,000원
장 승

현명한 사람은 마음을 다스린다

슈리 담마난다 지음, 홍종욱 옮김
신국판 / 240쪽 / 값 8,900원
지혜의 나무

★ 본 연합광고 서적은 책방 여시아문에서 11월 30일 까지 특설코너를 마련하여 판매 할 예정 입니다 ★

대한민국 대표 불교서점 책방 여시아문 인터넷 도서주문 yosiamun.com Tel : 02)737-0695 Fax : 02)737-0696 <법공양 상담합니다>

시대를 이끈 '큰 정신'이 있었네


원효 스님 | 의상 스님 | 대각국사 의천 스님 | 나옹 혜근 스님 | 청허 휴정 스님



인물로 보는 한국의 불교 사상
한국불교원전연구회
예문서원 | 2만원

역사를 이루는 주체는 사람이다. 불교사 역시 '사람'의 역사다.

우리는 삼국시대 불교사를 이야기하면서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을 되짚어 보게 되고, 고려시대의 불교사상을 더듬어가다 보면 의천 스님과 지눌 스님을 만나게 된다. '불교사상사'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각 인물의 사상에 따라 이미 분화되어있기 때문이다. <인물로 보는 한국의 불교사상>은 이처럼 한국불교사를 '인물'로 조명하는 책이다.

서울교대 은정희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며 후학들이 엮은 이 책에는 이효걸 교수(안동대), 고영섭 교수(동국대), 이덕진 교수(창원전문대), 김미영 교수(서울시립대) 등 한국불교원전연구회(회장 은정희) 소속의 전문학자 15명이 필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사상사의 구성이 그 조각난 심층의 요소를 재배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 책은 한 인물의 궤적을 좇음으로써 미시적인 수행의 길을 성찰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고 출간 의의를 밝히고 있다.

책에서는 중국 남조에서 삼론(三論)을 변혁시킨 승랑(僧朗)과 신라 왕손 출신의 원측 스님(613~696)을 통해 삼국시대 불교사상을 밝힌다. 또한 원측 스님과 동시대를 경험한 원효 스님(617~686), 원효 스님과 함께 분열과 전쟁의 시대를 살았던 의상 스님(625~702)을 통해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불교사상인 화쟁사상과 화엄학의 역사를 짚어 본다. 원효 스님이 사상사에서 갖는 무게감을 간과해왔던 사람들이라면 일심 사상과 화쟁 사상, 번뇌론 등을 통해 스님이 전하고자 했던 가르침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천태 문헌을 가지고 중국에 가 중국 천태학을 중흥시킨 제관 스님, 북악의 화엄 원교의 법통을 이은 균여 스님(923~973), '보조선'을 정립한 지눌 스님(1185~1210)과 그 사상을 핵심 코드로 삼아 고려시대의 불교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고려시대까지 지배이념으로 절대적 권위를 누리던 불교는 조선시대에 들어서 전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함허당 기화 스님(1376~1433)은 "마음의 때를 모두 제거한 후 확 트인 지혜의 눈으로 보면 유교와 불교의 공통의 토대를 발견할 수 있다"는 '유불일치론'을 주장했고, 청허 휴정 스님(1520~1604)은 유불도 삼교(三敎)에서 본래적 의미의 도(道)는 하나로 수렴된다는 '삼교회통사상'을 주장했다.

고구려부터 조선시대까지 당대를 풍미했던 선지식들의 사상을 읽어가다 보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여겼던 가르침이 '한국불교사'라는 하나의 큰 강물을 따라 흘러왔음을 느낄 수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두려움 없이 준비하는 죽음

죽음도 엄연한 학문의 한 영역이 될 수 있을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진정한 의미를 알아가려 하기보다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망학(thanatology)'은 우리에게는 아직 생소한 학문분야지만 미국에서는 60년대 이후부터 대학에서 사망학, 사망교육이란 이름으로 연구되어 왔다. 사망학은 단순히 사망이나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에서 벗어나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실의 삶에서 보다 진정한 행복과 정신적 가치를 찾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망학>을 지은 법성 스님(前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사무국장)은 "죽음에 대한 올바른 관심을 이끌고, 죽음을 두려움 없이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말한다.

'사망학 입문서'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책에서 스님은 사망학이 다루고 있는 문제인식과 범위, 생명의 원리, 동서양의 생사관 등을 짚어봄으로써 죽음의 의미를 살피고 있다.

"우리는 살아생전에 어떤 인생의 길을 걸었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의 임종을 맞게 되고, 그 책임은 바로 인생을 살아온 우리 각자의 손에 달려 있다"는 지은이는 책에서 "생사를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절대적인 무소유의 자유자재한 정신적인 삶을 추구하는 길 뿐이다"고 강조한다.



사망학
법성 스님 지음
운주사 | 1만2천원

한국 단청의 산 역사 한석성의 삶과 작품

고즈넉한 사찰 경내에 들어서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있다. 건물의 벽면이나 천장을 타고 흐르는 곱고 화려한 빛깔의 단청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단청>은 '한국 근현대 단청의 산 역사'로 불리는 故 한석성 장인의 단청세계를 조명한 책이다. 한석성 장인은 조선말기 단청으로 일가를 이룬 한용식의 아들로, 15살 때부터 단청의 밑그림이 되는 단청초본을 배우기 시작했다. 60여년의 세월을 단청 맥을 잇는데 바친 장인은 그동안 순천 송광사 대웅보전, 경주 불국사 대웅전, 강진 무위사 극락전, 서울 숭례문 등 국내 유수의 사찰과 궁궐의 단청 작품을 남겼다. 특히 보탑사 삼층목탑은 기존의 단청재현에 머무르지 않고 옛것과 창작을 조화시킨 '한석성 단청의 완성작'으로 평가 받는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단청
한석성 구술
박해진 정리
현암사 | 2만원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1부 '한석성의 생애'는 한 장인이 구술한 내용을 시인 박해진 씨가 정리한 것이다. 처음 단청을 접하게 된 계기와 단청에 관한 자료를 구하기 위해 고생한 사연, 단청의 안료 중 독성이 강한 양록 때문에 사타구니에 독이 올라 고생한 경험 등이 그려져 있다. 만봉 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은 한 장인에 대해 "필력이 뛰어나도 일에 빈틈이 없었다"며 "아버지와 함께 단청으로 일가(一家)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2부 '한석성의 단청'에는 사진작가 김대벽 씨가 촬영한 한 장인의 단청 작품을 화보로 구성하고 그 작품의 밑그림인 초본을 실었다. 한 장인의 정교하고 섬세한 필력과 색채를 사진으로 느낄 수 있다.

3부 '한국의 색, 단청이야기'에서는 2천여 년의 역사를 이어온 단청의 세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단청의 역사, 종류, 빛, 무늬, 시공(施工)을 사진자료를 곁들여 쉽게 풀어 썼다. 한국 고대단청의 면모를 보여주는 고구려 고분벽화, 위는 푸르게 아래는 붉게 칠해 조화를 이루는 상록하단(上綠下丹)의 원칙, 임진왜란을 전후로 크게 바뀐 조선시대의 단청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한 장인이 직접 모사한 수덕사 대웅전의 단청이나 돈화문, 홍화문, 명전전 단청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단청에서 귀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박준주 단청협회 고문은 머리말에서 "한 장인의 흔적과 자취 그리고 장인정신을 고스란히 담은 이 책은 단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깊어가는 가을 큰스님과 함께

성철·청화 스님 열반일 맞아 법문집 나와



해탈의 길
성철 스님 지음
장경각 | 8천5백원



말씀, 부처가 보이신 길
청화스님문도회 엮음
이른아침 | 1만2천원

청정한 가을바람 같은 큰스님의 가르침이 두 권의 책으로 묶여 나왔다.

성철 스님의 열반 11주기(11월 4일)와 청화 스님의 1주기(11월 12일)에 맞춰 나온 <해탈의 길>, <말씀, 부처가 보이신 길>이 그것이다. 책에는 현대인들에게 내리는 감로수 같은 스님의 법문이 가득 담겨 있다.

'수도자에게 주는 글'이란 부제의 성철 스님의 <해탈의 길>은 기존의 성철 스님 법어집 <자기를 바로봅시다>에 실렸던 '수도자에게 주는 글'과 <영원한 자유>의 '영원한 자유인' 그리고 스님의 발원문을 모은 책이다.

2장 '수도자의 다짐'에는 성철 스님이 스스로에게 수행을 향한 굳은 결의를 다짐했던 내용을 담았다. 1947년 문경 봉암사 결사 당시 작성한 '함께 살기 위한 약속', 64년 청담 스님과 함께 작성한 '서원문', '열두 가지 다짐' 등이 담겨 있다.

<말씀, 부처가 보이신 길>은 40여년 간 하루 한 끼만 먹는 일종식(一種食)과 자리에 눕지 않는 장좌불와(長坐不臥) 수행으로 유명한 청화 스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누구나 그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쉬운 수행이 바로 염불"이라는 스님의 말씀과 그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 수 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선 너는 누구냐	현대불교신문사	여시아문
2	길을 찾아라	대법 스님	운주사
3	용서	달라이라마	오래된미래
4	오체투지	한경혜	반디미디어
5	생활 속의 관음경	우룡 스님	효림
6	왜 사는가	무량 스님	열림원
7	마음 부처가 사는 나라	청화 스님	이른아침
8	홀로 사는 즐거움	법정 스님	샘터
9	해탈의 길	성철 스님	장경각
10	중론 논리로부터의 해탈…	김성철	불교시대사

도서 안내 : (02)737-0695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역저한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중 제6권 출간!
최초로 1,454칙의 본공안을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2005학년도 전기 행정대학원(야간) 신입생 모집

1. 모집과정
• 석사학위과정 • 최고관리자과정
2. 모집학과
가. 행정학과 : 행정학, 정책학, 위기관리, 행정법무, 소방행정전공
나.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노인복지,실버산업(신설), 사회복지상담전공(신설)
다. 지방정부경영학과 : 지방경영, 지방행정, 지방의회, 지방재정, 정치정보전공
라. 경찰행정학과 : 경찰행정학전공
※ 소방행정 전공은 전강좌를 On-line을 통한 사이버교육을 실시함
3. 모집인원 : 각 학과 ○○명
4.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5. 원서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4. 11. 22(월) ~12. 2(금) 09:00 ~ 21:00 (토, 일요일은 제외)
나. 장 소 : 행정대학원 사무실 (본교 탐구관 505호)
6. 전형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04. 12. 4(토) 10:00~
나. 장 소 : 고사당일 대학원 게시판에 공고
7. 합격자 발표
2004. 12. 10(금) 14:00 이후
본 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
8. 제출 서류
가. 입학원서(소정양식-탈모 상반신 사진(3×4㎝) 3매 부착) ····1통
나.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통
다. 대학성적증명서(백분율점수기재) ····1통
라. 주민등록등본 ····1통
마.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9. 전 형 료 : 50,000원
10. 기 타
가. 본 대학원은 4학기 과정임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으로 문의바람
전화 : 02)760-4071, 5845 / FAX : 02)760-5848
인터넷 홈페이지 : www.hansung.ac.kr
※ 특전
가. 학위과정 신입생 전원에게 두학기 수업료의 30%를 감면함
나. 학교에서인정하는자매협력기관재직자에게수업료의 50%를 감면함.
다. 공무원, 각급학교 이상의 정규교직원 및 전공관련 기관 재직자, 가족 중 2인 이상이 재학중인 자에게 수업료의 30%를 감면함
라. 재학중 성적우수자는 장학금을 지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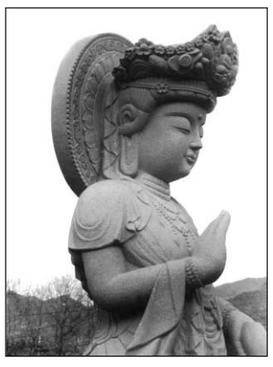
한성대학교 HANSUNG UNIVERSITY
136-79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2가 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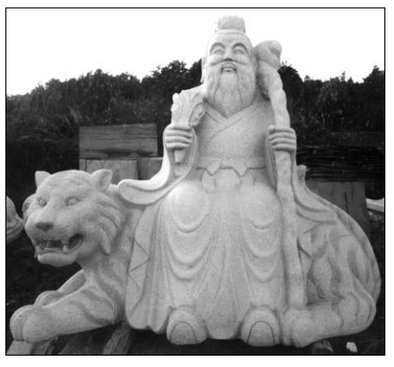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5349 / 휴대폰: 010-7474-5349

12월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출범과 종교방송

자율 광고 시대 보호막은 없다

방송광고공사 영업 독점제 폐지 · '패키지 판매' 금지, 불교방송 타격



그래픽=최정근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시대를 맞아 이에 걸맞은 뉴미디어 산업 정책과 규제기구 통합방안 마련을 위한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가 12월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이 기구가 만들어지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한국방송광고공사 독점체제 해소방침에 따른 새로운 방송광고 정책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즉 2000년 논란이 됐다가 무산된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광고영업 독점제도 폐지와 민영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방송광고판매대행사)의 전면 도입이 그것이다.

이에 수입의 대부분을 광고에 의존하는 불교방송을 비롯한 종교방송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종교방송은 자율광고 경쟁에서 일반 방송에 뒤질 수밖에 없어 수입이 줄어 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현재 수면위로 떠오르는 것은 방송광고미디어렙의 선택을 방송사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과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존

선택 권한 인정 VS 경쟁 체제 전환

민영 미디어랩 전면 도입

속하에 방송광고 판매방식을 공 · 민영미디어렙의 완전경쟁체제로 전환하자는 주장 정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어느 의견이 관철되든 미디어렙 체제로 전환되면 광고주가 선호하는 방송사에게 광고가 배정되기 때문에 설사 공영과 민영미디어렙 중 어느 곳에 속한다 하더라도 불교방송의 광고 수입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이에 자율경쟁 시장을 예고하는 새 방송광고 방안에서는 불교방송이 국민의 건강한 정서를 위해 포교하는 종교방송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현행 체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방송광고시장은 1981년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해 왔으나 이에 따른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제기돼 정권이 바뀔때 마다 제도 개선을 주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 불교방송의 광고 업무는 한국방송광고공사내 영업 3국 중 2부가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는 SBS 라디오(AM, FM)가 함께 소속돼 있다. 그래서 대부분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수주에 따라 광고액이 결정돼 자체의 광고영업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물론 최근에는 방송사의 채널수가 급격히 늘면서 광고 수주도 경쟁이 치열해 영업 능력에 따라 실적이 크게 좌우된다.

과거처럼 SBS의 광고 수주에 따라 함께 늘어나는 패키지 판매 방식이 법으로 금지됐기 때문이다.

그래도 불교방송에게 한국방송광고공사란 버팀목은 아직까지 수입을 위한 큰 의지처이다. 지난해 광고 수입만 해도 126억여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월 평균 10억여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는 종교방송 4사 가운데 광고 매출이 기독교방송(CBS)에 이어 두번째로 높으며, 최근 5년간 불교방송의 광고 수입을 비교했을 때 큰 기복이 없는 수치다. 한마디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존립하는 한 광고 수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방송광고시장이 자율경쟁 체제로 들어선다면 결코 안정된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없다. 이에 불교방송을 비롯한 종교방송 자구책의 일환으로 현재 각 방송사에서 내고 있는 14%의 광고수수료와 4.5%의 방송발전기금을 합한 18.5%의 세금을 대폭 감면해 주는 보호장치도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KBS와 EBS는 상업방송과 구별되는 공영방송과 교육방송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5.5%의 방송발전기금을 3.3%로 낮춰주고 있다.

세금 감면 통한 수익 보장 필요

포교 장르 강화·특화된 영역 확보 시급

불교방송의 한 관계자는 "불교방송 등 종교방송 4사에 대해서도 방송발전기금 면제 등의 혜택을 통해 광고 수입 격감에 따른 보호장치를 따로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공익 프로그램을 만드는 종교방송 등에 방송발전기금을 제작비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정 수입의 90% 이상을 광고로 충당하고 있는 불교방송이 광고 수입 의존도에서 벗어나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이를 위해서는 종교방송으로서 독특한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포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상업방송에서 주를 이루는 오락 프로를 지양하고 불교문화와 불교교리강좌, 신행상담, 큰스님 초청 법문 등 불교방송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고유한 포교 장르를 대폭 강화해 청취율 고양을 통한 위상정립에 힘써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자연히 광고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게 되고 광고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게 불교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또 방송광고영업을 담당할 직원을 현재 4명에서 2~3배 정도 늘려 광고영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후원회 활성화로 고정적인 소액회원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 이외에도 불교 실업인들의 명예이사 위촉 등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해 광고유치와 후원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문/화/소/식

동국불교미술인회 日 도쿄서 전시



김정걸 씨의 '목조 아미타 삼존상 불감'.

동국불교미술인회(회장 박현수)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 도쿄 한국문화원 7층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김용섭씨의 '일광삼존불상'을 비롯해 김의식씨의 '수월관음보살도', 김정걸씨의 '목조아미타삼존상 불감', 박현수씨의 '기룡관음도', 송근영씨의 '관세음보살입상' 등 불상과 불화 60여점이 선보인다.

박현수 회장은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동국불교미술인회는 회화, 조각, 공예, 단청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30여명의 불모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불교미술의 우수성을 일본에 알리고자 창립 기념 행사로 마련한 이번 행사는 한일불교미술 교류에도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회장은 "그동안 개인이 전시하는 일은 많았지만 한 단체에서 한국의 불교 미술을 해외에 알리고자 전시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안다"며 행사 의의를 덧붙였다.

김종섭 佛畵展(12월 7~12일)



김종섭 作 '오백나한도'.

오백나한이 저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표정에는 분명 공통점이 있다. 자애로움과 익살이 가득하다. 나한이 무서운 존재로만 각인돼 있었다면 분명 그림을 보는 순간 입가에 웃음이 머금을 것이다. 불화가 김종섭씨가 21m 길이의 한지에 선보인 '오백나한도'를 보면 말이다.

이렇듯 김씨는 불화를 단순한 모사가 아닌 특유의 익살과 재치, 정교함과 세밀한 필력을 동원해 색다르게 해석하려고 노력했다. 그 결실인 불화 40여점이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수월관음도'를 비롯해 '천수천안관음도' '지장보살도' '한산습득도' '관음도' '달마도' 등이 벽에 걸린다.

대체적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정교하게 터치돼 그림을 마주 대하면 마치 불보살이 살아움직이는 듯 생동감이 느껴진다. (054)571-8522

불교성지순례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주)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인도, 네팔 성지순례(20일간)에 동참하실 스님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만을 위한 성지순례를 최상의 조건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인도 불교 8대성지와 산치대탑, 아잔타석굴, 엘로라석굴, 카주라호, 포카라 등 인도와 네팔의 성지 및 주요 유적지를 상세한 설명과 함께 여유롭게 순례하는 최상의 일정입니다.

■ 출발일 : 12월 25일 동참금 297만원
※ 20명 한정 (현재 8분) 안내 : 이상일 이사 (60여회 인도순례)
● 일 정 : 뭄바이-엘로라-아잔타-산치대탑-카주라호-아그라-상카시아-코삼비-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취산)-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라-기원정사-룸비니-포카라-카투만두

■ 인도, 네팔 성지순례 15일 (출발일 : 1월 13일) 257만원
사부대중 누구나 동참 가능한 인도 성지순례 15일은 인도와 네팔의 주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정통적인 순례 일정입니다.
● 일 정 : 뭄바이-엘로라-아잔타-산치대탑-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취산)-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라-기원정사-룸비니-포카라-카트만두

■ 인도 성지순례 10일 (출발일 : 12월 28일, 1월 14일) 198만원
성지순례 10일은 부처님의 자취가 어린 부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순례하는 일정입니다.
● 일 정 : 델리-기원정사-룸비니-쿠시나가라-바이샬리-파트나-라즈기르(영취산)-보드가야-바라나시-아그라-델리

■ 미얀마 성지순례 6일 (출발일 : 12월 9일) 138만원
불탑의 나라 미얀마를 대한항공 전세기 편으로 순례합니다.
● 일 정 : 인천-양곤-바간-만달레이-양곤-인천

UIDUK UNIVERSITY
2005학년도 전기 위덕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신/편입생 모집(주 · 야)

1. 전형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정	장 소
원서교부 · 접수	일반/불교/사회복지/경영대학원 석사과정 - 2004. 11. 15.(월)~11. 26.(금), 17:00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 2004.11. 15.(월) ~12. 3.(금), 17:00	본대학 정문/대학원교학팀 http://grad.uu.ac.kr 대학원 입학안내
면접일시	일반/불교/사회복지/경영대학원 석사과정 - 2004. 11. 27.(토), 14:00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 2004. 12. 4.(토), 14:00	일반/불교/사회복지대학원 URIS관(공덕관) 302호 경영대학원 : 지혜관(인문관) 311호 교육대학원 : 금강관(예체능관) 210호
합격자발표	일반/불교/사회복지/경영대학원 석사과정 - 2004. 12. 6.(월), 10:00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 2004. 12. 13.(월), 10:00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2. 모집학과 및 인원
가. 신입생(석사과정 및 최고경영자, 불교지도자 과정)

대학원명	개설학과	개설전공	모집인원
일반대학원 (주 · 야)	불교학과	불교학, 밀교학, 응용불교학	석사과정 18명
	영어영문학과	영어학, 영문학	
	법학과	공법, 사법	
	외교통상학과	정치학, 경제학	
	정보전자공학과	전자공학, 컴퓨터제어공학, 반도체공학,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전기공학, 멀티미디어공학	
불교대학원 (야간)	종학과	진각종학, 밀교학	석사과정 5명
	불교학과	불교학, 불교문화학	
사회복지대학원 (야간)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실천, 정신보건복지,지역사회복지,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행정	석사과정 30명
	노인복지학과	노인복지	
경영대학원 (야간)	경영학과	인사 · 조직, 생산관리, 재무관리, 마케팅, 회계학, 국제경영	석사과정 25명
교육대학원 (야간)	교육학과	교육행정, 국어교육, 영어교육, 컴퓨터교육, 체육교육, 미술교육	석사과정 50명

※ 불교대학원 불교지도자 과정,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CEO) 과정 모집 중

나. 편입생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 중 결원 내에서 전적대학원에서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자에 한함

3. 전형방법 : 면접
4. 제출서류 : 입학원서, 졸업 · 성적증명서(편입생은 편입전 대학원), 전형료(50,000원)
5. 장학금 종류 : 성적장학금, 특별장학금, 면학장학금 등
6. 수험생 유의사항 : 입학원서, 졸업 · 성적증명서(편입생은 편입전 대학원), 전형료(50,000원)
● 우편접수자는 반드시 전형료(우편소액환)를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합니다. ※ 봉투 겉면에 '대학원 입학원서 재중'을 기재하기 바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나 대학원교학팀 〈☎ 054)760-1080 ~ 1083〉에 문의 바랍니다.
입시요강, 입학원서 다운로드(위덕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 http://grad.uu.ac.kr

www.uiduk.ac.kr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7>



또 하나의 승가, 국회

오늘 저녁 뉴스를 보니 이제 겨우 국회가 정상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국회의원들이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얼마나 국가 일에 정성을 다하여 입할지 무척 의심스럽습니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간에 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의사당에 들어갔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긴 정당의 목표는 정권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야당이 여당 되면 천재일우의 기회를 얻은 것이요, 여당이 야당 되면 곱게 승복할 수 없는 거야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게 정권을 잡고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나, 정권을 놓친 것에만 미련을 두고 있는 모습은 정말로 보고 있기 힘들고 민망해질 정도입니다.

국회도 승가입니다. 승가(僧伽)란 부처님의 법을 믿고 따르며 수행을 하려는 목적으로 모인 자들을 가리키지만 이 말은 본래 '무리, 모임, 집단'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인도에서는 목적을 함께 하여 모인 사람들의 무리를 '상가(승가)'라고 불렀으며, 이 말을 부처님도 빌려와서 교단을 승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구성원은 일단 승가에 들어오면 하나의 목적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개성을 버릴 필요까지야 없겠지만 다른 이들과의 화합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화합승'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오래도록 가장 훌륭한 가치를 위해 존속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어느 동네, 어느 동창회, 어느 문중, 어느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이겠지만 일단 배지를 달고 의사당에 자리를 갖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신분계급까지도 철저히 지워버리는 승가라고 해서 어찌 갈등이나 다툼이 없었겠습니까? 부처님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다툼 해결법을 계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다툼을 가라앉히는 일곱 가지 법은 깊이 생각해볼 만합니다.

부처님께서 발지국의 사마촌에 계실 때 어느 날 대중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그것을 다스리는 일곱 가지 방법을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다툼이 일어날 때에는 이렇게 다스려라. 먼저 본인이 있는 앞에서 다스리고, 기억을 떠올리게 하여 다스리고, 불완전한 정신이었을 때는 건강을 회복한 뒤에 정상으로 인정해주고, 본인의 자백에 의해 다스리고, 다수결에 의해 다스리고, 싸움을 끝내려면 풀로 땅을 덮듯 불문에 부쳐야 한다." <중아함 주나경>

틱낫한 스님의 설명을 빌리면 이 경전의 말씀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면 첫째, 얼굴을 마주 보고 앉아라. 둘째, 당사자들은 갈등을 생기게 만든 모든 세부적인 일들을 기억하여라. 셋째, 고집을 버리고 화해하도록 최선을 다하라. 넷째, 짚으로 진흙을 가리듯 덕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당사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해주도록 하라. 다섯째, 남들이 말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고백하라. 여섯째, 모든 대중들의 합의를 통해 일을 결정하라. 일곱째, 그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여라."

승가는 이런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해 왔습니다. 나라가 소중하면 국회라는 승가는 이런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침체로 자꾸 그늘져 가고 있는 이 나라 사람들에게 최소한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까지는 주지 말아야겠습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대한민국을 위해 존재하는 이름 국회의원
나라 소중하다면 머리 맞대고 문제 풀어야

승가는 종종 바다에 비유됩니다.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강물이 흘러 바다로 들어가면 강물의 본래 이름은 없어지고 그저 바다라고 불리게 된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크샤트리아, 바라문, 장자, 거사 등의 구별이 있으나, 출가하여 법복을 입으면 세속의 성은 없어지고 오직 석가의 제자라고 불려질 뿐이다. 출가한 대중은 마치 바다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출가한 사람은 본래의 이름을 버리고 석가의 제자, 사문이라고 해야 한다. 그들은 모두 나로 말미암아 생겼고 법을 따라 이루기 때문이다." <증일아함경> 제21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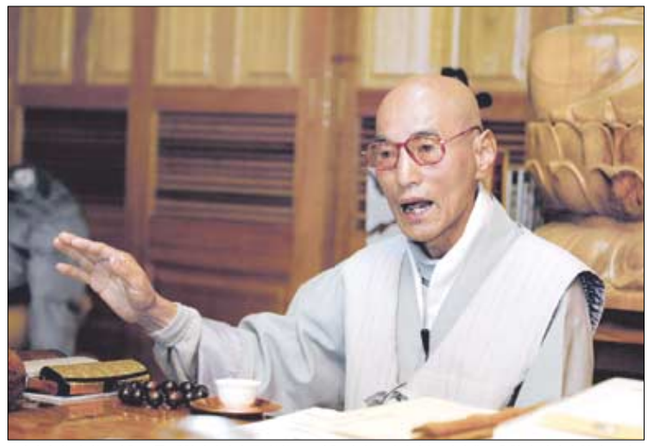
깨달음을 얻고자 부처님에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더 이상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던 그 화려하고 다양한 신분계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럽기 그지없던 자기 계급과 집안의 성을 버리고 석(釋)씨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예전의 기득권은 물론이요 피해의식 따위도 모두 내버리라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에 얽매이다 보면 최고의 목적인 깨달음에 다가가지 못할 것이요, 그 모임(승가)은 자칫 분열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미나 고래나 불성은 똑같다

지상 백고좌

정천 스님

(서울 도선사 조실)



'시절인연'이라는 것은 도를 깨치기까지의 끊임없는 노력을 말하는 것이니 늘 정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정천 스님.

베고 버려진 고목이 찬 나무를 의지하니(摧殘枯木依寒林)

몇 번이나 봄을 만나도 마음 변치 않았던고(幾度逢春不變心)

나무꾼도 오히려 돌아보지 않거늘(樵客遇之猶不顧)

목수가 이를 어찌 간절히 찾을까 보냐(郢人那得苦追尋).

서울에서 5시간을 허위허위 달려간 고성 문수암. 정천 스님께 법문을 청하자 스님께서는 대매 스님의 말을 인용해 위와 같은 게송부터 읊었다. 평소 언론에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스님은 이 게송을 통해 심경을 표현한 것 같았다. 여기서 베고 버려진 고목은 '이뭣고'와 평생 씨름하는 수좌를 지칭하는 것 같다. 이 고목은 몇 번이나 봄을 만나도 변하지 않는 기상을 보인다. 세인들이 자신이 있는 곳을 알더라도 자리를 옮겨 깊이 정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곧 부처라는 것이다.

누구 탓할 것없이 현재 모습이 중요

스님은 이 외에도 다른 글귀를 인용하며 수행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 지를 설명했다. 또 말씀은 자연스레 스님의 젊은 시절 수행담과 함께 수행자가 지켜야 할 몸가짐으로 넘어갔다.

정천 스님이 운허 스님에게 공부를 배울 때였다. 어느 정도 절에 오래 있다보니 스님에게 절 살림을 맡기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정천 스님은 살림을 맡으면 공부에 방해받을까 싶어 도망갈 궁리를 했다. 그러나 문제는 어른 스님들의 허락이 있어야 했다.

"우리는 어른 스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도록 교육받았고, 또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 어른스님이 야단치시더라도 안색으로 나타내면 안돼. 〈사미율의(沙彌律儀)〉를 보면 5년 동안은 예의범절을 배우잖아. 그것만 명심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천 스님은 날이 갈수록 갑각적이고 물질을 중요시하는 현실에서 발심해 수행하기란 참으로 어렵다고 전제하셨다.

'욕지전생사 금생수자시(欲知前生事 今生受者是:전생을 알고자 한다면 금생에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전생 일) 욕지내생사 금생작자시(欲知來生事 今生作者是:내생 일을 알고자 한다면 금생에 하고 있는 일이 바로 내생 일)'를 설명하시며 누구 탓을 할 것 없이 현재의 자신이 바른 모습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라고 강조했다.

스님이 생각하는 수행자의 바람직한 모습이란 어떤 것일까? 스님은 잠들기 전이나 일어나기 전 머리를 쓰다듬어 보라고 한다. 삭발한 머리를 쓰다듬다보면 자연스레 왜 출가했는지가 떠올려지고, 초발심을 되새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고 남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다. 스님은 또 '돈을 놓고 탁자 밑에서 죽는 것'이 가장 회향을 잘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다. 물질적 욕망을 놓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뜻 같았다.

"불교는 무시무종이라. 시작도 끝도 없어. 현대 과학이 고체, 액체, 기체, 분자, 전자, 미립자, 소립자, 허공까지 왔지. 그렇다면 허공의 모체가 있어야 돼. 진공(眞空), 묘유(妙有), 법신(法身)이라. 이것은 부처님도 감히 손을 못 대는 거야. 그러니 가섭존자가 그 법을 전하겠나. 전할 수 없는 법을 전하고 받을 수 없는 법을 받는 것이 진리야. 설하지 않은 법을 설하고 듣지 못한 법을 듣는다는 것이지.

부처님은 팔만사천 법문 하나도 설한 바가 없다고 했거든. 그런데 깨달음이란 것은 부처님 이전부터 존재했던 거야. 깨달아서 부처인 거지."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로 옮겨가자 말 그대로 장광설(長廣舌)이다.

"깨달음에는 돈오도 있고 점수도 있지. 또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이라. 즉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했지. 개미라고 불성이 작고 고래라고 불성이 큰 것은 아니야. 비유를 하나 들어 보이지. 서울 공기를 병에 담아와 그 병뚜껑을 여기에서 열면, 서울 공기는 줄어들고 여기 공기는 늘어날까. 막힌 것이 막힌 것이 아니라 통하는 것이 통하는 것이 아니거든. 집의 문을 열 때 공기가 연결되는 것으로 봤나, 문을 닫을 때 공기가 차단되는 것으로 봤나. 불생불멸의 오묘한 진리는 없어지지 않는 거야. 금으로 가락지를 만들면 형(形)은 변하더라도 체(體)는 안변해. 그것이 바로 연기법이야. 수연(隨緣)하면서 불변(不變)하고 불변하면서 수연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 내가 말하는 법문이 바로 여기에 다 들어있어."

스님은 수증기를 비유로 들었다. 물에 열을 가하면 수증기로 변한다. 이 수증기는 공중으로 올라가다 떨어진다. 여름이면 비가 되고 겨울이면 눈이 된다. 다시 말해 열을 가하면 순환하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즉 부증불감(不增不減)이다.

'시절인연'은 구도향한 끝없는 노력

"천지이치가 생주이멸(生住異滅), 생로병사(生老病死), 회자정리(會者定離)야. 생겼다 사라지고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란 말이야. 하나만 있으면 숫자가 되지 않아. 적어도 두개는 있어야 돼. 중생들은 현상계만 보고 있어. 일차원, 이차원, 삼차원을 넘어 사차원의 세계는 공한 세계인 것이야.

즉 '색불이공 공불이색(色不異空 空不異色)'의 세계란 말이지. 〈금강경〉에서는 모든 모양을 모양으로 보지 않고 진리로 볼 때, 생멸실상의 본질을 볼 때 깨달았다고 해. 수식관도 있고, 백골관도 있고, 묵조선도 있고, 간화선도 있고, 여래선도 있고, 조사선도 있어. 여래선은 물에 도장 찍는 것과 같고, 조사선은 허공에 도장 찍은 것과 같아. 방편으로는 염불이 제일 쉬워. 바닷물은 잠잠하지만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나. 물은 파도 소식을 알지만 파도는 물 소식을 알지 못하지."

스님은 당송팔대가중 한명인 소동파 이야기를 꺼내면서 깨달음 향한 끊임없는 참구도 당부했다.

소동파가 상총 선사를 찾았을 때다. 소동파가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을 해결하기 위해 법문을 청하자 상총 선사는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다가 무겁

마하몰 수험생합격기원용품 특별지상기획전

마하몰 eTrust eTrust 6년연속 인증기념 특별감사이벤트
이벤트 하나, 모든 구매고객에게 열반의 미소 CD를 드립니다.
이벤트 둘, 1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는 불보살캐릭터액자를 증정합니다.

지혜의 카드, 합격기원 붓다순금카드 이땅의 모든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지혜의 카드, 합격기원 붓다순금카드!!





▮ 합격기원 붓다순금카드 : 15,000원
· 재 질 : FINE GOLD 99.9%
· 색 상 : 검정, 녹색

▮ 합격기원 붓다순금카드세트 : 19,800원
순금카드(골드파우더)+열쇠고리+휴대폰걸이
· 중량금(1돈)카드 : 120,000원
· 붓다열쇠고리 : 5,000원
· 붓다핸드폰걸이 : 3,000원

붓다! 불다..?? 아하 붓다의 지혜로 시험에 붙는다구요..^^
이젠 지갑 속에 넣어 다니세요~! 합격의 행운이 함께 합니다.

지혜의 반지, 합격기원 반야심경 반지



▮ 반야심경 金반지 - 반야심경 전문270자가 각인된 金반지
· 14K : 245,000원 · 14K : 150,000원
· 18K : 352,000원 [외부(外部)] · 18K : 198,000원 [내부(內部)]

▮ 반야심경 銀반지 38,500원
· 은 92.5% 로듐도금
· 크기 : 폭 약 8mm

▮ 반야심경 목걸이(원형,사각) 48,000원
· 가로 18mm, 세로 33mm · 가로 21mm, 세로 32mm
· 재질 : Silver 92.5% · 팬던트와 체인 포함(은)

▮ 반야심경 팬던트 Gold
· 14K : 245,000원 · 18K : 352,000원 ※체인 별도



▮ 수험생을 위한 기능성음반
15,000원 → 13,500원
· 실 력 발 휘 – 결정적인 순간에 120% 능력 발휘, 시험도 업무도 가볍게 패스!
· 집중력향상 – 잠재 능력을 자극하는 서브리미널 메시지
· 플러스사고 – 마인드 컨트롤 효과로 자신감과 활력이 샘솟는다.



합장한 그 손이 내 손이라면 그 고통 참아내며 기원하리...
▮ 소원성취 합장초 : 17,000원 샘플형(소3개,대2개)
· 소(小)20개입 : 60,000원
· 대(大)20개입 : 100,000원



▮ 갓바위 소원성취 메달
49,500원 – 은(99.9%)이상
· 직경 : 40.0±0.1mm
· 표면처리 : 무광 프루프
· 제품구성 : 메달, 플라스틱 캡슐, 고급케이스





▮ 연실합장주
6,000원
살아있는 씨앗이므로 사용하시다가 실증나면 언제든지 연실의 아랫부분을 3mm정도 잘라 물에 담궈두면 발아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 연꽃핸드폰걸이
6,000원



▮ 연실열쇠고리
12,000원



▮ 연꽃목걸이(고급)
15,000원

· 재질 : 연실(연꽃씨앗) · 사이즈 : 18mm× 13mm (천연 연꽃씨앗이므로 크기가 일정하지 않음)
살아있는 연꽃씨앗을 이용해 핸드메인핑한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마하몰에서 알뜰 쇼핑하세요 ..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서 삼성,신한,LG카드로 5만원이상 결제시 무이자할부 혜택을 드립니다.
● 삼성 : 3개월 무이자할부(2004. 12. 31까지) ● 신한카드 : 2~3개월 무이자할부(2004. 12. 31까지) ● LG카드 : 3개월 무이자할부(2004.12. 31 까지)
※ 마하몰이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동아일보사, 한국경제신문사, 전자신문사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산업자원부가 후원하는"eTrust 인증제도"인증 심사결과, 인증업체(우수전문몰 부분)로 6년 연속선정되었습니다.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주문전화
Mahamall.co.kr 02-732-1520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006-01-0785-361 / 우체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 농협 053-12-113210 하동규



문수암에 조성되고 있는 '평화통일기원 청동약사여래대불'과 나란히 선 정천 스님. 16m규모의 이 대불의 점안식을 내년봄에 갖는다.

게 입을 연다.

"당신은 어느 스님을 친견하였소?"

"네, 소생은 여러 고을을 전전하면서 많은 큰 스님을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여지껏 깨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어찌 무정설법(無情說法)은 들으려 하지 않고 유정설법(有情說法)을 청하시오?"

사주·관상 좋아도 마음상만 못해

여태껏 수많은 선지식을 친견해 여러 가지 법문을 듣고, 또 자신이 불경과 조사어록을 많이 봐왔지만 무정설법을 듣는다는 얘기는 처음이었다. 즉 돌, 물, 산이 설법을 한다는 것이다.

무정설법 네 글자에 온 정신을 쏟아 참구하며 집으로 돌아오던 중 소동파는 폭포수를 보고 크게 깨닫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깨달은 심경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계곡소리가 부처님 장광설인데(溪聲便是長廣舌)

산 모습이 바로 부처님 청정한 법신이 아닌가(山色豈非淸淨身)

여래의 팔만사천 미묘법문을(如來八萬四千偈)

다른 날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이랴(他日如何擧似人)

"흔히들 시절인연이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시절인연이라는 것도 도를 깨치기까지의 끊임없는 노력을 말하는 거야. 시절인연이 무덕대고 성숙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야. 무정설법 넉자에 마음을 빼앗긴 채 자신과 주위 환경을 잊었던 소동파 같은 끊임없는 참구, 이것이 곧 시절인연인 것이요, 깨달음에 이르는 필수과정이야. 결과만 보지 말고 과정을 소중히 생각하라는 것이지."

계율에 대한 스님의 생각도 궁금했다.

"시대에 흐름에 두루두루 맞는 것이 진리이자 도이고 계율이야. 물은 그릇에 따라 변해. 수기설법(隨機說法)이라. 기틀을 닦아야 법을 설하고 병을 알아야 약을 지어 줘. 환자가 있어야 의사가 필요하고 도둑이 있어야 경찰이 필요해."

어려울때 남을 위한 마음 내보자

마지막으로 스님은 경제난 때문에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법문해 주었다.

"마음을 잘 써야 복을 받아요. 남을 위해 보살행을 해야 해. 사주가 아무리 좋더라도 관상만 못하고, 관상이 아무리 좋더라도 마음상만 못해. 요즘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힘들다고 인상만 쓰지 말고 안색을 환하게 하고 남을 위해 마음을 내봐요. 보살행을 실천해 남을 즐겁게 해주면 국가경제는 저절로 살아나는 것이지."

글=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산길에 개미떼 나타나자 30리 돌아가

정천 스님은 정천 스님은 1947년 청담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전국 제방선원에서 수십 안거를 성만했으며 하동 쌍계사 주지, 영천 은해사 주지, 조계종 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스님은 前 조계종 종정 성철 스님을 모시고 수행했으며, 現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과도 같이 수행했다.

법전 스님과 수행할 때의 일화 하나. 법전 스님과 정천 스님이 걸망을 지고 산을 넘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개미떼가 출현해 길을 가로막았다. 그냥 지나가면 도탑점이 지적이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개미떼가 발에 밟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삼십리를 돌아갔다.

최근의 일화 하나. 문수암 인근 마을에 건축물 폐기장이 들어선다는 얘기가 돌았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반대 집회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노스님이 나타나 이러한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스님은 사람을 시켜 쌀 50되와 돈 50만원을 마을에 전달했다. 그 노스님이 바로 정천 스님이다.

스님은 3년 전부터 문수암 약사전에 높이 16m 규모의 '평화통일기원 청동약사여래대불'을 조성하고 있다. 내년 봄쯤 완공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청담문도회 회장 등을 맡고 있는 정천 스님은 현재 고성 문수암에 주석하고 있다. 저서로는 〈피안의 향훈〉 등이 있다.



법현 스님의

스님이야기

혜학 스님 (上)

혜학(慧學) 스님은 진리의 세상에 세번 태어났다. 첫번째는 아버지인 영암(影庵)스님으로부터 불교에 대한 눈을 뜬 것이다. 영암 스님은 여러 곳에서 수행하다 1958년 다 허물어진 망해사(望海寺)를 중건, 태고종 울산분원장도 역임하다 1977년 이른 나이로 열반하였다. 어린시절 형제들과 함께 눈을 떠보면 늘 예불을 하고 나서 참선을 하고 계셨지만 굳이 강권하지는 않으셨다고 한다. <금강경>을 통째로 외면서 종성을 하던 모습에서,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어 부처님의 길을 갈 아들이 누구인가를 조용히 물어서 용기있게 손을 들고 대답하자 힘있게 그러라고 격려해 줌으로써 어린 혜학을 거듭나게 했다.

두번째는 태고종 종정을 역임하셨던 덕암 스님에게서다. 1979년 동국대 불교학과에 진학하여 1학년 때 아차산 영화사에서 덕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혜학'이라는 이름을 받아 정식 승려가 되었다. 영화사 바로 아래인 화양사에서 덕암 스님을 시봉하면서 자상한 교육을 받았다. 분규 당시 이야기가 잘 되다가도 돌아서면 묘하게도 입장을 바꿔버리던 상대 스님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출발이 바람직해야 하고 얌전하게 사는 것이 바른 승려라는 말씀을 많이 하였다.



그림 · 문병성

세번째는 군법사로 임관하기 위해서 당시 용주사 주지였던 정무 스님 앞으로 승적을 올린 때이다. 태고종 승려라고 할지라도 조계종의 승적을 가져야 하는 현실적 규칙에 따른 것이었지만 정무 스님도 잊을 수 없는 분이다. 정무 스님은 엄하면서도 매우 자상하셨고, 혜학 스님에게 남다른 애정을 베풀어 주셨다. 덕암 스님께 받은 계(戒)의 중요성을 인정해 주시고 법명도 같은 '혜학'으로 그대로 쓰도록 배려해 주었다. 정무 스님은 늘 효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그래서 그런지 혜학 스님에게 은사인 덕암 스님의 훌륭함을 칭찬하시면서 잘 모시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혜학 스님이 원주에서 군법사로 재직하던 시절, 정무 스님은 여주 신륵사 주지로 계시면서 군법당 불사에 신도들을 동원 지원해 주시고 법문도 해 주시면서 군포교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혜학 스님은, 늘 가까이 모시면서 가르침도 받고 효도도 해 보리라 마음먹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진데다가 아버지인 영암 스님과 은사인 덕암 스님이 이미 열반하셔서 더욱 그리워지는 스승이 정무 스님이란다.

이렇게 세 분 스님의 조화로운 지도로 거듭난 혜학은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군법사로 임관하여 공군법당에서 포교활동을 하였다. 모든 법사들이 다 열악한 환경에서 한창 고민하고 있는 피끓는 젊은이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으로 세상을 살도록 지도하지만 혜학이 처음 부임한 횡성 공군기지는 법당도 무엇도 없는 곳이었다. 사무실만 얻어서 법요집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쓰고 정신교육관에서 매주 법회를 보면서 불교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의욕에 찬 생활을 하였다.

이때 같이 임관한 법사 한명이 교통사고로 순직하는 사고를 겪었다. 故 이 동신 법사의 영결식장에서 그 몫까지 더 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고 열

군사정권 시절 군대서 포교
'아침이슬' 부르자 법당 꽉 차

심히 포교하였다. 외곽초소 경계근무병들에게는 지프를 얻어 타고 다니면서 근방의 사찰에서 시주 받은 초코파이와 라면을 나누어 주고 부처님 이야기가 적힌 쉬운 포교자료집을 전달하며 손을 잡아주면 고향의 아버지를 대하는 것 같은 그들의 표정에서 포교하는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공군교육사령부에서도 법사로 있었는데 새로운 훈련병들에게 각 종교를 홍보하는 시간에 신부나 목사는 성경말씀대로 진지한 이야기를 했는데 혜학 스님은 엉뚱하게도 '아침이슬'을 불러제꼈다. '아침이슬'은 당시 금지곡으로 데모할 때나 부르던 노래였다. 전두환 정권하에서, 그것도 군부대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분위기였는데 혜학 스님이 그것을 한 것이다. 천여 명이 넘는 병사들이 '아침이슬'을 부르는 장면은 당시 그 자리에 있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감동의 도가니였고 그래서 그런지 그후부터 법당엔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미어터질 지경이었다.

자리가 없어서 구석에 앉는 것은 고사하고 법당 밖이고 산기슭이고 사람들로 가득 차서 어찌해볼 도리가 없을 정도였다.

혜학에게 법문을 듣고 부처님 진리를 접한 사병들과 장교들이 제대해서 망해사로 찾아와 차 한 잔 마시면서 그 때 이야기를 추억담으로 나눈다. 스님은 지금도, 비록 믿음의 방향은 다르지만 자신의 종교를 한사람에게라도 더 전하여 하나라도 더 포교하고자 노력하며 고민했던 다른 종교 성직자들과도 좋은 인연으로 만나고 있다.(계속)

■ 관악산 자운암 상임법사

열대과일의 여왕 망고스틴
mangosteen
수입개시
망고스틴은 '열대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려집니다.
마늘처럼 생긴 과육은 향기가 있고 새콤달콤하여
열매 중의 여왕이라고 할 정도로 맛이 뛰어납니다.
망고스틴은 두리안을 드시고 난 후, 후식으로 드시면
두리안의 특이한 향이 희석됩니다.
가격 : 1박스 4.5KG(45개~50개들이) 90,000 원
망고스틴을 드시는 방법
과일의 중간지점을 손끝으로 눌러서 돌리신 다음,
약간 비틀면 잘 따집니다.
자주색 껍질 안에 눈처럼 새하얀 과육이 숨어 있습니다.
양당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E-Mail : durian1357@hanmail.net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예금주 조명숙)
www.durianshop.com 한글로 두리안샵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과일의 왕 두리안
부처님도 즐겨드셨습니다
강장효과가 뛰어난 과일의 왕
DURIAN
가격 : 3kg 35,000원
6kg 60,000원
12kg 120,000원
두리안과 망고스틴은 가장 싱싱하고
당도가 높은 시기에 수확하여 영하 40도에서
급냉보관하여 수입하므로 원산지맛 그대로
안방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빙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법화 정법회.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국립제주박물관 신대곤 학예실장(중앙)이 11월 6일 '갤러리 토크'에 참석한 관람객들에게 유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제주박물관



성덕대왕신종 비천문



기마인물형 토기



토우장식장경호



천마총 금관

박물관으로 고고학여행 가요

관장 · 큐레이터들 주말에 직접 문화재 해설

박물관들이 관람자와 전시물 사이에 놓인 벽을 허물고 나왔다. 경주 · 김해 · 제주박물관은 주말시간을 이용, 우리 전통문화와 유물의 향취를 듬뿍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박물관 관장들이 직접 관람객들을 신비한 고고학의 세계로 안내하거나, 국보급 문화재에 대한 해설에 나서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립김해박물관(관장 성낙준)은 11 · 12월 매주 토요일 저녁 고고학자인 성낙준 박물관장과 함께 한국 고대 유물의 발굴 현장으로 떠난다. 이번 '토요일 밤 고고학 여행'에서는 성 관장과 함께 임학봉 학예연구실장이 관람객들에게 전시유물을 중심으로 한 갤러리 토크, 슬라이드 쇼, 고고학 담론, 유적 발굴성과 소개 등을 통해 고고학을 재미있게 설명한다.

토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되는 고고학 여행의 일정별 주제는 △20일-고인돌의 세계 △27일-선사 토기 이야기 △12월 4일-고대 토기의 아름다움 △11일-조개더미 속의 정보들 △18일-고층고분의 의미 △25일-우리지역의 문화유산 등이다.

지난 7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우수 가족영화를 상영하는 김해박물관은 11월부터는 매주 일요일 오후에도 무료 가족영화 관람 시간을 갖고 있다. (055)328-0893

#국립경주박물관(관장 김성구)은 매주 금요일 밤 김성구 관장과 담당 큐레이터들이 소장 국보급 문화재를 해설하기 위해 나선다. 이번 '금요일 밤의 국보순례' 행사에서는 매회 2~5점의 국보급 유물들을 선정해, 관객들이 관람을 하면서 해설을 듣는 시간이 마련됐다.

금요일 밤 7시에 열리는 행사는 △19일-신라의 탑과 건축 △26일-황금의 나라 신라 △12월 3일-사리장엄 △10일-고분에서 출토된 유리의 고고학적 의미 △17일-안압지 출토품을 통해 본 신라인의 생활 △24일-불교조각의 매력 △31일-에밀레 에밀레, 성덕대왕 신종! 등이다. (054)740-7518

#국립제주박물관(관장 구일회)은 11 · 12월 매주 토요일 저녁 지역 문화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작은 사랑방'으로 변한다. 제주박물관이 토요일 저녁 6시 실시하는 '갤러리 토크'가 사랑방의 주인공이다.

'갤러리 토크'는 전문용어로 설명된 전시유물과 제주의 고고 미술을 관련분야 전문가로부터 강의를 듣고,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 제주 선사시대 토기, 용담동 철검, 제주여성신화, '탐라순력도'와 제주지리, 제주출토 한국 도자기 등에 대한 이야기가 대화형식으로 재미있게 설명된다.

행사 일정은 △20일-제주의 여성신화 △27일-갤러리 투어 △12월 4일-제주시 용담동 출토 철기이야기 △11일-해외도자와 제주와의 관계 △18일-탐라순력도와 제주도의 역사지리 등이다.

제주박물관은 이와 함께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박물관 자원봉사자들과 전시실을 돌아보는 '갤러리 투어(11월 27일 오후 6시)'와 연계해 국립민속국악원 초청공연(오후 3 · 7시)이 같은 날 개최된다. 12월 25일엔 제주시향 이영만 씨 등으로 구성된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 (064)720-8021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전시

고구려 고분벽화 모사도 공개

국립공주박물관, 감신총 · 성총 등 50여점



진파리 1호 무덤 널방북벽에 남은 벽화를 모사한 작품. '현무와 소나무'는 구름 · 연꽃 당초무늬가 가득하고 그 가운데 거북과 용이 엉켜 있다.

국립공주박물관(관장 손명조)은 고구려 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고구려 고분벽화 모사도를 11월 28일까지 개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구려 고분벽화 모사도는 감신총, 용강대총, 성총, 통구12호, 천왕지신총, 쌍영총, 개마총, 수렵총, 진파리1호, 강서대묘, 강서중묘 등 총 11기의 집안 및 평양지역 고분 모사도로 50여점이 선보인다. 벽화는 무덤 주인공의 초상과 생활모습, 종교생활 산수 등의 생활풍속도와 연꽃 넝쿨 불꽃 무늬 등의 장식문양 등이 담겨있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모사도는 고분벽화의 세부까지 묘사하여 자료적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박물관 측은 밝혔다. gongju.museum.go.kr, (041)850-6360

전통 꽃문美 형상화

과천 갤러리 봄, 한두희 개인전

전통 꽃문의 아름다움을 작품으로 형상화한 조각가 한두희 씨의 개인전이 11월 26일까지 과천 갤러리 봄에서 열린다.

한 씨는 전국을 누비면서 구한 한옥의 방문이나 창문틀 위에 도자기법으로 국화, 채송화, 과꽃, 벚꽃의 꽃잎, 잎사귀 등을 빚어 붙여 작품을 만들었다. 한 씨가 이번 작품들을 제작한 계기는 2년 전 범어사 관조 스님이 펴낸 '꽃문'을 보고서였다. (02)502-0606

이번주 열리는 영화제 2곳

무한 상상의 나래 맘껏 펼쳐요

디지털 영화제 17~21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

300여편의 디지털 영화가 상상력의 나래를 활짝 펼친다. 11월 17~21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막을 올리는 레스페스트 2004 '상상 대공습!'은 영화 외에도 디지털 영상 관련 세미나, 코지앤단 일러스트 전시, 락대락(Rock vs 樂) 콘서트, VJ 파티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즐비하다.

'영화, 음악, 아트와 디지털의 만남을 통한 영상축제'를 표방하는 레스페스트 2004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코너는 리바이스 CF로 유명한 조나단 글레이저의 상업광고와 뮤직비디오, 장편 영화 등을 모은 특별전이다.

199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아트갤러리에서 '저해상도 필름 페스티벌로 시작된 레스페스트는 98년부터 레스페스트로 이름을 바꿔 전세계 디지털 아트워크를 소개하는 글로벌 투어 영화제로 변신했다. www.resfest.co.kr, (02)749-7747



코지앤단 일러스트 전시회에서 선보일 '시부야'. LA에서 활동하는 코지앤단은 '레스 글로벌 시티'를 테마로 서울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의 상영관을 일러스트로 작업했다.

소외받는 이들… 따스하고 열린 시선

전주인권영화제 18~20일 전북대 합동강당

'인권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영화여 앞장서라'는 주제로 제 9회 전주인권영화제가 11월 18일부터 3일간 전북대 합동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국가보안법을 다룬 황철민 감독의 개막작 '프락치'를 시작으로 반전 · 평화 · 여성 · 감옥 · 성적소수자 등의 인권문제를 다룬 22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이 가운데 먼 곳에서부터 등 6편의 캐나다 애니메이션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폐막작으로는 지난해 사병으로서 파병철회를 외치며 병역거부를 선언했던 강철민 씨의 이야기를 다룬 김환태 감독의 '708호 이등병의 편지'가 상영된다.

부대행사로는 2차 대전 피해자 중심으로 결성된 '시베리아 삭풍회'가 참여하는 '전쟁피해자 증언회'와 '부시 · 블레어 · 노무현 전범민중재판운동'을 위한 기소인 모집, 아동 권리를 다룬 애니메이션 '희망으로 그리는 세계' 비디오 판매 등이 진행된다. chrff.icomn.net, (063)278-9331

강지연 기자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15일 12:20 황승환의 백팔가요
16일 16:45 자용 스님의 룸비니 동산
17일 17:10 무명을 밝히고
18일 10:05 BBS 신행상담실
19일 09:05 거룩한 만남
21일 18:15 문화공감-상상

Btn 불교TV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15일 08:20 혜정 정사의 밀교수행강좌
16일 17:30 다큐멘터리 '성철 큰스님'
17일 12:00 경우 스님의 아미타경 특강
18일 12:00 산중대담 선지식을 찾아서
19일 20:30 영어법문 디스커버링 부디즘
20일 16:40 부처님경전이야기
21일 19:00 불가비전수행 선무도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김병조의 다시 듣고 싶은 노래 (11월 20일 저녁 8:05~9:00) 마음의 노래, 즐거운 노래, 다시 듣고 싶은 노래를 김병조의 구수한 입담과 기지로 다시 들을 수 있다. '김 교수의 명심보감'이란 코너에서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있다.

■**불교텔레비전**: 명상음악산책(11월 19일 저녁 9:50~10:10) 명상음악을 통해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의 몸과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 인도와 티베트, 유럽의 명상음악과 뉴에이지 음악을 통해 진정한 내안의 자유와 평화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클릭! 불교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스님용 순모 모자



불교문화상품전문쇼핑몰 마하몰이 겨울을 맞아 100% 순모로 된 스님용 모자를 선보인다.

손으로 직접 짠 순모 털모자는 속감까지 덧대 껄끄러운 느낌을 막고 보온에도 뛰어난 효과를 보여준다.

관음손에서 내놓은 겨울상품. 가격 3만5000원. (02)732-1520

게시판

공부합시다

부산 대원불교대학 특강 부산 대원불교대학은 11월 23일부터 대원불교대학 4층 강의실에서 개교기념 특별기획강좌를 개최한다. 개설 강좌는 범본 천수경 정해(최봉수), 반야심경 정해(김사업), 법구경 정해(허경구), 불교수행론 특강(장휘옥) 등이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 (051)583-7700

고령 사회와 생애전략 가족아카데미아(원장 이동원)는 '고령사회와 생애전략-준비된 노년은 즐겁습니다' 연구 발표와 평가회를 11월 18일 오후 12시30분부터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 룸에서 가진다. (02)732-8146

함께 해요

사회복지 유공자 추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12월에 개최될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를 앞두고 불교사회복지 유공자를 추천받는다. 접수는 11월 26일까지. 시상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단체운영, 사회복지발전공헌, 자원봉사 활동,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등 네 부문이다. (02)723-5101

불교 수행법 특강 서울 불광사는 조계종 기본선원장 지환 스님을 초청, 불교수행법 특별강좌를 연다. (02)420-3200

고3 사회적응 무료강좌 부산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은 수능시험을 마친 고3을 위해 11월 18~12월 17일 10회에 걸쳐 진로 및 직업선택, 성공적인 대학생활 등의 교양강좌와 화장법 직장예절 등 다양한 무료 강좌를 운영한다. 신청접수는 30일까지. (051)625-0709

어르신 일거리 사업 모집 2004년 12월~2005년 2월 중 구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053)254-2562, 257-6367

가사도우미 파견 부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임산부 여성장애인, 중증 · 고령 독거 여성장애인 등을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서비스를 시작했다. 3개월 파견을 기본으로 하며 상담후 연장이 가능하다. 무료. (051)868-3397

가사도우미 교육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은 11월 15~19일 오전9시~낮12시20분 가사도우미 교육을 실시한다. 서류를 지참해 방문 접수. (051)782-5005~7

뮤지컬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거창문화센터는 어린이 뮤지컬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를 11월 20일 오후 2시, 4시에 대공연장서 공연한다. 관람료는 일반 8,000원, 할인 6,000원, 회원 5,000원. (055)940-3061

김장김치 후원 부산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지역 관내 독거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김장김치를 후원한다. (051)758-4445

전주국제영화제 홍보 · 웹마스터 모집 전주국제영화제(사진)측은 11월 18일까지 영화제 홍보와 홈페이지 관리를 맡을 웹마스터를 모집한다. 홈페이지(www.jiff.or.kr)에서 지원서 내려받아 접수. (063)288-5433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원 모집 한국자유연총연맹 해남군지부는 교통정리봉사, 학교폭력추방과 범죄예방, 선도활동 등에 앞장설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원을 모집한다. (061)536-5297

무료 문예강좌 부산문인협회는 무료 시민문예강좌를 개설한다. 매주 화 · 금요일 동보서적 4층 시민문화홀에서 열린다. 수필의 특성, 동시의 창작 등을 교육한다. www.blo.co.kr, (051)632-5888

무료 정보화교육 마산 가고파문화센터는 시민정보화교육 지원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개설되는 강좌는 엑셀 · 인터넷 · 컴퓨터 기초, 한글97. 11월 29일에 개강해 2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simin.masan.go.kr, (080)222-9696

한밭청소년가요제 대전 대덕구청소년수련관이 제 5회 한밭청소년가요제를 개최한다. 11월 20일까지 신청접수 마감. 예선은 27일 오후 2시 대덕구청소년수련관 광장에서 열리며 중고생 및 청소년이 대상이다. (042)626-7718

우리 자수전 경기도 박물관은 12월 26일까지 박영숙 허동화 소장 자수 특별전 '실로 잣는 꿈-황홀한 우리 자수'전을 개최한다. 불교 · 왕실 · 생활 · 어린이 자수 등을 선보인다. (031)288-5380

즐겁게 떠나요

인도 8대 성지 걸망순례 경기불교문화원은 녹야원 부다가야 라지기르 쿠시나가르 등 인도 부처님 8대 성지 걸망 순례를 12월 23~1월 12일(20박 21일) 진행한다. 접수 마감은 11월 22일이며 동참금은 198만원 예정. (031)251-1083

20면 상식 퍼즐 정답

고	고	학		사		
색		명	산	대	천	
창			성		수	
연	화				경	장
	산		지			생
	섬	섬	옥	수		불
		광		구	인	사

신행수기

슬픈 얼굴의 약사여래불 〈하〉

임풍금 (광주시 광산구)

구급차 안에서 나는 또 기도를 드렸다. 내 마음 속에 항상 계신 부처님, 어머님이 가시기엔 아직 이릅니다. 부처님은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머님보다 젊고 힘이 있는 저에게 고통을 주신다면 어떤 것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무 관세음보살.

나는 죽기살기로 부처님께 온갖 기도를 다 바치며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처절한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허우적대는 나의 처지가 불쌍하고 가련했던지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광명의 빛을 한번 더 주셨다.

어머님의 기적같은 쾌유. 그 어떤 고통도 괴로움도 외로움도 철저히 나의 것으로 보듬는 나의 생활습관, 이런 것의 대가일까? 아니면 그 무엇일까.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또 한번 살만한 가치를 부여해 주셨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32년 전 대구 제 2군 사령부 현역 근무시절에 팔공산 갓바위가 그렇게도 가고 싶었다. 팔공산 갓바위 부처님(약사여래불) 참배를 금년 가을에서야 다녀옴으로써 삼십년 전의 자그마한 소원 하나를 최근 이루었다. 이 고장 불자들은 쉽게도 다녀오련만 나에게 팔공산 갓바위 참배는 희망사항에 그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참법을 알고자 하는 나, 아는 법을 실천하고자 하는 나, 이런 나를 만들고자 원을 세웠던 내가 팔공산을 오르는 발걸음은 전혀 힘들지 않았다.

참으로 이상했다. 슬프디 슬픈 얼굴로 나를 바라보는 갓바위 약사여래 부처님! 하마터면 나는 소리내어 울 뻔 했다. 한량없는 자비로움과 광명이 가득 넘치는 웃음 띤 얼굴의 부처님만을 상상했던 내 생각은 여지없이 빗나가고 말았다.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을 다 짊어지고 계신 저 얼굴!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뒷날 큰아들 녀석에게 슬픈 얼굴의 부처님 이야기를 했다. 아들은 뜻밖에도 이런 얘기를 했다. "어머니, 이 세상 불행한 불자들의 고통을 다 거두어 짊어지신 까닭이 아닐까요?"

어쩌면 내가 바라던 대답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갖가지 소원을 빌고자 십만 인파가 운집했다는 보도는 나를 또 한번 놀라게 했다. 슬픈 얼굴의 약사여래불!

이제 그 고통의 얼굴을 접어두시옵소서. 나는 내 육신이 다할 때까지 기도 속에서 살 것이다. 오직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든든한 부처님의 뒷심만을 믿고 기도한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 이보다 더 큰 후원자가 또 있을까? 내가 불법에 좀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닥쳤던 고통과 수많은 참담함과 쓰디쓴 인생 역경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나는 큰스님들 법회에 자주 참석한다. 법회때마다 접하게 되는 수많은 법문들은 나를 매혹시키기에 부족하지 않다. 내 삶 또한 매력 넘치는 그런 법문들처럼 생동하는 것이고 싶다.

내가 다니고 있는 절의 스님께서 어느날 "총무보살님은 죽으면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소?"하셨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니 아무것으로도 태어나고 싶지 않았다. 다른 보살님들은 하나같이 꽃으로, 나비로, 남자로, 미인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했지만 나의 대답은 왜 그랬을까? 부질없는 세상사에 미련은 없었다.

내 과거가 슬픈들 어떠하며 미래가 기쁜들 흔들릴까? 오직 주어진 귀한 내 삶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뿐이다. 그래서 언젠가 내가 다시 팔공산 약사여래불을 참배할 때에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부질없는 집착들을 죄다 소멸시킬 수 있는 기도를 드릴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슬픈 얼굴의 약사여래불은 보지 않을 것이다.

지나쳐도 넘쳐도 좋을 것은 기도요, 효도일 것 같다. 부처님은 분명코 이 세상에 펼칠 만한 가치의 메시지만을 전하셨던 영원한 구원자가 아니셨던가.

불법을 조금이나마 아는 자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보다는 행복한 존재다. 문득 달라이라마의 한 기도문이 생각났다.

"우주가 다 할 때까지 중생이 남아 있는 한 나는 세상의 불행을 없애는 자로서 남을 것이다."

내 자신 이런 원을 세우지는 못한다 치더라도 내 생애 가장 불행했을 때 부처님 앞에서 다짐하고 양심과 약속한 그 기도만은 꼭 지키리라. 앞으로 어떠한 괴로움이 닥쳐도 참다운 불법에 기대는 기도를 놓지 않을 것이다. 주어진 나의 일을 함에 있어 끝을 보이지도 않고 내세우지 않는 이타행을 실천해 보일 것이다.

저 멀리 팔공산의 슬픈 얼굴의 약사여래불을 염송해 본다. 아아 너무나도 감사한 내 삶이다. 나무 관세음보살. (끝)



그림 · 김홍인

부처님이 슬퍼 보일수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리라

릴레이 수행일기 〈하〉



김종관
한국소비자보호원 과장

안거때마다 가족들과 함께 정진 '금강경' 독송과 참선으로 하루 마감

이뭣고~

독경, 간경, 사경 위주의 공부를 하다가, 인간의 한 생명은 한 호흡에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발견하고는 참선에 관심을 두게 됐다. 새천년의 시작을 알리던 2000년에 장모님, 큰처형, 아내와 함께 24시간 365일 화두참선도량인 조계종 수선회에서 현담 스님으로부터 참선교육을 받고 지금껏 안거때마다 4명이 함께 방부를 들여 정진하고 있다. 사람몸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는 더더욱 어렵다 했는데 가족이 함께 선방에서 정진한다는 게 얼마나 신심나는 일이겠는가.

하안거 때 생애 처음으로 방부를 들여 지리산 서암정사에서 3박 4일간 용맹정진할 때 철야정진중 선방 바닥에 머리를 쾅하고 박던 때를 생각하면 용맹정진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생각해본다.

월드컵이 한참이던 지난 2002년에는 송담 스님께서 주석하고 계시는 용화선원 화두불명십선계 법회에서 법명을 받았다. 내가 받은 법명은 송주(松州).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당신의 법신을 이땅에 회향하신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전하겠다고 다짐하며 조계사청년회에서 본격적인 신행활동을 시작한지 10년 만에 법명을 받았다. 송담 스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 내게는 더욱 소중하다. 뿐만 아니라, '이뭣고' 화두까지 받았으니 본격적인 참선수행을 시작한 것인데, 참선 수행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청년회원으로, 직장동료들과 함께 신행활동을 하면서 외부활동이 잦다 보니, 비록 장모님이나 아내처럼 용맹정진하진 못하지만 하루하루를 회향하면서 <금강경>을 독송하고, 영가발원문을 외우고 5분씩 참선하며 조금이나마 꾸준히 참선하는 습관을 들여가고 있다. 그리고 사찰참배를 갈 때마다 그 사찰의 주전각에서 삼배 후 <금강경>을 독송하거나 20~30분 정도씩 참선을 한다.

수선회 선방에 다니면서 참선수행하시는 스님들에 대해 알게 됐다. 그중에서도 제주도 남국선원장으로 계시는 혜국 스님은 2002년 가을에 봉인사 자광전 개원3주년 기념법회 때 처음 만났다. 산본의 법해사에서 자동차로 봉인사까지 모시는 인연을 맺었는데 오른손 손가락 3마디를 연비하신 모습을 직접 친견하고는 실로 수행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얼마 전에 구입한 혜국 스님의 <인연법과 마음공부>라는 책은 문고판이지만 선방에서 직접 수좌들과 함께 실참실수하며 선 지도에 앞장서고 있는 스님의 올곧은 수행정신과 은사인 일타스님과의 일화, 마음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담고 있어 참 수행을 원하는 불자들에게 권하고 싶다.

불교는 수행의 종교이다. 초발심때 '불교를 믿고 신행함으로써 내가 행복해짐을 믿으라' 하셨던 무진장 스님의 법문은 내가 불교를 본격적으로 신행하게 한 계기가 되었으니 무진장 스님께 감사드린다. 교육을 통해 본격적인 참선 수행의 길로 이끌어 주신 현담 스님께도 감사드린다. 내가 신행생활에서 사경이나 참선수행하는 진정한 불제자가 되리라 발원한 것은 '모든 중생의 행복과 이익'을 위하여 이 사바에 나투신 부처님께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연애 6년, 결혼 5년 동안 늘 나와 함께 하며 조계사청년회 연수원장을 맡게 되어 다소 가정생활에 소홀할 수 있음에도 자신도 주말에 불교대학에 다니니 피장파장이라며 격려해 주는 도반이자 아내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부처님법 만난 것도 행운이지만, 온 가족이 함께 수행정진하고 세세생생 불법구족을 발원하며 진리의 길로 간다는 것은 정말로 나에겐 큰 행운이다.

신행수기 잘 쓰려면 ⑤

문장 주어 · 서술어가 기본…관형어 등 추가

●문장의 요건

한 편의 글이 완성되는 과정은 대체로 주제의 설정과 소재의 선정이 끝나면 구성을 한 뒤 바로 집필로 들어가게 된다.

정확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적어도 문장과 문체, 문단 나누기, 묘사와 서사 등에 대해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진다. 그 외에 부속 성분으로 이미지를 선명하게 하거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관형어나 부사어가 붙는다.

관형어는 '어찌하는' '어떤' '무엇 무엇의' 같은 말로 다른 단어를 수식한다. 부사어는 '어찌' '어떻게' '어찌하게' '…등으로'와 같은 말로 다른 단어를 수식한다. 수식어는 ①심상(이미지)을 선명하게 할 때나 ②의미를 분명하게 할 때 사용하면 좋다.

●정확한 문장 쓰기

정확한 문장이란 문법에 맞는 문장을 가리킨다. 문법에 어긋나면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뜻이 명확하도록 문장을 써야 한다. 문법에 맞는다고 해서 언제나 뜻이 분명한 것은 아니다.

예시)

그분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참으로 극진했다(X).

아이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참으로 극진했다(O).

글쓰기가 쉬운 것 같아도 틀리지 않고 제대로 쓰기란 쉽지 않다. 소리 내어 몇 번씩 읽어 보고 부단한 퇴고를 거쳐 어법(語法)에 어긋나지 않는 바른 문장을 쓰도록 해야 한다.

맹난자(수필가, '에세이문학' 발행인)

전문은 www.buddhanews.com에서 보세요

기도처 지연속에 보금자리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보살 염불원의 특징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 · 식 · 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홀로계신 시아버님,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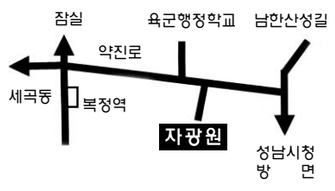
◆ 정 원 : 24명~30명 내외

◆ 시설개요 : 본 건 물 → 방규모(약 7평) 24실(각실 인터폰 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 제2물리치료실, 목욕탕, 이 · 미용실, 식당, 오락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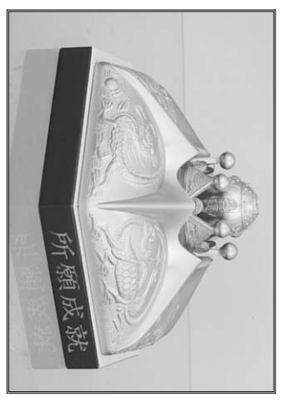
◆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운으로 변하면
재수없는 일들과 불화와 액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앞길이 열리며
새로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새로운 관운, 명예, 재물운이 옵니다.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곁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당어리 복당어리 황금당어리 氣가막힌 복이틀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아토피 · 비염 · 천식

완치 성공

유아기의 경우 안면과 팔 다리의 바깥쪽에 습진을 보이며, 성인의 경우 팔다리가 접히는 부위에 피부가 거칠어지는 태선화된 습진을 보입니다.
가려움증을 쉽게 느끼며, 사소한 자극에도 민감해지고, 땀 흡수나 통풍이 잘되지 않는 모직, 합성섬유, 실크 등의 직물로 된 내복은 환자에게 가려움증을 유발시키고, 털로 만든 인형이나 털 목도리 등도 쉽게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온도변화가 가려움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 갑자기 더운 방에 들어가거나, 목욕을 하게 되면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건강증진 운동본부 | 지정한의원 마고

진 료
● 한의사 홍성인 원장님
● 한의사 오달석 원장님

장 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80-29 마고한의원

문 의 02)587-0001

※ 아토피 · 비염 · 천식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학술발표회와 헌공다례 시연회가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국 각지의 차인 500여 명이 참석했다.(왼쪽) 천태범음범패연구보존회와 대전 광수사 신도들이 선보인 헌다작법 시연회.

'제2회 천태 차문화대회'

사원차 복원·확산 계기 마련



'제2회 천태 차문화대회'의 3부 순서인 '천태차 및 헌다작법 시연회'에 참가한 부산 삼광사 차문화연구보존회(회장 박만옥) 회원들이 '염불선차'를 선보이고 있다.

고려 천태종의 창시자인 대각국사 의천 스님(義天 · 1055~ 1101)의 다도사상을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천태차문화연구보존회(회장 춘광)는 11월 8일 오전 10시 금강대학교에서 '제2회 천태 차문화대회'를 열고 '고려시대 차문화 및 대각국사 의천의 다도사상'을 주제로 한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천태차문화연구보존회는 의천 스님의 차 정신과 고려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던 천태다도의 계승 발전을 위해 지난 2002년 창립한 단체다.

이날 행사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과 천태차문화보존연구회장 춘광 스님,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 한국차인연합회 박권흠 회장, 금강대 총장 김유혁 교수, 동국대 김상현 교수, 한국차학회장 신미경 교수(원광대)를 비롯한 500여 명의 차인이 참석했다.

춘광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천태종의 대각국사 의천 스님과 천태종의 고승인 진정국사 천책, 순암법사 의선 스님의 다시(茶時)를 예로 들며 "이 시대 불가에서는 차를 잠을 줄여주고 세속적인 것, 현실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방편으로 보았다"며 "이러한 선다일미 사상은 고려 이후로 우리나라 선가(禪家)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고, 차를 통해 일상생활 속의 진리를 터득하려는 노력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학술발표회에서는 신미경 교수가 녹차에 함유된 성분과 각각의 효능을 밝힌 '녹차의 성분과 효능'을, 이혜자 교수(성균관대)가 불교다례의 변천과정과 문헌에 나타나는 육법공양의 유래와 공양물의 의미를 살펴보는 '불교의 다례변천'을 각각 발표했다.

3부 '천태차 및 헌다작법 시연회'에서는 천태범음범패연구보존회와 대전 광수사가 함께 선보인 '헌공다례'와 서울 관문사의 '2인 잎차', 부산 삼광사의 '염불선차' 등 각 지역 회원들의 다례시연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의천 스님 차정신·육법공양 유래 등 조명
헌공다례·염불선차 등 헌다작법 시연

행사 기간 동안 자리를 지키며 차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낸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은 "천태차문화연구보존회는 지난 3년 동안 천태 차문화 전통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헌다례 시연과 학술발표회 등을 통해 사찰에서의 헌다 공양의식이 다시 살아나고, 끽다(喫茶) 예법이 더욱 보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논산=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인 터 뷰

천태차문화연구보존회 춘광 스님



"이번 대회를 계기로 천태차문화연구보존회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11월 8일 행사 현장에서 만난 천태차문화연구보존회장 춘광 스님(사진)은 "2002년 서울 관문사에서 1회 차문화대회를 개최한 후 지난해에는 여러 사정으로 대회를 열지 못하는 등 활동이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보존회를 조직적이고 튼튼하게 키워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연구·교육 강화로 보급 적극 나설것"

우선, 길게는 30여년간 이어져 온 각 사찰 다회의 활동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스님은 "각 회원 사찰의 연구 · 교육 활동을 강화하고, 내년 부산 삼광사에서 개최할 예정인 3회 대회를 회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차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큰 마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양한 문화 행사를 곁들여 차문화를 통한 '천태문화 알리기'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또한 다시와 다서는 물론 경전 속 차 관련 구절 등의 문헌 자료를 한 권의 책으로 펴내 다학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보성녹차, 지역박람회 대통령 상

전남 보성군의 '녹차의 지리적 표시제를 통한 혁신사례'가 11월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 박람회'에서 최우수사례로 평가받아 대통령상에 선정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자원부 등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대한민국 지역혁신 박람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 온 지역혁신의 추진성과를 진단하고 성공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 열린 행사다.

1990년대 중반부터 녹차를 지역주력산업으로 선정해 품질 고급화를 추진해 온 보성군은 2002년 1월 전국 최초로 보성녹차를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제1호 상품으로 등록했다. 지리적표시란 프랑스 코냑처럼 정부가 특정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또는 가공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해당 상품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친 뒤 지역마크를 붙일 수 있다. 보성군은 이러한 지리적표시제를 통해 '보성녹차'에 대한 제품 신뢰도와 지역 이미지를 크게 향상시켜왔다.

전국 녹차 소비량의 46%를 생산하는 보성군은 지난 85년 139㏊(41만평)이던 재배면적을 올해 646㏊(193만8천평)로 확대했으며 35개 가공업체에서 녹차관련 기능성 제품 60여종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보성군은 최근 재배농가와 가공업체, 도립 차 시험장, 전남대 등과 '녹차혁신위원회'를 구성, 보성 녹차를 세계적인 녹차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다.

영암도기문화센터, 도자기展

영암도기문화센터(소장 이석희)는 12월 5일까지 문화센터 상설전시관에서 '한국 전통도자의 맥과 정신전'을 연다. 한국전통도자의 흐름이 현대 도자사속에서 어떻게 발전 전개되어 가고 있는지를 각 지역별 장인들의 작품을 통해 살펴보고자 마련된 이번 전시에는 도예가 천한봉(문경요) 유효웅(신라요) 오정택(월봉요) 신승복(백제요) 이은석(평촌요) 김기찬(청광요) 씨의 작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061)470-2566



삼국시대 ④

이 때는 삼국이 모두 나라가 안정되고 중국에서 문물, 특히 불교문화를 수입하여 불상, 불구를 제작해서 일본으로 보냈고 인적교류도 많았다. 중국에 갔던 승려들이 불서와 사리를 가지고 귀국했고 사찰 건립이 활발했다. 자연히 불전헌다의 식이 따르게 되었다. 따라서 민간차원에서는 이때 일본에도 차에 관한 것이 전파되었으리라 짐작된다.

① 신라가 가야를 복속시킴으로 경남 하동 일대의 차산지는 물론 가야인의 음다풍습이 신라로 흡수되었다.

② 연기(緣起)조사가 화엄사를 창건하고 뒤에 있는 대숲에 차나무를 심었다.

③ 능가보월탑비문에 '향명(香茗)'이란 말이 있다.

신라 가야 병합하며 차산지 · 다풍 흡수

④ 이 해에 고구려에서는 법상을 진에 보내 불교를 배워오게 했다.

⑤ 백제는 지혜가 안흥사에 53불 벽화를 완성하고 신라는 일본에 불상을 전했다. 신라 화랑들이 차생활을 한 자취가 남아 있다.

⑥ 백제에서는 92년에 기술자를 일본에 보내 법흥사 불당을 완성하고 이 해에 아좌태자가 건너가 성덕태자상을 그렸다.

⑦ 유효작이 양의 약제에게서 차와 쌀 등 여덟 가지를 하사 받다.

⑧ 법요는 남송의 명승으로 나이가 들어 밥 대신 차를 마셨다. 〈속명승전〉

포령휘 는 선조의 누이 동생으로 '향명칙'을 지었다.

담제도인은 팔공산에 있을 때 신안왕 자란과 예장왕 자상 형제가 끓인 차를 마셔보고 감로(甘露)라 찬탄했다. 〈송명〉

⑨ 〈이원〉에는 "섬현의 진무처가 옛 무덤에 차를 공양하여 십만금을 얻었다"는 내용이 전한다. ■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기원전 시대 @ 표는 약(about)

한 국	중 국	일 본	서양기타
삼국시대	527 이차돈의 순교(신라) 대통사, 대조사 창건(백제) 532 가야의 멸망① 535 흥륜사 창건(신라) 539 일본에 불교 전함(백제) 백률사 창건(신라) 539 연가칠년명금동여래입상(고구려) 544 화엄사 창건(연기조사)② 일본에 사신 파견(백제) 546 수철화상의 능가보월탑비③ 549 승상덕 · 이 불사리를 가지고 귀국(신라) 552 금동석가상, 미륵석불과 경론을 일본에 보냄(백제) 553 황룡사 기공 554 승려 9인의 도일(渡日) 565 진(陳)에서 불경 2700여권 도입(신라) 576 법상(法上)을 진에 보냄④ 579 지혜의 53불 벽화⑤ 581 선운사 창건(백제) 583 일본에 불상 보냄(백제) 597 아좌태자 도일⑥	남북조시대 @ 유효작의 다시(茶詩)⑦ @ 달마가 중국으로 건너옴 @ 법요, 포령휘, 담제도인⑧ @ 이원⑨ 547 양무제 580 수의 등장 589 수의 통일	고문시대 @금명천황(금명天皇, 509~571)이 백제 왕이 보낸 불교에 관한 물품을 받고 차를 내림.〈일본서기〉	중세사회 529 베네딕트 수도원 건립

4 9 2
3 5 7
8 1 6
이 책을 읽는 순간부터
당신은 새로운 인식의 세계를 맛볼 것이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을 것이다.

인식 전환의 새로운 장
천지 창조의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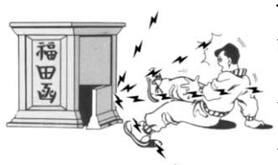


노예 해방
정신적 · 종교적 · 신앙적
노예는 영원한 것이다.
신앙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참다운 주인이 되는 방법이 여기 있다.
신국판 | 280쪽 | 값 8,500원 정
도서출판 대 명 TEL.(042)623-0829 FAX.(042)621-0110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가격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서원기전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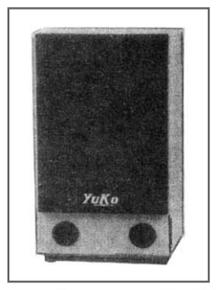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 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6-9294-8580
전라도 :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아니합니다)
소리공양 실적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yukosound.com



엄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법당전용스피커 YM-520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모두 공심으로서 함이 없이 살아야

선법가를 배우고 음성공양 하는 뜻은?

문 선원에서 한마음 합창제를 몇 번째 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선법가를 배우고 음성공양을 하는 뜻은 어디 있는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답 우리가 보통은 음성공양으로 찬불가를 하는데요, 이건 선법가(禪法歌)입니다. 선법가를 부르면 일체 음파가 법망에 통해서, 이것이 노래라고 하지만 자꾸 부르면 아주 지극하게 염원하는 그런 '관(觀)'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달린 거지만 생각을 크게 넓혀라 이거죠. 넓히면 넓히는 대로 나한테 이득이 오고 상대방에게 이득이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깐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선법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합이 될 수 있으니 이 선법가가 얼마나 좋습니까. 딴 데서도 선법가를 잘 지어서 그걸 법문으로 들게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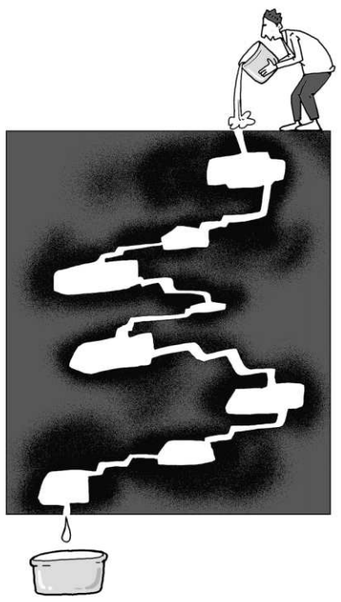
여러분께서 선법가를 부르실 때 보면 너무나 기쁘고, 그 운기가 김으로 올라와서 그냥 불이 하늘을 두루 불이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넓히는 게 지혜를 넓히는 거와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버리지 말고 한다는 거, 또 '모두 공심으로서 함이 없이 살아라.' 하는 뜻이 바로 놓고 가는 겁니다. 함이 없이 하라. 내가 한단 말 없이, 내가 산단 말 없이, 내가 죽는다 산다는 생각 없이 그냥 놓고 간다면 그것이 바로 벗어나는 길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때에 허무한 생각도 좀 들고 무상한 생각도 들고 좀 고난이 심하면 살기 싫은 때도 있고 그냥 조용한 데로 가서 좀 있고 싶은 생각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가지죠, 뭐.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그걸 응용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도 너 아냐!' 하고선 딱 책정을 해 놓으면 그게 그대로 화해집니다. 화해지고 넓어지고 그대로 웃어지고 그대로 편안해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선법가도 애들한테도 잘 가르쳐야 하고, 지금 애탄지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채 뭔지 모르다가 병이 들어서 어쩔 수가 없이 하다 보니 인제 조금 알았다고 그러는 분이 있고, 여러 분이 많죠. 그런데 각 지원에 가만히 보면요, 각 지원의 여러분이 선법가를 통해서 공부들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원의 여러분이 질문하고 스님들과 토론하고 그러는 걸 보면 공부 잘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평상시에 그렇게만 하실 수 있다면 이건 왔다죠, 뭐!

그래서 어느 스님이 국이 짜다 이런 얘기 했죠. 그런데 스님들이 사는 데서는 짜면 그냥 물 타서 먹구요, 싱거우면 간장 타서 먹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죠. 그래서 살아나가는 것도 다 그렇게 해라. 전자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내 탓으로 돌려라. 모두가 내 탓으로 돌려야지 남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일체제불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다. 어디에 가서 이 부처 저 부처 찾는 게 아니라 모든 일체제불의 마음들이 전부 내 한 마음에 있으니 내 한마음 속에서 다 용도대로 써라.' 이런 겁니다. 일체 만물이 내 한마음 속에 들어 있으니까 꺼내 쓰는 대로 용도대로 꺼내 써라. 이렇게 간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공부를 해 나가시는 모든 분들이 이 도리를 진정코 알아서 공부해 나가신다면 그 유전성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악화된 아픔 병세, 이런 것도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한다고 해서 아주 잘살게 되는 게 아니라 고통을 받지 않고 살고, 또 진짜로만 믿고 그렇게 나가시는 분들은 자연적 웃고 살게 되고 생활도 지치지 않게 하고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꾸 업보와 인과성 유전성, 모두가 다 무너지니까, 구름이 다 걷히니까 햇볕이 짱짱 비쳐서 내 젖은 모습을 다 말려 준다, 이런 뜻과 같죠.


그림 · 최주현

어디로 돌아가고 있나요?

문 우주가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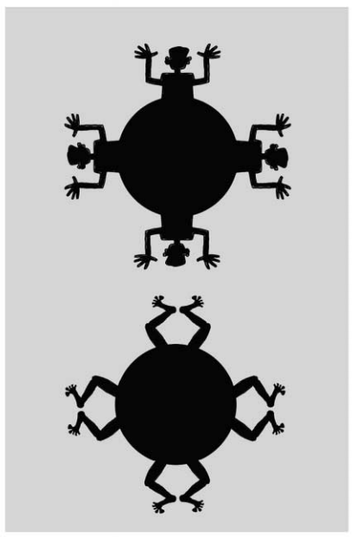
답 어디로 간다고 하는 그 사람 자체가, 그 성품은, 그 말은 어디로부터 좇아 나왔습니까? '지금 어디로 갑니까?' 했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하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어디로부터 좇아 나왔습니까? 만약에 마음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그 마음은 또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무조건 자기 주인공을 믿고, 벌써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오고 있고 자기 성품으로부터, 자기 마음이라고 합시다. 자기 마음으로부터 모든 일체 만법이 움죽거리고 있으니 거기에 무조건 모든 것을 맡겨 놓고 거길 믿고 또 감사하게, 우리가 좋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거기 맡겨 놓는 겁니다. '참 감사하구나.' 이렇게 하고, 또 안되는 거면 '어휴, 안되는 것도 당신이 끌고 가는 거, 당신이 길잡이가 돼서 잘 끌고 가야 당신의 심부름을 하지 않느냐. 내 손은 당신의 손이요, 내 몸은 당신의 몸이니 당신이 이끌고 가.' 즉 운전수가 차 끌고 다니는 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부터 알아야 그 도리를 알게 돼요. 그냥 내가 이해를 하고 이론으로서 맞아 들어가게 할 양으로 해서는 안 돼요. 둥그런 통에 네모진 뚜껑 덮는 거나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주인공을 믿어요. 지금 질문하는 그 자체, 그것이 벌써 고정되지 않죠? 하루 종일 얘기하고 왔는데 지금 여기선 그 말을, 질문을 했어요. 그랬는데 벌써 그렇게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고정됨이 없다구요. 고정됨이 없이 자기가 그렇게 수없이 말을 하게 하고 수없이 움죽거리게 하는 그 장본인 자체가 공했다니까요, 모두가. 그러니까 이름이 공했다고 하고 행이 그렇게 공해서 돌아가니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성으로서의 자동성이죠. 자동 불성. 그러니까 그것부터 '아! 내 자동성 그 자체 주인공이 바로 나를 억겁 전으로부터 끌고 왔구나.' 이런 것도 떠나서 '아! 자동 불성이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나의 그 씨가, 뿌리가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바로 이 세상에 나왔구나. 그렇다면 나온 거를 이끌고 가는 것도 역시 참나가 나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모든 거를 다 믿어야지.'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예가 있었거든요. 어느 청년이 아주 어릴 때 부모를 일찍 여의고서 얻어먹으면서 돌아다니게 되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어느 결에 가다가 고만 배가 고프니까 빵을 하나 훔쳐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고만 쫓기게 됐던 거죠. 그 주인한테 쫓기게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쫓기다 쫓기다가 그만 우물로다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기가 죽는다 안 죽는다를 떠나서 그냥 쫓기다 보니 급하니까 우물로 다 뛰어들은 거예요. 뛰어들어 보니까, 물에 뛰어들어 보니까 자기 한 길이 넘는단 말입니다. 옛날에 그 우물은 이렇게 돌로다가 쌓아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물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돌을 양면을 딛고서 돌을 붙잡고 있으면서 생각한 거예요. 급하니까 생각한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세요? 자기가 그냥 물속에 빠지면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더러 한 소리예요. 엉겁결에 자기더러 한 소리예요. '아유, 너는 우물에 빠졌는데 말이야, 너는 어떻게 해서 나를 살리련?' 하고 소리친 겁니다. '나 좀 살려 줘' 하고. 그런데 바깥으로 생각을 하고 '살려 줘' 한 게 아니라 아무도 없으니까 '나 좀 살려 줘' 한 게 바로 자기더러 한 거예요. 바깥으로 했으면 살아나지 못해요. 그러나 자기 마음 안으로 들이대고선 '나 좀 살려 줘'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살려 줘' 하니까, 그 마음속에 모습 없는 참자기는 모습을 수만 개로 낼 수도 있거든요. 살아서 돌아다니는 사람의 마음속으로 딱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그 사람이 바로 그 애가 된 거예요. 애가 돼 가지고선 보니까 우물에 괜히 가고 싶은 겁니다, 목 마르고…. 그러니깐 지나가던 사람이 그냥 우물로 간 거지요. 우물로 가서, 두레박으로 물을 뜨려고 가서 보니까 사람이 걸쳐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물 먹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지고 그 두레박 줄을 튼튼하게 그냥 다시 꽈 가지고는 그 걸 들이 밀어 가지고는 그 아이를 건져 냈단 말입니다.

그때 그 아이가 생각한 거예요. '아하, 내 모습은 이거 하나지마는 내 이 모습 없는 모습은 수천 개도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그때에 그 아이가 거기에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다 구제를 하고 그랬대요. 있는 사람한테서 자기가 좋은 일 좀 해 주고 얻어다가 없는 사람을 주고 이렇게 해서 항상, 자기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흘륭한 소년도 있었어요. 그러니 바깥으로 찾는 자는 절대 이익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림 · 최주현

내가 한단 말 없이 내가 산단 말 없이
그냥 놓고 간다면 그것이 바로 벗어나는 길이다

주인공 발견과 화두 수행

문 제가 주인공 자리를 발현한 것은 아니지만 일체를 주인공에 맡기며 생활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짐을 느낍니다. 그런데 주인공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종종 '주인공은 누구인가.' 하거나 '주인공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화두를 염합니다만, 스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난 자체가 화두이니 화두를 따로 염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이 편할 때 주인공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과 화두를 염하는 것이 바른 수행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아니, 화두가 따로 있나요? 내 몸이 수박이라면 '요놈이 뭘꼬?' 하고 평생을 들아봐야 맛을 못 봐요. 맛을 몰라. 그냥 무조건 넘어서야 겨 놓고 넘어가는데, 고놈만은 왜 놓지 못하고 고놈만 고놈이 뭘꼬 하느냐 이 소립니다. 고놈이 뭘꼬 하기 이전에 그냥 그놈도 꿀떡 집어삼키고 넘어서라 이겁니다. 그럼 맛을 알게 될 거다 이거예요, 고놈 맛을. 고놈이 뭘꼬 하고 아무리 그래 봤자 그냥 울타리 밑에서 맴도는 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놈을 꿀떡 집어삼켜서 먹고 넘어서서 길을 걸어라 이겁니다.

기독교인인데…

문 저는 결혼한 지 10년 된 주부입니다. 저의 친정은 기독교 집안입니다. 저 또한 결혼 전까지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결혼 후 절실한 불자인 남편을 따라 절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십 년 믿었던 종교를 하루아침에 버리기에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초하루, 보름에는 절에 가서 부처님께 무릎 꿇고 앉아 있다가 오곤 합니다. 부처님께 다가가자는 남편의 다그침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어디서부터 차근차근 발을 놓을지 길을 모르겠습니다.

답 여러분이 타력 신앙으로서 산신을 따로 찾는다거나 칠성을 따로 찾는다, 지장을 따로 찾는다, 어떠한 거를 따로 찾는다면 그건 당신네들이 지어서 귀신으로 사는 겁니다. 미신으로 살기 때문에 죽어서도 그 업식을 벗어나질 못하고 또 귀신으로 등장을 해야 하니 그 업식을 또 가지고 나와서는 수억겁을 거치는 거죠. 여러분이 오셔서 시주를 많이 하고, 정성을 많이 들이고, 그렇게 해서 돈이나 벌어서 이렇게 해서 살려면 내가 여기 이렇게 있지도 않을 것이고,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짓밟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도 다짐하고 다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몸뚱이가 어딜 가지 말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 자체가 법당에 들면 그 법당에 수만 부처님이 있다 하더라도 둘이 아니요, 내 주인공 안에 다 계시고, 그 몸은 내 몸이요 그 마음은 내 마음이요 그 불성은 내 불성이니 어찌 둘이겠냐. 어딜 가더라도 그 자리가 내 자리요, 내 자리가 그 자리이니, 어디 딴 자리가 따로 있을 법이 있기나 한가.

그래서 여러분이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가도, 때에 따라서는 시집 쪽에서 불교를 믿으면 불교로 따르고, 시집 쪽에서 기독교를 믿으면 기독교를 따르고, 따르되 타력 신앙으로 믿지는 말고 내 주처에, 내 가는 데마다, 기독교의 강당에 앉았어도 네 자리가 내 자리고, 불교의 법당에 와 앉았어도 네 자리가 내 자리니까, 그 신조를 잊지 말고 지조를 가져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독교, 불교를 따져서 종교를 이름을 짓고 싸운다면 부처님이 가르친 뜻을 하나도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벌레처럼, 짐승처럼 이렇게 윤회에 말려서 수억겁을 거쳐도 벗어날 길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한테도 그런 말을 가끔 합니다만 '부처는 없다. 부처가 없기 때문에 이 삼라만상 대천세계에 꽉 찼다.' 이겁니다. 만약에 부처 하나로서 규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이 그 뜻을 가르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부처가 없기 때문에 부처가 꽉 찼지, 만약에 부처가 있다면 부처가 꽉 찼을 수도 없고 과거 현재 미래를, 삼세를 넘나들면서 그대로 부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처라는 것은 이름이요, 부처 없는 것이 부처라는 뜻은 그것은 아주 이 세상에서 제일가는 세계의 왕을 준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보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생활 속에서 남편이, 아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서로 감싸 주면서, 언제 적의 부부였기만 한 게 아니거든요. 형제이기도 했다가 딸이기도 했다가 아버지이기도 했다가, 수만 개로 나투면서 수만 이름을 가지고 이날까지 나왔는데, 여러분이 여자로 태어난 것이, 즉 여자로 태어난 것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머니예요. 그래서 육을 기르고, 정신을 길러 주는 아버지는 태양과도 같고 바람, 공기와도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같이, 항상 같이 있는 겁니다. 자식과 부모의 마음은 항상 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고 보니까, 속을 썩고 보니까, 여러분의 그 조상, 전자에 길러 주신 부모 생각 나는 분들도 있고, 안 나는 분도 있겠지만, 그거를 굳이 말을 안 해도 아시겠지만 말을 한마디 합니다.

누구를 막론해 놓고 자식이 의지만 하고 그냥 살다가 그 후에 자식을 낳고 속을 썩이고, 또 속을 안 썩이고 행복하고 이래도 양면을 다 가지고서 우리가 볼 때 '아휴, 우리 부모가 나를 기르고 우리 형제들을 기를 때 이러이러했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하고 삼분지일은 알 수 있다는 얘깁니다. 삼분지일을 알고 있으면 다 아는 거죠. '아하, 내가 자식을 낳고 보니까, 쟤가 하는 걸 보고 이렇게 속을 썩다 보니깐 아이구, 우리 부모도….' 하고 알 수 있는 거죠.

☞30면으로 계속

부처는 없기에 이 삼라만상 대천세계에 꽉 찼다

☞29면에서 계속

그러니 지금 부모만 아니라 여러분한테 그렇게 자비로운 부모의 마음을 가졌던 마음, 여러분이 또 자식을 두고 그렇게 했던 마음이 한데 합쳐서 뭉쳐진 그 여의주 구슬, 그 보배, 그것이 불성 자체를 응합니다. 그 불성 자체를 믿고, 그 속에서 그 중생들이 다 같이 있느니만큼 같은 마음으로, 한마음으로 만드십시오. 그렇게 한마음으로 만들어서 걸림이 없다면 바로 그게 보살인 것이고 그것이 자비인 것이고, 그것이 부처인 것이고 그것이 참답게 불법을 실천해 나가는 불자의 길이니까요.

진정한 욕망이란…

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이해하자면 개인의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기업이나 국가나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불가에서 얘기하는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참된 욕망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특히나 윤리와 도덕이 타락한 혼탁한 사회 속에서 참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욕망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스님의 높으신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답 진정한 욕망이라는 것은 더함도 덜함도 없어야 하는데 우리가 정신계와 물질계를 둘로 보지 않는다면 둘 아닌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건 중용으로서 행을 하지 그냥 작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중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팎을 다 겸해서 전자와 전자가 양면에 있다면 한데 갖다가 붙이면 불만 들어올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부처님의 법에 누가 되게 해서도 아니 되고, 가르치는 스님네들한테 누가 되게 해서도 아니 되고, 셋째는 자기에 누가 되게 해서도 아니 된단 얘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모든 게 자기 탓입니다. 나쁜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생기는 것이, 상대성 원리가 어디에서부터 생겼습니까? 나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내 탓으로 돌려야죠. 모든 거는 내 탓으로 돌린다. 내가 이 세상에 났으니깐 부딪침도 있고 상대도 생겼고 세상도 벌어졌고 우주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탓으로 돌리면서, 내 탓으로 돌리게 되면 화목을 도모할 수도 있고 의리와 도의를 절대로 허탈히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저절로 말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행동과 부드러운 말로 항상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감사함을 느끼고 돌아가는 것이 이름해서 계향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내면에 자기 자성선을 세우고, 즉 말하자면 선이 중심이 되고 좋나좋나 돌아가니까, 공해서 돌아가니까 공(空)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주인공이라고, 각자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은 여러 가지겠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대의적으로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그러니 자기 주인공에 나쁘게 돌아가는 것은 안팎을 비롯해서 나쁘게 생각이 나오고 나쁘게 닥치고 이러는 것은 '나쁘게 나오게 하는 것도 너니까 좋게 돌려서 나오게 하는 것도 너 아니냐!' 하고 거기다가 놨을 때, 잘해 나가고 안에서도 좋은 마음이 생기고 바깥에서도 좋은 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이럴 땐 감사하게 놓고, 그 깊은 내면세계를 떠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이름해서 정향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계향 정향만 잘 해도…, 우리가 향을 피워 놓고 초를 켜 놓고 아무리 빌어 봤던들 공덕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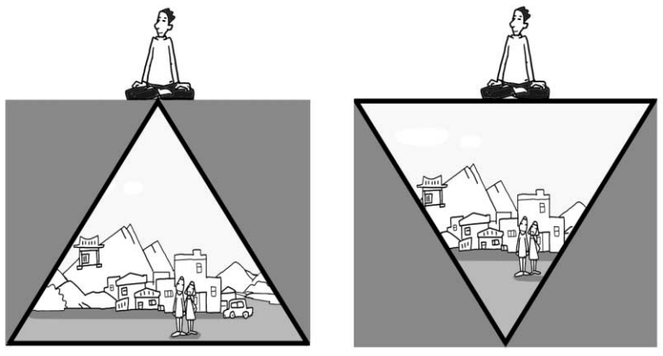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일체 만물이 내 한마음 속에 들어 있으니 용도대로 꺼내 써라!

여러분, 진짜로 나를 이끌어 가고 진짜로 나를 이익하게 하는, 그리고 업보를 타파하고 과거의 모든 것을, 번뇌 망상 생사윤회…. 모든 것을 타파할 수 있는 그 에너지는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일체제불과 일체 중생은 둘이 아니어서 이 모두가 마음으로 전달하고 통신으로 전달하고 말로 전달하고, 이게 '교(敎)'입니다. 풀 한 포기 생명도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근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불교라는 것은 어느 한 군데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삼천대천세계가 돌아가는 그 진리를 불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불교 안에 있는 것이지, 바로 불교가 따로 마구니 소굴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짓는 대로 바로 악업이 정해지는 거니까 선업도 정해지는 거고, 자기가 자동적인 컴퓨터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아무리 절래절래 머리를 흔든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가 해 놓고 입력이 돼서 슬슬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 말입니다, 마음으로 왜 다스리라느냐. 옛날에 어느 수좌 스님께서 팥죽을 동짓날 쑤다가, 그것 다 아실 겁니다. 팥죽 방울이 끓어서 오르니까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하고 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뚱이가 팥죽 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팥죽 솥의 팥죽 방울이 나오는 거지 딴 데서 오고 뺏어 가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망상도, 또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바로 그 속에서 나오는 거니깐요. 그러니 거기에 속지 말라 이런 겁니다. 속지 말고 그냥 놔라. 미리 '어, 이것도 팥죽 솥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너로구나.' 하고 탁 놀러 놓고, 이것도 놀러 놓고 그런다고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계향, 정향, 혜향, 해탈향, 해탈지견향만 특별히 마음의 향으로 지킬 수만 있다면 그대로 자동적으로 지켜지면서 모든 공덕이 자기한테 스스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분수 없이 일을 저지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란 게 있는 겁니까?

문 어리석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하는 기도라는 것과, 또 불교에서도 관세음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도라는 그 자체가 그걸 많이 해 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욕망이란 건 기적을 찾는 건데 그 기적이란 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답 기적은 없습니다. 기적이 없다는 이유를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한생각을 잘 하면 그대로…, 이거 보십시오, 예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느 사람이 감방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화가여서 그림도 아주 잘 그리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애들을 넷이나 두고 두 다리를 자르게 됐습니다. 뺏속으로 썩어 들어가서. 다음 날 아침 새벽에 잘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애기를 업고 그냥 울면서 찾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가 있다면 네가 그 두 다리를 자르지 않게 할 것이고 너가 없다면 두 다리를 자르게 할 것이다. 너는 즉시 아침에 가서 다시 한 번 진찰을 해 달라고 그래라. 그런다면 알 바가 있을 게다. 네가 있으니깐 그것도 있는 것이지 기적은 없다. 네가 바로 하는 것이지 기적이라는 언어가 붙지 않는 자리다, 이게." 그랬더니 가서 정말 진찰을 해 달라고 울고불고 그래서 다시 해 보니까 발목 아래로 내려가 있더라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는 것이. 그게 모두 기적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가 붙지 않는 자리라는 얘기지 그런 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깐 30%는 의사의 손을 빌려야 하지만 70%는 여러분이 바로 충당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을 말하자면 한두 건이 아니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할 수 있는 재료가 있다는 거지, 아니 기적은 무슨 기적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사람이, 또 만물의 영장이 또 자신, 신이 있고 여러분 자신이 바로 우주의 전체의 근본을 바로 직결이 돼 있는 여러분의 직결 장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적이라는 언어가 붙지 않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언어가 붙지 않는다 이 소립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다 놓고 빌지 말라 이 소립니다. 나를 잘되게 해 달라, 뭐 산신한테다 놔야 되고 부처님한테다 놔야 되고 칠성한테다 놔야 되고 신중당에다 놔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고, 거기 한 군데를 안 놔서 우리 아들이 잘못되면 어쩌나?' 이렇게 간약한 여러분의 약한 마음에 의해서 그 우환과 가환은 끊일 날이 없이 거기에 아마 대두될 겁니다.

여러분도 부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자체 불(佛). 그러나 여러분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인과가 되고 업보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수많은 중생들이 한데 모여 있기 때문에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니니라.' 이런 겁니다. 몸속에 들어 있는 중생들과 지금 해 나가는 그 마음이 바로 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깐 여기에서 그 많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를, 의식이 일어나는 거를 거기에 맡기고 지켜보세요. 모든 걸 거기 맡겨 놓고 지켜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실험을 할 수 있고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터득을 하고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적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그렇게 여여하게, 정말이지 광대무변하게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부여됩니다.

여러분이 만물의 영장이며 '자신(自神)'이며 우주가 직결돼 있는 바로 처소며 가설이 돼 있는 근본인데 어찌 그것이 기적이라고 하겠느냐 이겁니다, 모두 여러분이 갖추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타의에서 구하지 마시라고 늘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신도
설법을 잘할 수 있습니다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비유법, 대기설법
〈실기훈련 · 설법자료제공〉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야 합니다.
과목 ● 발성훈련, 표정연기, 설득, 상담기법
● 음성, 태도, 修辭,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연 수 안 내
▶기 간 : 2개월 과정 ※ 수시접수
▶강 의 : 수요반 - 매주 (수) 오후 2시 ~ 4시
목요반 - 매주 (목) 오후 7시 ~ 9시
▶지도교수 : 金哲會 박사
▶장 소 : 본 연수원
※ 출장 또는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
◆ 문의 및 신청 ◆
☎ 02)747-1567/02)737-1567
H·P 011)248-1567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F)

탈종공고
● 사찰명 : 영천사(靈泉寺)
● 주 소 :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203번지
● 주 지 : 나영식(蘿永植)
● 법 명 : 법하(法河)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 龍華寺 (등록번호 : 07-4979)
● 주 소 : 전북 부안군 행안면 역리 336-1
● 성 명 : 朴在元 (법명 慧珍 법호 華山)
위 사찰과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이 맞지 않아 2004년 10월 18일에 탈종되였음을 알립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 약천사
● 법 명 : 운산
● 주 소 : 경북 김천시 구성면 흥평2리 129번지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2004년 11월 1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깔끔·구수 와삭!

맛깔스럽게 담궜네!

사찰식 '김치 담그기' 전문가에게 듣는다

김장의 계절이 돌아왔다. 배추, 젓갈과 고춧가루 등 김장재료를 준비하는 주부들의 손길이 바빠졌다. 그러나 올 겨울 김장이 반드시 맵고 진한 양념에 푹 절인 김치여야 하는 법이 있을까?

사찰에서는 김치를 담글 때 파, 마늘, 젓갈은 일체 쓰지 않고 생강과 소금을 기본으로 한 깔끔한 맛의 김치를 만들어 왔다. 사찰 김치는 오신채를 쓰지 않기에 자극이 적고 젓갈로 맛을 내는 대신에 보리 삶은 물이나 늙은 호박 삶은 물로 구수하게 만든다. 가정에서도 맛볼 수 있는 사찰 김치 만드는 법을 홍승·선재·적문 스님, 이여영 원장 등 사찰음식전문가들에게 물어 보았다. 더불어 전문가들만이 알고 있는 '더 맛있게 담글 수 있는' 김치 담그기 비법을 공개한다.

이은비 기자



김장철을 맞아 스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봉선사에서 김장을 담그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홍승 스님(사찰음식연구회장)은 '콩잎 김치'를 제안한다. 일반 가정에서는 젓갈이나 생선류를 넣어 맛을 좋게 하지만 사찰식 콩잎 김치는 젓갈 대신 보리 삶은 물에 발효식품인 간장 또는 된장을 풀어 김치를 담근다. "보리를 삶아 국물을 만들면 구수한 맛이 날 뿐만 아니라 콩잎의 풋내를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고 홍승 스님은 설명한다.



콩잎 김치▶ 콩잎 200g, 풋고추 4개, 생강 1톨, 보리쌀 1/4컵, 된장 4큰술

① 콩잎은 너무 여리지 않은 것으로 골라 씻어 놓는다.
② 풋고추는 반으로 갈라 굵게 채 썰고 생강도 곱게 채를 썬다.
③ 보리는 깨끗이 씻어 5배 정도의 물을 붓고 삶아 소쿠리에 받쳐 국물을 받아 식혀 둔다.
④ 보리 삶은 물에 된장을 푼다. 약간 짠 편이 김치를 담갔을 때 맛있다.
⑤ 항아리에 콩잎 대여섯 장과 채 썬 고추와 생강을 켜켜이 담는다.
⑥ 된장 푼 보리 물을 콩잎이 잠길 만큼 붓고 콩잎이 뜨지 않도록 누른다. 2~3일 후부터 먹을 수 있다.

적문 스님(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장)은 '배추김치'로도 충분히 독특한 맛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한다. 전통적인 '사찰식 김치 만들기 방법'에 따라 마늘과 파와 젓갈을 넣지 않으면서도 맛깔스러운 김치를 만들려면 양념 할 때 순서(설탕→소금→식초→된장→간장)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양념마다 입자가 다른데 단 성분은 다른 입자를 고루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적문 스님은 또 "배추 김치는 특히 소금이 맛을 좌우 한다"며 질 좋은 천일염 쓸 것을 권한다.



배추 김치▶ 배추 5포기, 무 2개, 굵은 소금 8컵, 고춧가루 4컵, 찹쌀 풀 1컵, 설탕 1/2 작은 술

① 배추는 겉잎만 떼고 2등분 내지 4등분을 하여 줄기 부분에 소금을 뿌려 절인다.
② 무는 깨끗이 씻어서 채로 썰고, 고춧가루는 찹쌀 풀에 미리 넣어서 불려 놓는다.
③ 무채에 불려 놓은 고춧가루를 넣고 비벼서 고춧물이 들게 한다.
④ 무채에 물이 곱게 들면 준비해둔 생강과 소금, 설탕을 넣어 간을 맞춘다.
⑤ 절여진 배추를 씻어서 물기를 빼고 준비해 놓은 배추 속을 골고루 넣는다.
⑥ 끝의 배추 잎 하나로 속이 빠지지 않도록 감싸서 김치 통에 넣는다.

선재 스님(선재사찰음식문화원장)은 대나무 잎 동치미'를 추천한다.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는 대나무 잎을 넣으면 동치미 국물에 하얀 찌꺼기가 뜨는 걸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물 맛이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다." 또 대나무 잎과 함께 바닷말의 일종인 청각채(靑角菜)를 넣으면 국물이 한결 시원해진다. 스님은 "더욱 맛있는 동치미 국물을 만들려면 배나 사과 등 제철 과일을 넣으라"고 조언한다. 과일을 넣을 때도 특별한 비법이 있다. 크게 잘라서 이쑤시개로 여기저기를 찔러서 넣으면 국물이 지나치게 익는 것을 방지하면서 풍미를 좋게 해준다.



대나무 잎 동치미▶ 동치미 무2단, 생강 2쪽, 고추씨 1/2컵, 청각 50g, 고추 20개, 배 1개, 사과 1개, 굵은 소금, 대나무 잎 적당량

① 무는 껍질이 다치지 않도록 소금에 굴려 사흘 동안 절인다. 무청도 살짝 절여 놓는다.
② 고추씨와 저민 생강을 자루에 담아 독 밑에 넣고 무청, 청각, 고추를 넣는다.
③ 소금에 절인 무는 물에 씻어 독에 차곡차곡 넣는다.
④ 과일은 크게 잘라서 씨를 파내고 무 위에 놓는다.
⑤ ①에서 생긴 소금물에 생수를 섞어서 간을 맞춘다.
⑥ 대나무 잎을 덮거나 댓가지를 걸친다.

이여영(국제선식문화원) 원장은 칼슘과 비타민A, E, 철분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겨울철 영양섭취에 좋은 '상추 김치'를 권한다. 상추김치는 담가 놓으면 다음날 저녁부터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간편하다. 찹쌀 풀 대신에 감자 삶은 물로 구수한 맛을 낸다. 이 원장은 "상추대궁이 너무 딱딱하면 미리 칼등으로 두드려 놓으면 부드럽고 아삭아삭한 맛을 즐길 수 있다"고 말한다.



상추 김치▶ 상추(조선상추) 1kg, 풋고추 2개, 홍고추 3개, 생강 1/2톨, 고춧가루 2큰 술, 집간장 1큰 술, 감자 풀(물1컵, 감자 1/2개), 굵은 소금 1/3컵

① 상추대궁 겉껍질은 벗겨내 반으로 갈라 물에 씻어 소금에 절인 뒤 물기를 뺀다.
② 감자는 얇게 썰어 물 3컵 붓고 푹 삶아 체에 걸러 차게 식힌 뒤 소금으로 간한다.
③ 홍고추와 풋고추는 씨를 제거하여 어슷썰기를 한다.
④ 다진 생강과 고춧가루, 감자 풀을 섞어 집 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⑤ 상추에 ④의 양념국물을 부어 단지에 담근다.
⑥ 김치를 밀봉해 하루 정도 익혔다가 먹는다.

'포교' 우리가족 제2 수행입니다

우리 가족 이렇게 신행해요 <20>

이승석 · 공미경 부부



이승석 · 공미경 부부가 서울지방경찰청 경승실 법당에서 합장하고 있다.

"여보! 우리 서로에게 신행의 이정표가 되어 줍시다."

올해로 백년가약을 맺은 지 9년째를 맞고 있는 이승석(37 · 청담) · 공미경(33 · 연화) 부부. 이승석 씨는 서울지방경찰청 경호계에 근무하며 본청 '불자회' 감사를 맡은 지 2년째고, 공미경 씨는 프리랜서 가수로 대한불자가수회원이다. 각자의 직장에서는 '포교사'로 집에서는 부부로서 신행공동체를 함께 일구고 있다.

'가족애는 법우애의 또 다른 표현으로 내 가족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교 포교에 앞장서고 싶다'는 이승석 씨 부부.

경찰과 가수로 만나 가정 신행공동체 일궈
문자메시지·음성공양 하며 청년 전법 앞장

20살 때 군복무 당시 이 씨는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불교 교리에 감응하여 기독교에서 불교로 개종하게 됐고, 결혼 후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한 성지순례를 통해 부인 공미경 씨도 자연스럽게 불교에 귀의했다.

그 후 이 씨는 1989년 공직생활을 시작으로 공 씨는 불자가수회에 몸담으면서 각자의 일터에서 신행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청년포교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이 씨 부부는 남편은 경찰포교에 아내는 군포교에 헌신하고 있다. 경찰청에 근무하던 1994년 이 씨는 수요일마다 다도회와 수묵화, 찬불가 경연대회 등을 열어 직장인 문화법회의 활기를 불어넣었다.

"디지털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은 불교 교리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문자 메시지로 <법구경> 문구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 직장 동료 100명에게 일주일에 두 번씩 경구 메시지를 보내며 포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씨는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문자 메시지 포교사'로 통할 정도로 직장포교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아내 공미경 씨도 청년포교를 위해 2002년부터 대한불자가수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청년층을 위한 찬불가 보급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성북동 길상사 합창단을 지도하며 경구를 노랫말로 옮겨 음반을 내려고 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신혼 초엔 제가 전방 GOP, 논산훈련소 등의 군부대를 돌며 음성공양 한다는 것을 남편에게 숨겼어요. 남편도 전 · 의경들에게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구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은 성경과 불경의 공통분모라고 생각해요"라며 미소 짓는 이들의 얼굴에서 부처님 전법전도의 참 실천을 느낄 수 있었다.

노병철기자

웰빙 시대
자연과 내가 조화되는 세상 자연동화 사찰건강생식 스님과 불자들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몸을 위한 선택
스님과 불자들의 필수 건강생식

효능에 대한 학술지의 임상실험 결과 발표 내용
· 체지방 분해 : 한달 평균 3Kg 체지방 감소 (미국 국립보건원 권장량) 특히 건강에 해로운 복부지방에 효과적
· 혈압조절효과 : 고위험군에서 거의 정상수준 회복
· 혈당조절효과 : 고위험군에서 평균 13% 감소 효과
· 혈중지방과 콜레스테롤 조절 효과 : 고위험군에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각각 21%, 11% 감소
· 안전성 : GPT효소 검사를 통한 안전성 입증

제품의 특징
· 안전하여 신뢰할 수 있습니다 : 정부연구소인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오랫동안 누적된 임상적, 기초의학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임상실험을 통해 그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 건강한 다이어트입니다 : 단순한 체중감소가 아닌 체지방의 선택적 분해, 체질개선을 통한 각종 성인질환을 개선시켜 몸의 균형을 이루어줍니다.
· 맛과 포만감 : 맛이 없는 기존 생식제품과는 달리 불편함이나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으며 1포만으로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 식사대용으로 적합합니다.

자연동화의 핵심은 「KSH-28」입니다
KSH-28은 한의학 관련 유일한 정부 연구소인 한국한의학연구원과 우수벤처업체 (주)바이오그랜드가 공동으로 수행한 정부지원 연구과제 「비만치료용 복합한약제제 개발」의 결정체로써 비만개선 및 성인질환 개선 효과가 탁월한 천연물들을 최적으로 배합, 동결건조 시킨 비만개선식, 체질개선식, 건강지킴식입니다.

국제 특허출원 및 학술지 발표
본 제품에 대한 연구 내용은 '비만 및 성인병 치료용 조성물'이라는 제목으로 특허 출원되었으며, '비만 및 성인병 위험인자에 대한 천연물 식품의 인체 및 동물 효능 연구'라는 제목으로 〈한국 식품 영양과학 회지〉에 발표하였습니다.

※ 2004년 12월까지 특별할인 판매합니다.

■ 판매원 : 수효사회복지대학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9번지 ■ 연구개발 : KIOM 한국한의학 연구원 / 본 연구원은 한의학 관련 유일한 정부연구소입니다.
상담문의 : (02) 313-2398 010-2668-4695





숲 속에 살면서도 나무 다루기를 천금같이 해온 옛 스님의 근검절약 정신을 느낄 수 있는 각연사 비로전 기둥(왼쪽)과 단풍이 절정인 10월 각연사의 모습(오른쪽).

깊은 산 맑은 물 장광설 들리는 듯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31) 괴산 각연사

나옹·사명 스님 기거했던 첩첩산중 명승지
땜질한 비로전 기둥, 옛 스님들 지혜에 감탄
거북등 골짜기 초본류 지천… 노루들의 '극락'

각연사는 충북 괴산군 장연면 태성마을에서 십리 가량 들어간 곳에 자리한 산사다. 걸어서 십릿길이면 자동차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에겐 꽤 먼 길이지만, 호젓해서 걸어 들어가는 맛이 좋다. 덕가산과 보배산이 만들어내는 계곡 곳곳에 화강암 종류인 청석들이 보인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골짜기를 청석골이라 불러왔다. 사하촌은 절까지 가는 동안에 딱 한 곳에 있다. 마을사람들은 도중에 있다고 해서 '중말'이라고 부른다. 예전에는 화전(火田)해서 먹고 살던 이들이 꽤나 많이 모여 살았으나, 지금은 세 가구만 남았다.

머지않아 이 중말 아래쪽으로 괴산과 연풍을 잇는 도로가 난다. 11개의 다리와 2개의 터널과 4개의 교차로가 포함된 도로공사이다. 산과 계곡들이 몇 년 동안 몸살을 앓게 생겼다.

청석골 곳곳에 갯버들과 달뿌리풀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어쩌다 지나가는 승용차뿐, 인적이 드물어 버들치들도 인기척에 별로 놀라지 않는다. 버들치는 우리나라 물고기 가운데 가장 깊은 산속에 사는 물고기이다. 굳이 사람으로 치면 절골 안에서 토굴살이를 하는 스님과 같은 물고기이다.

9월께 개울가 길섶에 그득하던 고마리 노랑물봉선 붉은물봉선 여뀌 이삭여뀌 사위질빵 등도 간밤에 10월 서리를 맞아 풀이 죽었다. 햇살 좋은 곳에 금불초 지느러미 엉겅퀴 벌개미취 산국 등이 말간 미소를 머금고 쌀쌀한 가을을 견뎌내고 있다. 금불초는 여러해살이 들국화이다. 키는 50센티 미만으로, 들국화치고는 작은 편이다. 햇볕만 있으면 어디서든 잘 자라기 때문에 사찰 주변에 지피용으로 심어두면 생태조경에 한 몫을 해낼 것이다.

각연사로 가는 절골의 숲에는 소나무와 참나무가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미 많은 소나무들은 능선 쪽으로 피해 달아나 활엽수들이 대세를 이루었다. 활엽수로는 참나무류 말고 오배자가 열린 붉나무를 비롯하여 신나무 누리장나무 당단풍 서어나무 밤나무 층층나무 왕버들 등등이 관찰된다. 신나무 단풍이 불타듯 붉다. 예전에 길을 가다가 짚신이 헤어지면 벗어서 이 나무에다 걸어두고 갔다고 해서 '신나무'라고 불렀다. 또 신나무에서 검은 물감을 얻어 스님들의 장삼이나 법복을 물들였다고 한다. 그래서 '색목(色木)'이라고도 했다. 지금은 가사 장삼의 염색도 거의가 화학염료에 의존한다.

누리장나무 열매가 다람쥐 눈처럼 앙증맞다. 분홍색 꽃받침은 꽃보다 더 정열적이다. 마치 여인네들의 저고리에 다는 브로치를 연상케 한다. 양지를 좋아하는 누리장나무는 전국에 걸쳐서 분포되어 있다. 산모퉁이를 돌아서면 각연사 기와지붕들이 먼저 보이고, 산그늘 아래 파랗게 이끼 낀 개울이 눈맛 좋게 소리를 내며 내려온다. 서기(瑞氣)까지 느끼게 하는 풍광이다. 물소리는 낭랑하기 이를 데 없고, 물속에 잠긴 단풍은 더욱 붉다.

시냇물 소리가 부처님의 장광설인데(溪聲便是長廣舌)

산색은 어찌 청정 법신이 아니리(山色豈非淸淨身)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30년 전 그 운치 좋던 나무다리가 사라지고 개울 위로 생뚱맞은 시멘트 다리가 놓여 있다는 점이다. 담쟁이라도 올려서 시멘트를 덮어주면 자연에 대한 조그마한 대접은 될 것이다.

각연사는 신라 법흥왕 때인 515년에 유일화상이 창건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515년이라면 법흥왕이 즉위하던 다음 해, 이차돈이 순교하기 훨씬 전의 일이니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전설이다. 대웅전 앞마당에 네발나비와 뿔나비가 여기저기 날아 앉았다. 이들은 흙 속에 들어 있는 미네랄을 찍어먹는 중이다. 몸속에 영양분을 충분히 비축해두어야 겨울을 날 수 있다. 산에 들에 단풍이 들면 곤충의 제왕인 왕사마귀의 전성시대도 막을 내린다. 이젠 팔을 뻗어 눈앞에 알짱대는 먹이감을 낚아챌 기운도 없다. 왕사마귀 한 마리가 대웅전 석축에 죽은 듯이 붙어있다.

아무래도 각연사의 본전은 비로전이다. 보물로 지정된 비로자나불상도 비로전에 모셔져 있다. 비로전이 앉은 주산(主山)은 덕가산이다. 덕가산 줄기는 봉암사가 자리한 희양산으로 이어진다. 안산(案山)인 칠보산은 화려한 이름과는 달리 하루 종일 그늘에 가려있다. 조산(祖山)인 속리산은 그 너머에 자리하고 있고 보개산은 오른쪽 내백호로 앉아있다. 이렇듯 각연사는 첩첩산중에 둘러싸인 천옥(天獄)이다. 이런 형국에선 도인이 살지 않으면 도적이 숨어든다고 했으니, 나옹이 고려조의 도인이라면 사명당은 조선조의 도인이겠다.



여인네들의 브로치를 연상케 하는 누리장 열매

비로전 정면의 기둥은 상처투성이다. 상한 부분을 수술해 도려내고 다른 나무로 갈아 끼웠다. 스님들의 누더기 옷과 같다. 숲 속에 살면서도 나무 다루기를 천금같이 해온 옛 스님들의 나무 사랑이 가슴 뭉클하게 와 닿는다. 비로전 앞마당에 달피나무(염주나무)와 늙은 대추나무가 서 있다. 각연사 대추나무는 우리나라 절집 안의 대추나무 가운데 가장 고참이다. 너무 노쇠하여 열반이 멀지 않은 상황이다.

절에서 개울을 따라 통일대사비를 찾아가다보면 왼쪽으로 넓은 골짜기가 나타난다. 칠보산과 덕가산의 경계를 이루는 이곳에는 암자 하나는 충분히 들어서고도 남을 넓은 풀밭이 있다. 거기 비신을 잃어버린 귀부 하나가 묻혀 있어서 등산객들은 '거북등 골짜기'라고 부른다. 거북등 골짜기 초입에는 칡덩굴을 비롯해 온갖 초본류들이 어지러이 뒤엉켜있다. 왕고들빼기 수크렁 새팥 소리쟁이 진득찰 익모초 억새 익모초 등의 우리 풀들과 달맞이꽃을 비롯한 왕강아지풀 망초 개망초 돼지풀 환삼덩굴 등 귀화식물들도 한데 어울려 있다.

산에 에워싸인 풀밭은 햇볕이 좋아서 곤충들에겐 극락이다. 9월엔 청띠신선나비가 여왕 노릇을 하고, 10월엔 산제비나비가 여왕 노릇을 한다. 어디선가 부스럭 소리가 나더니 노루가 펄쩍 뛰어 산꼭대기로 도망을 간다. 거북등 골짜기는 초본류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어서 겨울에도 노루들이 내려와 마른 건초로 배를 채우고 가는 곳이다. 노루는 산림지대에 사는 초식동물이다. 수컷은 20센티 가량의 뿔을 갖고 있는데, 생후 1년이 되면 뿔이 나기 시작한다. 가을에 짝을 짓고, 늦은 봄에 2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통일대사탑비로 가는 길은 지난해 루사 태풍으로 여기저기 패여서 어디가 개울인지, 어디가 길인지 분간이 안 된다. 통일대사비 앞에 노린재나무가 파란 열매를 탐스럽게 내달았다. 노린재나무는 어른 키 정도의 작은 나무이다. 개울 주변에 박새 어치 직박구리 쇠딱다구리 등이 어지러이 날아다닌다. 박새는 우리나라 산에서 가장 흔한 새이다. 그래서 넓을 박(博)자를 붙여주었다. 목욕을 즐겨하기 때문에 박새가 있는 곳을 찾아가면 물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등산객들의 오랜 지혜이다.

칠보산의 남동사면 숲은 자연도가 높다. 참나무류는 졸참나무 갈참나무 신갈나무 등이 나타나고 다른 교목으로는 느티나무 산벚나무 서어나무 층층나무들이 섞여 있다. 아교목과 관목으로는 붉나무 때죽나무 쪽동백 산초나무 생강나무 단풍나무 국수나무 철쭉 진달래 갯버들 왕버들 등이 보인다. 위로 올라갈수록 토양이 얕아지면서 바위들이 많이 나타난다. 높이 오를수록 산도 빠르다. 따라서 소나무의 우점도도 점차 높아진다. 2002년 솔잎혹파리가 난동을 부리고 간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있다.

칠보산의 9월은 버섯철이다. 송이버섯을 따러 마을사람들이 뻔질나게 다닌다. 이 등산로도 송이꾼들이 낸 길이다. 산중 사람들은 능이버섯과 자연산 표고버섯을 송이버섯보다 더 쳐준다. 칠보산에는 그 밖에 싸리버섯과 오이꽃버섯 등 여러 종류의 식용버섯들도 함께 난다. 그러나 버섯철은 단풍물이 들기가 바쁘게 끝나고 만다. 9월말이면 버섯꾼들의 발걸음은 이미 사라지고 보이질 않는다. 이 가을이 끝나면 숲길엔 더덕꾼들이 한둘씩 다시 올라올 것이다.

글·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www.sgsb.ac.kr

대학원학생모집

Ⅰ. 모집학과 및 과정

개설학과	전 공	수여학위	
		석 사	박 사
불교학과	불교학	불교학석사	불교학박사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석사	사회복지학박사
	명상학	명상학석사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	상담학석사	상담학박사
	자아초월상담학		
	요가치료학		

Ⅱ. 모집인원
· **모집과정 :** 석사과정 00명 · 박사과정 0명 · 연구과정 0명

Ⅲ. 지원자격
1.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부전공 무관)
2. 박사과정은 해당 전공과 관련된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자 또는 취득예정자

Ⅳ. 전형일정
1. 원서교부 및 접수
◆기간 : 2004. 12. 1(수) ~ 12. 15(수)
◆장소 : 본교 행정실 또는 홈페이지(www.sgsb.ac.kr)
2. 전형 일시 : 2004. 12. 18 (토) 9:00
3. 전형 방법 : · **석사과정** - 면접 및 구술고사
· **박사과정** - 영어시험 및 면접, 구술고사

Ⅴ. 특 전
1. 관련 전공 자격증 취득 및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
2. 불교학전공 : 응용불교 맞춤식 교육실시, 우수학생 전원 장학금 지급, 박사학위 취득자 연구원 채용

※ 본 대학원대학교는 학교법인 보문학원 소유 수익용기본재산외에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 영각당(납골당)의 수익금으로 운영됩니다.

초빙교수를 모십니다

Ⅰ. 초빙분야

전 공	초빙인원	직 급	임용예정일	비 고
자아초월상담학	1명	초빙교수	2005. 3. 1	계약제 임용
요가치료학	1명	초빙교수	2005. 3. 1	〃

Ⅱ. 지원자격 : 해당 전공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Ⅲ. 제출서류 : ① 이력서
② 연구실적목록 및 실적물
③ 학력 및 성적증명서(대학 · 대학원)
④ 경력증명서
⑤ 석 · 박사학위논문
⑥ 자기소개서

Ⅳ. 제출기한 : 2004년 12월 15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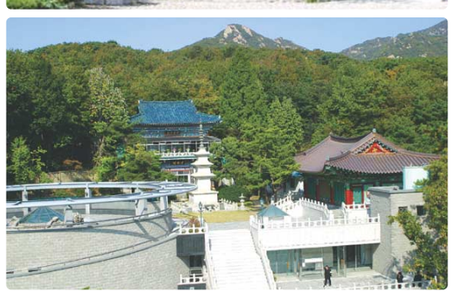
Ⅴ. 제 출 처 : **우)153-831**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038-2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1층 행정실
Tel (02)808-6583, 3321
Fax (02)808-65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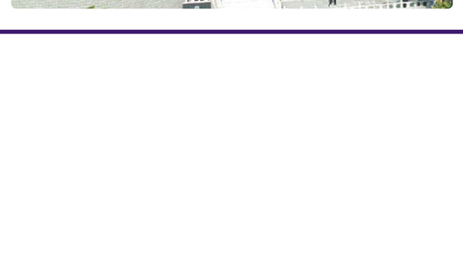
Ⅵ. 기타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면접대상자로 선정된 분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초빙하지 않을 수도 있음.
라. 영어로 강의 가능한 분 우대.

※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대학교 행정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 www.bojangsa.co.kr







보장사 영각당(납골당) 회원모집

◆ 안양유원지 입구에 위치하여 서울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 믿을 수 있습니다.
보장사 영각당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육부인가 전문대학원)와 보문중 · 고등학교(대전), 안양시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이사장 · 주지 : 전덕해) 소속의 믿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 수익금은 전액 교육사업과 사회복지 사업에 투자됩니다.
◆ 교통이 편리합니다. 전철 1호선 관악역 도보 10분
◆ 주차가 편리합니다
자체주차장과 바로 앞 공영주차장 600대 주차가능

영각당 납골단 이용가격

단의 종류	위 수	이 용 가 격
개인단	1위	200만원~330만원
부부단	1위	380만원~550만원
가족단	12위	2,500만원
특별단	24위	4,000만원

※이용가격은 영구 보존 가격임

우)430-80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40-10
Tel (031)471-3322/(02)534-4444, Fax (031)471-3488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